

논문개요

본 연구는 고전문학 교육에서 기행가사의 교육적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기행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인 「관동별곡」을 중심 자료로 삼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행가사의 형식 요소인 ‘가사’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시가 갈래 중 하나이며,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기행가사의 내용 요소인 ‘여행’은 새로운 세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일상과는 다른 삶을 느끼고, 하나의 삶을 형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문학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는 한글 창제 이후 시작된 순 우리 문학의 큰 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사를 교육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전문학 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행가사는 현대문학 교육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학습자는 고전문학이 지닌 시대적 거리감으로 인해 작품에 나타난 언어 표현과 사고방식을 낯설게 여긴다. 또한 작품의 해석 과정이 단어 하나하나의 풀이에 그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고전문학은 무조건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전문학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고전은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평가되어 현재까지도 일정한 정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학으로서 교육적인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상 생활의 언어 사용과 새로운 문화 창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활용해야 한다.

「관동별곡」은 국민공통교육과정 10학년에서 다루는 작품으로 탁월한 표현으로 인해 조선시대 최고의 기행가사 문학으로 평가받아왔고, 여러 가지 교육적 활용에 효과적이어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관동별곡」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습자가 「관동별곡」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동을 체험하고, 기행가사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학습할 수 있는 문학 수업을 만들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느끼고, 새로운 문화창조에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동별곡」의 구체적인 지도내용으로 가사와 기행가사에 대한 개념적 지식 습득과 내면화의 방법을 들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여 적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상상력을 세련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개별적 연구물의 축적으로 기행가사 및 「관동별곡」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실제 문학 수업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2. 선행연구 검토	5
II. 기행가사의 개념과 문학교육적 의의	9
1. 기행가사의 개념과 유형	9
2. 기행가사의 문학교육적 의의	14
3. 기행가사 교육 현황	32
III. 「관동별곡」 교수-학습의 이론 모형과 실제	05
1. 「관동별곡」 교수-학습 모형	50
1) 「관동별곡」 교수-학습 모형 이론 고찰	51
2) 「관동별곡」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56
2. 협동학습을 활용한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 방안	71
1) 가사 및 기행가사의 이해	72
2) 「관동별곡」 텍스트 이해와 감상	87
3) 「관동별곡」의 해석적 접근	110
3. 협동학습을 활용한 「관동별곡」의 내면화 학습 방안	130
1) 감상문 쓰기	131
2) 기행가사 공동 창작	139
IV. 결론	151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우리는 대부분 문학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문학사적 구분을 한다. 그리고 현재의 문학과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문학을 ‘고전문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때 ‘고전’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시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가치를 갖고 있는 문학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우리 조상들이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하면서 검증된 삶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전문학을 교육하고 학습하는 이유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가 ‘삶의 반영’이며, 문학만이 인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삶의 정체성을 벗어나기 위한 물음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전문학 교육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삶의 한 부분이 고전문학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전문학에 담겨 있는 당대인의 삶의 실상과 역사적인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선인들의 사상과 지혜를 배우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 고전문학의 여러 장르 중 가사는 민족의 정서가 담긴 우리나라 고유의 문학으로서 국어과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 계속 교과서에 수용되어 교수-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재이다. 가사 문학이 오랫동안 교육과정에 수용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삶과 전통, 조상들의 슬기와 멋이 배어있는 문학으로서 현재에도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사는 내용, 형식, 표현면에서 우리 고유의 풍부한 정서를 형상화하였고,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갈래로서 문학교육적 위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가사문학은 다른 고전문학 장르에 비하여 감상과 창작이 활발하지 못한 침체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기행가사는 제6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연행가」와 「관동별곡」 2편이 실려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관동별곡」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문학’ 교과에는 기행가사만을 학습하는 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행가사의 교육적 가치는 선조들의 생활 모습과 사상을 이해하고, 문학적 향기를 음미하며 우리 문화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기행가사는 정의적 측면에서도 교육적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문학 영역이다.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과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는 여행자가 창작한 기행가사를 통해 작가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기행가사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일은 문학 작품을 통해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우리 문자가 주는 언어미를 통해 창작의 기쁨을 마련한다. 또한 우리말과 우리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창작에 반영하고, 낭독해 보는 것은 우리말과 글을 순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기행가사의 감상과 이해의 내면화는 결국 학습자의 자아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기행가사의 교육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인식하고, 재조명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기행가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행가사의 문학교육적 의의와 현재 기행가사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관동별곡」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원주에 부임하면서 관동팔경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유람하고 지은 작품으로 빼어난 문장의 사용으로 가사 문학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선인들의 생활, 사상, 감정, 이상 등이 담긴 문학성이 높은 작품으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관동별곡」은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서 학습자가 유일하게 학습하는 가사문학이므로 이 작품을 통해 가사 및 기행가사의 전반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협동학습을 이용하여 「관동별곡」을 교수-학습한다면 작품의 수용과 창작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협동이란 공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협동은 두 사람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추구해 가는 집단 지향적 활동 과정을 뜻한다.¹⁾ 즉, 협동학습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학습자로 구성된 소규모의 집단을 수업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개개인의 학업 성취와 더불어 다른 학습자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만드는 하나의 구조화된 학습 방법인 것이다. 협동학습의 구조는 학습자 개인 내에서,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활발한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구조로서 학습자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협동학습은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는 점,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점, 개인의 책무성이 강조된다는 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는 점,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학습 형태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협동학습은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학습 구조로 보고되고 있다.

협동학습을 통해 문학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습자는 언어 사용 기회가 늘어나 언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구성원 간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적극적

1) 정남진, 『초등학교 도덕과 협동학습의 실제에 관한 연구』, 광주교육대 대학원 석사, 2002, 5쪽

인 태도로 인해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여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모둠원 간의 생각 교환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함으로써 개인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관동별곡」을 교수-학습할 경우 작품의 자구 풀이와 뜻 암기에 치중한 설명 위주의 교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상상력 표현과 창의적 활동이 가능한 교수-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해 자발적·능동적·창조적으로 문학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관동별곡」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가사 및 기행가사의 지식 이해, 「관동별곡」의 감상과 이해, 창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기행가사로서의 「관동별곡」의 교육 방향을 논의하려 한다. 이러한 논의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행가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피고, 기행가사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살피 기행가사가 고전문학 교육의 제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 영역의 내용을 살피고,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실린 기행가사를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행가사에 대한 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셋째, 기행가사의 한 작품인 「관동별곡」을 세부적인 연구 자료로 선택하여 협동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관동별곡」에 이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통해 설계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학습을 직접 적용하여 「관동별곡」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실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한 능동적인 학습 참여로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으로 구성한다.

넷째, 「관동별곡」에 대한 내면화 학습을 실시하여 작품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면화 학습의 방법으로 창작 교육을 설정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관동별곡」을 학습한 뒤의 감상을 감상문으로 작성하는 것과 직접 기행가사를 창작하여 가사 및 기행가사의 특징을 체득하는 것으로 구성될 것이다. 창작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내적 소통 과정이 반영된 것이므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활동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행가사의 교육적 가치를 찾고, 「관동별곡」에 나타난 교육적 요소를 마련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자의 사고력을 증진을 위해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기행가사와 「관동별곡」이 갖고 있는 참신한 표현과 그 표현 속에 내포된 작가의 인식 및 관점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많은 감동을 준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경험한다면 학습자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겠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기행가사 전반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관동별곡」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 기행가사의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넷째, 「관동별곡」의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관동별곡」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기행가사와 「관동별곡」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로 한정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행가사에 대한 교육적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 대상으로 인식할 정

도로 기행가사의 교육적 대상으로서의 자각은 다른 시가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행가사에 대한 교육적 연구는 교과서에 수록된 가사 문학 작품의 교육 실태를 분석한 뒤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 기행가사의 교육적 가치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

가사 문학의 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묘란은 가사문학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제6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가사 작품이 작가, 내용, 시대에 있어 고르게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사 장르의 적절한 개선 방안으로 가사 짓기를 시도하였다.²⁾ 이명심은 제7차 교육과정과 가사 문학 교육에 대해 고찰하고, 역사적 장르로서 가사 문학이 갖는 작품 이해에 대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³⁾ 권용덕은 현행 고전문학 수업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문학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⁴⁾

기행가사의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삼석은 기행가사의 문학적 특성을 탐색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였고, 기행가사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소통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과 학습 모형을 제시하여 학습 평가에 대한 단계적 실시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⁵⁾ 정기철은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기행가사의 창작 원리에 따라 기행가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⁶⁾ 정정순은 가사 문학의 학습 목표와

2) 이묘란, 『고전문학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사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6

3) 이명심, 『가사문학의 특성과 학습활동 방향 모색 - 고등학교 교과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4) 권용덕,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현행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0

5) 박삼석, 『기행가사의 교육성과 효율적인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0

6) 정기철, 「기행가사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한

학습해야 할 내용을 탐색하고, 문학이라는 주제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동시에 포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Bloom의 이론을 토대로 교수-학습 지도의 전략을 모색하였다.⁷⁾

이러한 기행가사 교육에 관한 연구는 기행가사만을 위한 연구보다는 교과서에 수록된 전체 가사 문학의 교수-학습의 목표를 분류하거나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분석·비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행가사 문학의 지도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철의 「관동별곡」은 지금까지 최고의 찬사를 받은 가사 작품으로서 일찍부터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관동별곡」에 대한 교육적 논의도 기행가사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기묘는 송강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살피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교수-학습 방안으로 토의학습, 탐구학습, 현장학습 등을 제시하였다.⁸⁾ 김은아는 고전문학 교육에서의 수행평가의 필요성을 밝히고 수행평가의 한 모형으로 「관동별곡」 감상문 쓰기를 제안하였다.⁹⁾ 김경옥은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고전시가 제재와 학습활동의 적절성을 살피고, 제재별 학습 지도안으로 「관동별곡」을 제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미의식을 학습하도록 하였다.¹⁰⁾ 김현주는 「관동별곡」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관동별곡」의 언어미 측면에서 교육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¹¹⁾ 박대일은 속요, 시조,

남어문학』 제25집,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1

7) 정정순, 『가사문학의 지도방안 연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8) 강기묘, 『정철 문학의 교육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9

9) 김은아, 『고전문학에서의 수행평가 모형 연구-고등학교 국어(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0

10) 김경옥,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 7차 <국어> 상·하 시가 제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가사의 장르적 특색을 살피고, 각 영역에서 가사 부분은 「관동별곡」을 선택하여 모듈별로 활동할 수 있는 교수-학습 요소를 제시하였다.¹²⁾ 안정희는 「관동별곡」의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충효와 자연미를 학습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¹³⁾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기행가사와 「관동별곡」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 업적과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행가사나 「관동별곡」을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송강의 문학이 우리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실제 고전문학 교육에서 그의 문학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흥미 있게 내면화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기행가사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밝히고, 구체적인 「관동별곡」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김현주, 『정철의 관동별곡 연구 - 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12) 박대일, 『고전시가 학습 지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13) 안정희, 『정철의 관동별곡 교수-학습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II. 기행가사의 개념과 문학교육적 의의

문학교육의 목적은 문학 작품에 함축되어 있는 교육적 기능을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문학교육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통찰력, 심미성과 창조성 등을 기르고, 다양한 삶의 체험을 맛보게 함으로써 참된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목적은 고전문학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행가사 역시 문학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효과적인 기행가사 문학교육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행가사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기행가사의 교육적 의의를 통해 기행가사가 문학교육의 제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교수-학습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교육에서 기행가사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그 교육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행가사의 개념과 유형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접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일정 기간 다른 고장이나 다른 나라에 가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행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 이외에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이동하는 행위'로서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서적 체험과 견문에 대한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¹⁴⁾

기행가사는 이러한 여행을 소재로 한 가사로서 여행 도중 받은 인상이나 느낌, 경험 등을 중심으로 서정성을 담아 표현한 문학이다. 이때 ‘기행(紀行)’이란 여행이라는 인간 이동의 지리적 공간 변화를 시간적 변이와 연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행가사는 여행자들이 산하(山河)의 자연 현상을 접하며 보고 느낀 바를 ‘가사(歌辭)’라는 시가 형식을 빌어 형상화한 문학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강현에 의하면 기행가사는 “한국 특유의 문학 양식인 가사 형식에 출발, 노정, 목적지, 귀로의 4단계를 내포한 시간적·공간적 과정에서 여행자가 보고, 듣고, 생각한 자기의 여행 경험을 담아 작품화한 것”¹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기철은 기행가사에 대해 “작가가 여행자(풍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행 동기, 목적지를 중심으로 한 여행의 구체적인 노정과 대상에 대한 감회, 여행 후의 소감을 가사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¹⁶⁾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으로 볼 때 기행가사는 여행 경로와 여행자의 체험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행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여행을 소재로 자신의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정문학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행가사는 단순히 여행 체험을 전달하는 문학이 아니라 여행지와 사물에서 느끼는 개인적 정서와 감상을 운율에 담아 노래한

14) 윤병국·이승곤, 『여행과 생활』, 형설출판사, 2004, 8쪽 참고

15)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1981, 11쪽

16)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17쪽~21쪽

기행가사는 구체적인 노정과 여행 중에 경험한 대상에 대한 서술, 느낌이 있어야 한다. 목적지까지의 노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지에서 노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공간 이동을 통해 여행자라는 인식이 분명한 작품도 기행가사로 분류할 수 있다.(예: 천풍가, 기성별곡) 그리고 이러한 점이 바로 기행가사만이 갖는 특성이다. 자신이 사는 고장을 떠나 여행을 했다하더라도 노정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목적지에서 어느 한 인물, 하나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서술했다면 그러한 작품은 기행가사가 아니다.(예: 독락당, 백상루별곡)

작품인 것이다.

기행가사의 중심 소재는 여행이므로 여행 동기에 의한 분류는 기행가사 유형 분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이다. 여행을 왜 떠났는가 하는 것은 여행자의 서술 시각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되며, 그 동기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 정도와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¹⁷⁾ 같은 자연이라도 임금의 명을 받아 목민관으로서 부임지에 가는 것과 유배를 떠나는 길에서 느끼는 자연 경관은 서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¹⁸⁾ 최강현은 여행 동기 중 여행자의 의지에 따른 분류 방법에다가 여행자의 행선지와 전통적 자사 분류방법을 절충하여 관유가사, 사행가사, 유배가사의 세 가지 분류 방법을 시도하였고, 정기철은 여행 동기와 여행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관유기행가사, 유배기행가사, 사행기행가사, 표류기행가사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기행가사를 관유기행가사, 유배기행가사, 사행기행가사로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관유기행가사(觀遊紀行歌辭)는 작가가 자의나 타의(왕명)에 의해 국내 여행 중에 경험한 산천(山川)과 그 지방의 명승지를 풍류적 시각으로 형상화한 기행가사를 말한다. ‘관유(觀遊)’라는 말은 자기 나라의 안에서 산천 유적지 등을 두루 구경하면서 노니는 것을 이른다.¹⁹⁾ 하지만 정기철은 ‘관(觀)’을

17)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36쪽

18) 정기철, 앞의 책, 36쪽

죄를 입어 유배를 떠나는 것이 여행의 동기라면 그때 자연은 서술자의 신체를 제한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또한 임금의 명을 받아 이국(異國)으로 떠나는 것이 여행의 동기라면 그때 자연은 자국(自國)의 자연과 이국(異國)의 자연을 객관적으로 대비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고, 표류자에게 자연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여행을 왜 떠나게 되었는가, 즉 여행 동기는 서술자의 서술 시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 최강현, 『한국 기행가사 연구』, 신성출판사, 2000, 65쪽~66쪽

‘관유’라는 말은 원래 중국의 전한(前漢) 성제(成帝) 때 사람인 양웅(楊雄)의 「우렵부(羽獵賦)」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罕祖離宮 (한조이궁)

이궁에 자주 가지 않아

단순히 사물을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을 잘 주의하여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유(遊)’를 ‘즐겁게 노닐’의 뜻으로 받아들여 ‘관유(觀遊)’를 ‘사물을 잘 주의하여 보고 그 속에서 즐겁게 노닌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²⁰⁾ 관유기행가사는 「관서별곡」, 「관동별곡」, 「관동장유가」 등과 같이 임무지를 수행하며 삶의 진실을 모색하는 류와 「금강산가」, 「어당금강별곡」, 「영삼별곡」 등과 같이 현실 무상에 대한 풍류를 통해 삶의 안식을 얻으려는 류, 「명춘금강별곡」, 「금강산유산록」 등과 같이 현실 속에서의 좌절을 딛고 일어나 재기를 다짐하는 류 등 다양한 작품이 전하고 있다.

유배기행가사(流配紀行歌辭)는 작가가 죄를 입어 타의에 의해 국내 지역에 유배 도중이나 유배지에서 산천을 대상으로 한 느낌이나 생활 모습을 형상화한 기행가사를 말한다.²¹⁾ 유배기행가사는 서술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죄에 대

而輟觀遊 (이철관유)

土事不飾 (토사불식)

木功不彫 (목공불조)

관유가 끊어지니

흙 한 손 안 붙이고

나무 한쪽 꾸미지 않네.

20) 정기철, 앞의 책, 38쪽~39쪽

이것은 대상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대상에게서 어떤 느낌과 의미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상에게 어떤 느낌과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 기행가사 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은 대상에게서 받은 것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다. 작자는 대상에게 심상을 붙여 넣고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다. 가사 작품 속에서도 ‘산천구경 가사스라’, ‘구경 한번 잘했다’ 등 구경이라는 단어는 곧잘 등장한다. 기행가사 중에서 단순히 구경 차원의 내용으로 된 작품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구경’은 단순히 대상의 외면적인 것, 또는 대상에게서 부여 받은 것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관유’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21)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39쪽

원래 유배라는 단어보다 귀양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작품에서도 유배라는 단어보다 귀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귀양이란 단어의 어원은 ‘귀향(歸鄉)’에서 유래한 것으로 처음에는 형벌이 아닌 향리방축(鄕里放逐)의 뜻으로 쓰였다. 우리말 귀양과 같은 뜻으로 한자는 대충 21개가 되는데 그 중 많이 사용된 단어는 정배(正配), 유배(流配), 출척(黜陟), 배소(配所), 찬배(竄配), 찬적(竄謫), 찬출

한 속죄와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하는 「만언사」, 자신은 죄가 없다하고 대장부의 호기를 표현한 「홍리가」와 「북천가」, 귀양 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유배지로 가면서 유배자의 입장에서 쓴 「북관곡」으로 구분된다.²²⁾

사행기행가사(使行紀行歌辭)는 왕명에 의해 특수한 임무를 띤 신하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여행 중에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형상화한 기행가사이다. ‘사행(使行)’이라는 말은 ‘사신행차(使臣行次)’의 준말로써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다른 나라에 심부름을 가는 신하를 이른다.²³⁾ 그러므로 사신이라는 신분을 가진 여행자가 지은 작품만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신과 유사한 신분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지은 작품도 사행기행가사의 범주에 넣고 있다. 사행기행가사는 사행 목적지에 따라 중국을 여행한 「서정별곡」, 「서행록」, 「연행가」, 「북행가」, 「연행별곡」 다섯 작품과 일본을 여행한 「일동장유가」, 「대일본유람가」 두 작품, 미국을 여행한 「서유가」가 있다.

(竄黜) 등이다. 그 가운데 유배라는 용어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국문학계뿐만 아니라 학술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22)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 연구』, 신성출판사, 2000, 40쪽

「북관곡」은 작자가 유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유배를 가는 할아버지를 유배지까지 모시고 가는 과정과 유배지에서의 느낌이나 생각을 형상화한 것이어서 엄격히 ‘배행유배기행가사’로 분류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배자의 정서나 유배 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유배기행가사에 포함하여 고찰한다.

23)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170쪽

2. 기행가사의 문학교육적 의의

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 힘은 그 민족의 생활 가운데 끊이지 않고 흐르는 전통적인 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정신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이 고전문학이다. 고전문학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가치로 빛나고, 시대를 초월하여 정신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작품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도 그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고전을 배운다.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선대가 만들어낸 언어와 문학적 문화를 체험하고,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고전은 그 자체로 교육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가사는 장르 특성상 체험에 대한 문화적 표현 방식 면에서 작가층, 사회층, 주제별, 내용별로 당시의 언어적 습관이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중 기행가사는 여행이라는 소재를 통해 경험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장르이다. 작가가 처한 처지와 심적 동기가 저마다 다르고, 여정 선택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사법과 여행 동기에 따라 표현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행가사의 다양성로 인해 학습자는 고전 문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견문과 지식을 쌓으며, 당대 현실을 이해하면서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처럼 기행가사는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지닌 문학 교육의 제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충분한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행가사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견문과 지식의 확대

흔히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러 문학 양식 중 기행가사만큼 독자에게 가치 있는 여행의 체험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제시해주는 것은 많지 않다. 그것은 기행가사가 견문과 감상이라는 내적 구조를 주요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던 옛날일수록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그만큼 여행을 통해 얻은 견문은 자신에게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고귀한 지식이 되었다. 기행가사의 대부분이 자신의 신기한 여행 경험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증거이다.²⁴⁾

24)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0, 86쪽~87쪽

(가) 봉내곡

슬하(膝下)의 녀손(女孫)들이 금강산(金剛山) 말하라니
노경괴(路程記) 번역(翻譯)하미 실(實)없고 또 실(實)업니.

(나) 관동장유가

평성의 별넛더니 눈순니 거의 되어
구경하고 도라가니. 못 본 디로도 의논하면
십분의 이삼이라 그도 또한 다형이라
장유가 지엇스니 못 본 스품 이것 보면
더강 짐작하오리다 세신히 초동 월일
일감정필서 안흔부실하여 준풍 낙즈 만하 슈괴하나
우리 형데 좌석의셔 팔경 목견하소서 초하노라

(다) 관동신곡

명산대천(名山大川) 도흔 곳의 삼사월 노던 몸이
오날날 도라와서 가사(歌辭)의 허다 수뢰(許多述懷)
일도(一朝)의 다시 본니 울심회(鬱心懷) 불영(不寧)하다
금강산의 노든 일을 홀노 누워 생각하니
취중(醉中)인지 몽중(夢中)인지 찌닷지 못하겠네
구경하던 경기처(景概處)를 모두 기록(記錄) 하여써면

기행가사가 여행에서 체험한 자기 경험과 감상을 전달하고 보고한다는 것은 문학의 대표적인 기능인 교훈성과 쾌락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의 기능 중 쾌락설과 교훈설은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 동시에 전형적인 것으로 문학이 지니는 양면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쾌락과 교훈이라는 두 기능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묘하게 통합되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문학의 교육 작용은 두 기능이 분리되지 않고 역동적인 관련을 지니는 가운데 문학의 본질로서 드러나게 된다.²⁵⁾ 기행가사는 선인들의 생활상과 사상 등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문화적 전통을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교훈성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적 체험을 통해 작가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문학의 심미성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에서 쾌락성을 지니고 있다.

기행가사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체험성이 작품 창작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며, 어떤 문학 작품보다 인간 군상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된다. 작가의 강렬한 여행 체험은 구체적인 지리나 명승의 묘사, 진솔한 현실의

가사(歌辭) 한 권 너무리라 난필(亂筆)로 적어썬니
 그 사설(辭說) 우습도다. 노쇼남여(男女老少) 보시난니
 놀러보고 곳쳐보와 과희 비소(鼻笑) 안니할가

「봉내곡」은 금강산 여행담을 듣고 싶어 하는 슬하의 여손(女孫)들을 위해 한문 노정기를 가사로 번역한 것이며, 「관동장유가」는 금강산 구경을 못한 이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금강산의 모습을 대강 짐작하기를 바란다는 창작 의도를 밝혔다. 「관동신곡」 역시 자신의 여행담을 남녀노소의 독자들에게 들려주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의 창작 동기의 공통점은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기행 경험을 남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 외에 여행자 자신이 뒷날에 다시 읽어 보기 위한 와유지자(臥遊之資)로 삼기 위해 창작하거나, 자신이 여행한 곳을 뒷사람이 다시 갈 때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작했음을 명시한 작품도 있다.

25) 정정순, 『가사문학의 지도방안 연구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11쪽

표현으로 구체화되어 독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보통 기행가사에 나오는 지명, 인명, 시간, 역사적 사실들은 과장과 허위 없이 표현된다.

(가) 磨訶訶衍 妙묘吉길祥상 雁안門문재 너머디여

외나모 빠근 드리 佛불頂頂臺臺 올라흐니

千천尋심絶絶壁벽을 半반空공에 세여 두고

銀은河하수슈 한 구비를 촌촌히 버혀내여

실ᄃ티 플터이셔 뵈ᄃ티 거러시니

圖도經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李이謫덕仙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廬녀山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흐려니

「관동별곡」

(가) 「관동별곡」은 열두 단으로 흐르는 폭포가 마디마디 끊어져 마치 베틀에 걸어 놓은 낱실 모양으로 가지런히 걸려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박진감을 내기 위해 특징적인 지명만 몇 개의 점으로 던져 둔 다음 12폭포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작가의 인상적인 체험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명승의 묘사를 통해 금강산 산행의 여정과 서경을 보여주고, 여산 폭포보다 낫다는 감상으로 작가의 강렬한 체험을 여실히 드러냈다.

(나) 예부터 전한 말이 그 굴 속 김흔 곳의

관세음보살 부쳐 머물너 잇다 흐여 신나시절 의상디스라

관음을 보랴 흐고 돌 우히 업디여셔

지성으로 예불흐되 관음을 못보거늘

므음의 한니 되어 바다의 빠지려 흐고 몸을 더져 썩러지니

기둥 가운데 룡이 잇서 밧드러 니여 바회 우히 안친 후의

구슬 옥 조각을 디스끼 드리더라

굴 속의 관음보살이 슈경 염주 손의 들고

디스를 니여 줘며 디스다려 일은 말이
 니 몸은 못 보리라 이 산 우희 올라가면
 왕디폭 위 소슨 곳의 절 하나 지어보라
 디스가 츠저가니 디폭 위 소숫거늘
 그 곳의 범당 짓고 부처 삭여 안쳐시니 낙산스가 이 절이라
 목조대왕 여긔 와서 불공하고
 빅의티사 현몽 후의 익조대왕 탄강호스 지금가지 일너오네
 「관동장유가」

(나) 「관동장유가」는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계시로 낙산사를 창건한 설화와 그곳이 목조대왕이 불공을 드려 익조대왕을 낳은 유서 깊은 곳임을 설명함으로써 낙산사의 사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²⁶⁾ 이러한 설화를 통해 지역의 역사나 문화적 특징을 학습자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다) 東大門(동대문) 내드라셔 關王廟(관왕묘) 지난 후의
 무너미 점심하고 비운돌 너머 드리
 征夫(정부)를 만나보면 前路(전로)를 자세 무러
 포천(抱川) 철원(철원) 金花(김화) 金城(김성) 次第(차제)로 지나도다
 길 난 지 옛새 만의 淮陽(회양) 싸 계유 드리
 김핀 골로 斷髮嶺(단발령) 올라서서

26)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0, 81쪽
 27) 박희명, 「한국 유산기 연구: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 연구 8, 한국고전
 문학회, 1993 - 장정수, 앞의 책, 76쪽 재인용

유산기 등의 기행 문학에 나타나는 풍속, 지리, 고적, 설화 등에 대한 관심은 산수의 미적 인식에 민족적 주체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즉, 순수한 자연미에 자국의 인문지리적·풍속적 내용을 각인함으로써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산수미로 체현되도록 만든다. 설화나 유적이 환기하는 ‘역사적 기억’이나 ‘문화적 기억’은 산수미에 대한 미적 체험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다른 나라의 산수보다 우리 산수가 한층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金剛山(금강산) 眞面目(진면목)을 처엄으로 바라보니
心神(심신)이 灑落(쇄락)하고 眼目(안목)이 豁然(활연)하다

「명촌 금강별곡」

(다) 「명촌 금강별곡」은 서울의 동대문을 출발하여 무너미를 지나 포천, 철원, 김화, 김성을 거치며 옛새 만에 회양 땅에 도착하여 단발령에 올라서서 금강산을 첫 대면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여행 경로나 지명의 노출을 통해 학습자는 작가와 함께 여행에 동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행가사의 공간 경험은 여행 체험에 대한 소중한 의미 부여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직 장거리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다른 지방의 낯선 모습은 귀한 경험이었을 것이며, 새로운 경험의 모색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행가사는 가능한 한 풍부한 내용을 담게 되었고, 그 견문을 가능하면 자신의 감상과 더불어 전달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 결과 학습자는 독서체험을 통해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대상이나 사건 등에 대해서 하나의 삶을 갖게 된다. 기행가사 작품에 나타난 노정에 따라 작가와 함께 여행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고, 경험을 확대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작품을 매개로 하여 작가의 독특한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인문 지리에 대한 교양과 지식 등 문화적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도 기행가사 학습을 통해 이해한 견문과 지식의 확대를로 인해 새로운 기행가사를 창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학 능력의 신장

김상옥은 문학 능력을 ‘언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안으로 포괄하면서 문학 텍스트의 고유한 문학적 문법의 규칙을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²⁸⁾ 여기서 내면화란 문학적 문법의 규칙을 습득함으로서 문학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리킨다.²⁹⁾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문학 능력은 문학의 이해와 창조에 관한 능력으로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능력은 작품과 독자의 의사소통 능력이고, 문학 작품 창조에 대한 능력은 쓰기 과정에 관여하는 본질과 원리로서 주체적으로 대상을 내면화하거나 반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³⁰⁾ 그리고 김창원은 이러한 문학의 이해와 창조에 관한 능력은 생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서 그 능력을 좀 더 확충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문학 교육이라고 주장한다.³¹⁾ 기행가사를 통해 문학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행가사는 주로 작가가 여행지에서 경험한 사건과 문화들을 가사라는 양식에 담아서 표출한 문학 작품이다. 그리고 작품의 논리적 구성 방식과 작가의 경험적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은 다른 문학 양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8) 김상옥,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11쪽

- 허왕옥,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 『한어문교육』 제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260쪽 재인용

29) 허왕옥,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 『한어문교육』 제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260쪽

문학 능력은 읽고 쓰는 문학적 소통을 전제로 하여 ‘문학적 형상화를 위한 창조적인 사고력’, ‘문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문학 작품을 즐겨 찾아 읽고 문학적으로 표현 하고자 하는 동기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0) 권오경, 「제7차 교육과정과 시가문학 교육」, 『안동어문학』 제4집, 안동어문학회, 1999.11, 95쪽

31) 김창원, 「문학교육과정의 구성원리」,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997, 101쪽

기행가사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체험과 그 경관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며, 주로 ‘출발-노정-목적지-귀로’의 4단계로 내용이 구성된다. 「관동별곡」처럼 4단계 중 한 두 단계를 생각하는 작품도 있지만³²⁾ 노정과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은 공간 중심적인 서술 방식을 택하여 여행지의 공간을 순차적으로 배열한다.

이러한 공간 중심적인 서술 방식은 작가가 가는 길을 작품을 읽는 독자도 함께 따라감으로써 여행지의 현장을 생생하게 인식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³³⁾ 이때의 서술자는 일인칭 서술자인 ‘나’로서 작품에 등장하며, 사물의 관찰과 현장의 체험을 직접 화법으로 드러낸다.

(가) 금석산 지나가니 온정평이 여기로다
일 세가 황혼하니 혼돈하며 숙소 흐즈
삼 사신 즈는 디는 군막을 눕피 치고
삿즈리를 들어 막아 가방처럼 흐여스되
여관이며 비장 반장 불상하며 못 보겠다

32)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39쪽

작품에서 여행의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작자나 시대 상황에 의해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다. 작자가 죽는다든지, 사회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작품을 완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귀로’가 생략된다. 둘째로는 목적지에 대한 의식이 강할 때에도 어느 부분이 생략된다. 대개 풍류적 성격이 강한 가사로 금강산을 여행한 가사들 중에 목적지까지의 노정이나 귀로를 생략한 작품들이 있다. 조선 초기의 기행가사는 일반적으로 귀로를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이는 ‘긴장성’이라는 문학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목적지까지의 노정과 돌아오는 여정이 같을 때에는 어김없이 귀로를 생략하거나 축소한다. 설령 목적지까지의 노정과 돌아오는 노정이 같지 않더라도 목적지에서 서술자의 정서와 사상 등이 완결로 인해 귀로를 생략하거나 축소한다.

33) 박삼석, 『기행가사의 교육성과 효율적인 지도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22쪽

스면 외풍 드러부니 밤 지니기 어렵도다
 굶낙이라 명식흐미 무명 혼 겁 가려스니
 오이려 이번 길은 오늬월 엄천이라
 하로 밤 경과흐기 파이 아니 어려오나
 동지섯달 긴긴 밤의 풍설이 드리칠 제
 그 고성 웃더흐라 춤홀들 흐다 흐데
 쳐쳐의 화톳불은 흐인 등이 들너 안고
 밤 시도록 나발 소리 즘싱 올가 넘예로다

「연행가」

(가) 「연행가」 중 온정평에서 고생을 하며 하룻밤을 지낸 체험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직접 겪은 체험뿐만 아니라 동지섯달 이곳을 지날 때 고초를 겪었던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을 소개하고 있다.³⁴⁾ 체험의 기록을 창작 동기로 하는 기행가사는 여행지의 공간 체험을 표현하는데 사실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술자인 ‘나’의 체험을 현장성 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경험적 세계를 재현하는 서술방식은 독자에게 현실감을 불러일으키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이바지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 서술자로 등장하여 여행지의 다양한 풍물과 문화를 살펴보고 단순히 여행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흥미와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³⁵⁾ 이러한 기법은 체험의 효과적인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작가 자신의 현실적 경험 세계를 구체적이고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의식에 연유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에 따라서 작품의 구성 역시 강한 논리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가사는 흥겹고 경쾌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34) 박삼석, 『기행가사의 교육성과 효율적인 지도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22쪽

35) 박삼석, 『기행가사의 교육성과 효율적인 지도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23쪽

수 있다. 가사가 경쾌한 느낌을 갖는 것은 ‘의미의 율격’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의 율격이란 의미상으로 율격적 대응을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³⁶⁾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짝짓기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정철의 「관동별곡」을 들 수 있다.

(나) 行行裝장을 다 썰티고 石硯經經의 막대 디퍼
百백川천洞동 겨티 두고 萬만瀑폭洞동 드러가니
銀은 ㄱ툃 무지계, 玉옥 ㄱ툃 龍룡의 초리
섯돌며 썸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관동별곡」

(나) 「관동별곡」의 “銀은 ㄱ툃 무지계, 玉옥 ㄱ툃 龍룡의 초리”라든지,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혹은 “놀거든 썬지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등은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을 대구법에 의해 인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짝을 이루면서 말이 전개되어 가는 본보기들이다. 이러한 질서는 「관동별곡」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 작품의 율격은 3·4니, 4·4니 하는 음절수를 헤아리기보다는 짝짓기의 의미 율격으로 보아야만 그 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시조나 민요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우리 노래에서 율격적 느낌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말의 가장 원형적인 전통이라 할 수 있다.

(다) 나뭇가지 후여잡고 칩년출의 민달이여
간신간신 올라간니 구농연이 예로구나

36) 박삼석, 『기행가사의 교육성과 효율적인 지도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23쪽

천장석벽 싹까질너 병풍 두른 모양이라
 증으로 조와년가 더피로 미러년가
 천작으로 치석하여 반들업고 고흔서라
 그 우난 우묵하여 말안장 형농이라
 우묵한 그 식이로 폭포수 쓰더진다
 흰무지기 빠치인 듯 은하수 쓰더지듯
 소리도 절노 나고 찬발람 절노난다
 석벽의 부드쳐서 물방울 구난 모양
 유리 쇼반 우희다가 진주 구슬 굴이난 듯
 폭포수 소치난디 돌확이 되어쓴니
 널비난 혼간 남죽 깎기난 할양읍다
 비유직하 삼천척 여산폭포 일러훈가

「관동신곡」

또한 (다) 「관동신곡」은 ‘구룡연’ 폭포를 묘사한 것으로 「관동별곡」이 만폭동의 폭포를 “銀은 7튼 무지계, 玉옥 7튼 龍룡의 초리”라고 표현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관동별곡」이 폭포 외면의 사실적인 모습보다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찰나의 모습을 포착하여 전달하는 것과는 달리 「관동신곡」은 폭포의 모습과 크기를 눈앞에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천 길이나 되는 석벽은 닳아서 반들반들하고, 말안장처럼 우묵한 곳에서 폭포수가 쏟아져 한 간 남짓한 돌확 속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질 정도이다. 폭포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폭포의 깊이와 넓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 그 서늘한 기운까지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하였다.³⁷⁾ 「관동별곡」과 같이 생략과 대유에 의한 비약적인 전개와 역동적인 움직임의 포착 등에 의한 체험 전달도 문학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관동신곡」과 같이 경물과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사실적인 묘사 또한 세밀한

37)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0, 92쪽

관찰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

위와 같은 기행가사의 문학적 표현 방식들은 작품을 즐겨 읽고 스스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측면에서 어떤 작품에 대한 관심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창작 교육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행가사는 여행 체험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한 방식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행가사는 학습자의 경험과 정서, 감정을 문학적 장치와 표현 기교를 통해 전달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행가사는 여정에 의한 공간 이동을 구성의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글의 구성이나 내용 구조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수월성을 가지고 있어 학습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기행가사는 언어로 표현된 미적 구조물이므로 독자는 기행가사를 통해 세련된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미적 정서를 높이며,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다. 아름다운 것, 감동적인 것을 느끼고 공감하며, 직접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언어활동의 보고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실의 파악과 비판

문학이 표현하는 세계는 그 사회 문화의 전통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문학은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다. 문학은 무엇보다도 현실의 반영이며, 인간 체험의 기록이다. 문학 작품 속에는 그 시대 인간들이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문학은 그 시대의 거울이며

역사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문화적 전통을 학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학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교육적 기능과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보더라도 기행가사는 충분히 교육적으로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기행가사는 창작 당시 시대의 산물로 당대의 생활 문화나 역사적 현실이 반영된다. 따라서 독자는 이러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역사적 이해를 심화하고 역사적 태도와 역사적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자는 개인과 사회, 역사의 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총체적 삶을 기행가사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가) 平淸丘구驛역 물을 7라 黑흑水슈로 도라드니
蟾蜍江강은 어디메오 雉티岳악이 여기로다
昭昭陽陽江강 느린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고臣신 去거國국에 白빅髮발도 하도 할사
東동州쥬밤 계오새와 北북關관亭亭의 올라흐니
三삼角각山산 第제一일峰봉이 흐마면 비리로다

「관동별곡」

(가) 「관동별곡」은 강과 산이 어우러지면서 작가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강물이 흘러 목척(木覓)에 다다름을 아는 정철은 여기서도 삼각산이 보일 것이라며 연군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도임지(到任地)에 이르는 동안에 자연을 벗삼아 노는 한가함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면서도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것이니 서경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 없으면 임에 대한 생각도 간절하지 않은 것처럼 작가는 자신의 심경을 철저히 자연에 빚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 사회에서 중요시한 이념이 유교였고, 그 중에서도 충과 효는 동양인들의 중심 덕목이자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드러나는 정서이다. 이렇

계 자연경물을 순수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유가적 이념에 의해 해석된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조선시대의 윤리적 정서와 생활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행가사 작품에는 문물이나 다양한 사건에 대한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정신이 드러나기도 한다. 작가의 관찰자 의식과 비판자 의식을 통해 표출되는 현실의 파악과 비판의 기능은 독자에게 사물에 대한 관찰과 비판 의식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 슬푸다 임진년의 이곳치 도흔지리
충무공 니장군이 직회여 방비호면
왜병이 강타흔들 제어이 등눅호리
삼경이 함몰호고 승계가 파천호샤
거의망케 되엇다가 황은이 망극호샤
천명이 나온후의 계유회복 호여시나
간신히 오국호야 강화는 무스일고
붓그럽고 분흔길을 열흔번지 호는고나
한하늘 못닐원슈 아조잇고 가게되니
당부의 노흔터럭 관을딜너 이러선다

「일동장유가」

(나) 「일동장유가」는 임진년에 부산이 일본에 함락된 사건을 회상하면서 충무공이라면 이곳의 지리를 잘 활용하여 방비(防備)에 성공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임진란에 겪었던 치욕스런 일들을 부끄럽고 분한 길을 가려니 장부의 노한 터럭이 관을 찢러 일어선다고 이야기 한다. 작가는 이번 통신사절의 열한 번째 왕래가 부끄럽고 분한 굴욕 외교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

이처럼 임진란 패배에 대한 민족적 분노와 자성을 통해 당시 현실을 비판하면서 통신사 일행으로서 갖는 공적 책임감과 개인적 대일 감정이 상충됨을 보여주어 당대의 지식인의 역사적·현실적 갈등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³⁸⁾

이러한 현실의 파악과 비판 기능은 서사적인 성격에서 연유한 것으로 서정성이 강한 조선 전기의 가사보다는 서사성이 주조를 이루는 조선 후기의 가사에서 더 많이 보인다. 후기가사의 장편화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세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것이고 가사의 성격상 필자의 심경을 거리낌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표출할 수 있었다.

문학 작품은 전에는 한 번도 독자가 의심해 보지 않은 자신과 그가 속한 집단이 공유하는 신념, 태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과연 옳은지, 옳다면 어떤 점에서 옳은지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비판하여 자신의 생활 의식을 향상 시키며, 문학 교육을 통해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기행가사 역시 학습자가 작가와 더불어 역사와 현실을 파악하고,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 내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행가사가 문화적·창조적 교육이 가능한 장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기행가사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이러한 체험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그러한 가치의 체험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 자아 성찰의 계기 마련

기행가사는 문학의 한 부류로서 인생을 제재로 하고 있으며, 읽는 이에게

38) 유향숙, 『일동장유가의 작가의식과 서술방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45쪽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게 한다. 작품 속에 나오는 흥미로운 사건과 견문, 거기에 사용된 언어적 표현 등을 통해서 독자들은 즐거움을 얻게 되고, 한 걸음 나아가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행가사의 작가는 자신이 여행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관찰하고, 현실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작가의 관찰과 비판의식이 표출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은 견문과 지식의 확대, 현실의 파악과 비판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객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작가나 독자에게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가) 칙푸리를 볼작시면 만고서가 다잇는디

경셔스그 빅가셔와 쇼셜피관 운부즈전

슈혹역혹 천문지리 의약복셔 불경이며

상셔도경 기문벽셔 시혹올학 문집들과

명필법첩 그림첩과 천하산천 황지부침

계목뻘tu 놓이빠하 못보던척 티반이오

「연행가」

(가) 「연행가」의 작가는 국내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서책들을 처음 대하면서 그동안 닫힌 세계 속에서 안주하고 있던 자신의 학문적 자만에 일대 충격을 받는다. 전통적 문물 위에 서양 문명의 이기가 더해진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북경에서 접하게 되면서 받은 작가의 문화적 충격은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 계기로 작용한다. 동시에 그러한 여행 체험은 기행가사로 기록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조선 문화 전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나) 毘盧로峰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보니 귀 뉘신고
 東동山山 泰태山산이 어늬야 뉘뉘던고
 魯魯國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天천下下하 엇찌하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관동별곡」

(나) 「관동별곡」은 자연 경물에 대한 탐미적 접근보다는 그러한 경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내는 이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이르러 정철은 공자를 생각한다. 우뚝 솟은 봉우리의 위엄에 감히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여러 봉우리 중에서 가장 출중한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작은 것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을 크게 가지기 위하여 옛날 공자가 태산을 등정했듯이 산에 올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우고자 하는 사고를 엿볼 수 있다.³⁹⁾ 이 시대 사대부는 자연을 통해 장쾌한 기상을 얻고, 도를 발견하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실현을 추구한다. 이렇듯 자연을 통해 정신적 수양에 힘쓰는 것을 강조하는 사대부의 자연 인식 태도를 통해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 등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기행가사가 여행을 통해 단순한 체험이나 미적 흥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기행가사는 우리 조상들의 사상, 감정, 지혜, 용기, 가치관 등이 용해되어 있는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학습자는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고의 과정을 체험하면서 현실로부터 해방을 맛볼 수 있고, 꿈과 이상을 설계하는 힘을 가지게 해준다. 그리고 기행가사를 통한 감상과 심미적 정서 표현은

39)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0, 25쪽

학습자의 내면세계를 살찌우고, 언어와 정서가 순화되어 건전한 심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옛 기행가사의 작가들이 여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과 감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듯이 현대의 학습자들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여행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 있게 재구성하고 발견하는 창조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의의가 있다.

설령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문화적 체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아 성찰의 계기로 작용했음에는 틀림없다. 기행가사는 대리 체험을 통해 허구화한 것이 아니고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여행의 경험을 표현한 것인 만큼 어떤 문학 양식보다도 자기 교육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의미화 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아성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이나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행가사의 교육적 성격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⁴⁰⁾ 문학 작품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사상과 정서를 이해하고, 선대가 만들어낸 언어와 문학적 문화 등을 체험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미적 감수성이 고양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40)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제7차 교육과정 기본 방향 목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이며,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④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3. 기행가사 교육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가 문학 제재로서 충분한 효용성과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현행 학교 교육에서는 이러한 가사의 교육적 의의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행가사의 교육적 가치를 현행 기행 문학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육에서의 기행문학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제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기행가사 작품의 수록 및 교육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와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⁴¹⁾

<표-1> 국어과 10학년 문학 영역 내용 체계

영역	내용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본질 - 문학의 특성 - 문학의 갈래 - 한국 문학의 특질 - 한국 문학의 사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수용과 창작 - 작품의 미적 구조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양상 - 문학의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 - 시(동시) - 희곡(극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동화, 이야기) - 수필 	

41)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25쪽

10학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행가사 작품과 학습목표와 주요 내용 및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고등학교 국어(하) 기행가사 작품 현황
: 「관동별곡」의 학습 목표 및 주요 내용

과목명	국어(하)	
대단원명	5. 감동을 주는 언어	
소단원명	(1) 관동별곡	
단원의 구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인간: 자연과 '나', 자연과 미 •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과 미: 송고, 우아, 비장, 골계 	
대단원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주요 내용 및 활동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별곡의 내용 • 문학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범주 • 문학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범주별 특성 • 관동별곡의 미적 특성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별곡의 어구를 풀이하기 • 관동별곡의 구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 관동별곡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글로 표현하기 • 관동별곡의 미적 표현 방식을 내면화하기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내(內)·외(外)·해(海)금강과 관동팔경을 유람한 후 그 여정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고사(故事), 풍속 등을 읊은 작품이다. 이 노래는 표현면에서 우리말 구사가 유창하고, 내용면에서는 시적 주인공의 정서적 추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사 문학의 백미이다.

대단원 '감동을 주는 언어'는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의 미적 가치를 이해

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제7차 국어과 10학년 문학 영역 내용 중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 속하는 것으로 ‘작품의 미적 구조 찾기’에 해당한다. 이 단원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미술, 음악, 문학 등은 그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 다를 뿐 미를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우선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하)』에서 「관동별곡」을 소단원으로 구성한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²⁾ 첫째, 이 작품이 가사 문학 중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서 고전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6차 교과서에 도 이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고전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을 계속 교과서에 수록하는 이유는 문학적 전통의 계승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작품을 여러 대(代)에 걸쳐 배움으로써 세대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⁴³⁾ 셋째, 이 작품이 관동팔경(關東八景)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므로

4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두산, 2002, 247쪽

43) ① 권용덕,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 현행 고전문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27쪽~33쪽 참고

- 「관동별곡」은 대한민국초창기 국어 교과서 『중등국어』에 실린 이후 계속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다.

㉠ 대한민국 초창기 국어 교과서 『중등국어6』: 고전시가 단원에 수록

㉡ 제1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 『고등국어Ⅲ』: 대단원 ‘우리의 고전문학’ 수록

㉢ 제2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 『국어3』: 대단원 ‘고전 문학의 감상’에 수록

㉣ 제3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 『국어3』: 대단원 ‘고전의 세계’에 수록

㉤ 제4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 『국어3』: 대단원 ‘시가’에 수록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 『국어(하)』: 대단원 ‘노래와 삶’에 수록

㉦ 제6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 『국어(상)』: 대단원 ‘작자, 작품, 독자’에 수록

㉧ 제7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 『국어(하)』: 대단원 ‘감동을 주는 언어’에 수록

② 유소현, 『매체를 활용한 고전문학 교수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0, 71쪽

「관동별곡」이 국어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교과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오늘날 생태적 위기 속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기 보다는 가사 문학 중 가장 빼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가사 작품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문학’은 선택 교과라는 점을 생각할 때 「관동별곡」은 모든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접하는 가사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원에서 「관동별곡」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측면에서 미적 기능을 갖는 작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치고 있다. ‘문학의 본질’ 측면에 해당하는 가사 및 기행가사의 특성이나 갈래 등에 대한 장르적 관점이 부재하고, ‘문학의 수용과 창작’ 측면에서 창작에 대한 활동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내용 및 활동을 보면 ‘이해’에서는 「관동별곡」의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활동’에서는 「관동별곡」의 어구와 구성, 의미, 해석,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자연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준비학습’에서는 미술과 문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을 점검하게 하고, 소단원 (1)에서 「관동별곡」을 제재로 미의 범주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아두기’에서는 미적 범주(美的範疇)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되었으며,⁴⁴⁾ 「관동별

집필자인 김대행 교수는 전국국어교사모임 겨울연수(2002년 1월 21일)에서 ‘파괴된 문화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하여’라고 하였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문학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4)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 (하)』, 교육인적자원부, 두산, 2003, 230~238쪽

곡」 본문 사이에 검재 정선의 그림들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문학적 표현과 미술적 표현을 비교하며 미적 체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⁴⁵⁾ 문학이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심미성을 가진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심미성을 담고 있는 가사 및 기행가사의 전반적인 학습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자들이 「관동별곡」 이외의 가사 및 기행가사 작품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자연과 인간

- 자연과 나: 자연에는 일정한 틀도, 명확한 경계도, 시작이나 끝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의 사물들은 명확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을 바라보는 감상자인 ‘나’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연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 자연과 미: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서 미가 드러난다.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은 자연을 변형하는 방식, 자연을 모방하는 방식 및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가사에서는 자연을 변형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로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의 미가 많이 나타난다.

2.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미

-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이치와 질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자연의 조화라고 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나’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아름다움은 우아(優雅)로 나타난다. 반대로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킬 때 골계(滑稽)가 나타난다.

3.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에서 생겨나는 미

- 자연을 인식하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아름다움은 숭고(崇高)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비장(悲壯)이 나타난다.

45) 「관동별곡」은 일차적으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교과 과정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재로 선정된 것이고, 정선의 그림들은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한 자료이면서 문학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미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 자료이기도 하다.

<표-3> 고등학교 국어(하) 기행가사 작품 현황: 「관동별곡」의 학습 활동

과목명	국어(하)
대단원명	5. 감동을 주는 언어
소단원명	(1) 관동별곡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弓궁王왕 大대闕궐 터희 烏오鵲작이 지지괴니, 千천古고興흥亡亡망을 온다 물으는다.’ 라는 구절에는 날짐승인 ‘오작’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가 나온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인지 말해보자. • 함께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서 인간과 자연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표현을 더 찾아 이야기해 보자. • 함께하기 <p>‘어와 너여이고, 너 ㄴㅌ니 또 잇는가.’라는 구절에서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구절에서 ‘너’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2) ‘너’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가? (3) ‘나’는 ‘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4) 자연에 대해 ‘나’처럼 바라본 적이 있는가? • 함께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陰음崖에예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이야기해보자. (2) 이 구절의 앞부분인 ‘圓원通通골 ㄴ는 길로~三삼日일雨우를 디런는다.’에서 ‘나’가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3) (1)과 (2)를 종합할 때 어떤 아름다움이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보자. • 혼자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仙선槎사를 썩워 내여 斗두牛우로 向향호살가, 仙선人인을 츠즈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글을 써 보자.

「관동별곡」의 ‘학습활동’은 ‘알아두기’에서 학습한 지식을 작품에 적용하는 활동과 「관동별곡」 자체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활동의 ‘함께하기 1. (1)(2)(3)’은 주어진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앞뒤 내용의 꼼꼼한 읽기가 필요한 문항으로 그 다음 활동인 ‘혼자하기 2’와 연계되어 있으며, 감상문 형태의 글쓰기는 가사 작품을 통한 표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활동은 이 단원의 목표인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것에는 부합하는 활동이며, 학습자의 문학 감상과 창작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기행가사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단원이 작품의 창작 활동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학습 목표가 미적 범주 파악에 중점 되어 있고, 「관동별곡」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와 작가의 의식만을 기본적인 학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재는 고어 표기에다 한자어까지 그대로 노출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감상하기가 쉽지 않다. 고어 표기는 옛 시어를 그대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어휘 풀이를 비롯한 여러 활동을 하기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 날개 부분에 몇 개의 낱말과 문장 풀이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어려운 낱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미리 모둠별로 이 제재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휘를 풀이하는 동안 작품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훈고 주석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휘 풀이나 구절의 의미 파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내세운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관동별곡」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

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이다. 이것은 문학 작품을 예술로서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문학 작품을 기능이나 구조, 작품 세계, 작가·작품·독자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 것과는 달리 예술로서의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⁴⁶⁾ 「관동별곡」은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으로 언어미가 빼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활동도 미적 범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서 미가 드러나며, 기행 과정에서 자연의 조화를 본받는 방식의 미가 나타난다는 것은 「관동별곡」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의 학습은 다른 기행가사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행가사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맛보게 하여 참된 인간성을 함양하고, 고전 문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창작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관동별곡」을 비롯한 여러 기행가사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제재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어야 할 것이다.

2)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다음으로 문학 교과서에 실린 기행가사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에 앞서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⁴⁷⁾

4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두산, 2002, 241쪽

47)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304쪽

<표-4> 문학 과목 내용 체계

영역	내용
①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②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③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④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문학 교과서에 가사 작품은 여러 편 실려 있지만 그 중 기행가사를 한 단원으로 할애하여 수록한 문학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없었다.⁴⁸⁾ 18종 문학 교과서 중 기행가사는 본문 외 학습활동으로 「관동별곡」 2편, 「연행가」 1편, 「일동장유가」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각 교과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제7차 교육과정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가사 작품

<표-5> 문학 교과서 수록 기행가사 작품 현황: 「관동별곡」

과목명	단원명 및 작품	학습목표	학습 내용
민중서림(하)	세계 문학과의 만남 - 세계 문학의 흐름과 양상 - 유럽·북미·호주 문학 - 익히기 <관동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로 교섭하는 양상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눈 오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을 아래 작품(관동별곡)과 비교하며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 이 부분은 인간의 심층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갈등인가? • 내용상으로 이 부분의 심적 갈등을 프로스트 시에 그려진 갈등과 비교해 보자.
중앙문학(상)	문학의 본질 - 문학의 본질과 특성 <관동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이 인식적·미적·윤리적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가사의 내용을 걸어로 드러난 사실의 측면과 그 사실에 부여된 가치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자.

민중서림 문학(하)에 수록된 「관동별곡」은 ‘눈 오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

작품(작가)	본문 수록	본문 외 수록
관동별곡(정철)		중앙(상), 민중서림(하)
규원가(허난설헌)	디딤돌(하)	중앙(상), 교학사(하), 민중서림(하), 케이스(하)
농가월령가(정학유)	교학사(상), 디딤돌(상)	중앙(하), 민중서림(하), 천재(하)
누항사(박인로)	두산(하), 중앙(하)	교학사(상)
면앙정가(송순)	교학사(하)	민중서림(하), 중앙(하), 케이스(하)
사미인곡(정철)	금성(상), 두산(상), 문원각(하), 민중서림(하), 블랙박스(하), 천재교육(하)	중앙(상), 디딤돌(하), 케이스(하)
상사별곡		교학사(하), 디딤돌(하)
상춘곡(정극인)	블랙박스(상), 천재(상), 상문(하)	금성(하), 민중서림(하), 상문(하)
선상탄(박인로)		케이스(하)
속미인곡(정철)	교학사(하), 디딤돌(하), 중앙(하), 케이스(하)	두산(상), 디딤돌(하), 문원각(하), 민중서림(하), 천재(하)
연행가(홍순학)		디딤돌(하)
용부가		블랙박스(상)
일동장유가(김인겸)		천재(상), 민중서림(하), 중앙(하)

서'라는 작품과 비교하는 활동이다.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 중 '문학과 문화'에 속하며, 그 중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에 맞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동별곡」은 서정적 자아의 갈등과 자연과 인생의 조화에 관해서 학습하는 제재로 사용되었다.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학에 나타난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표현 방식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가사 및 기행가사의 문학적 본질이나 수용과 창작에 관한 활동은 아니다.

중앙진흥연구소 문학(상)에 실린 「관동별곡」은 문학의 본질 및 특성과 관련하여 작품을 제시하고, 문학의 인지적·정의적·심미적 성격을 묻는 제재로 활용하고 있다.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 중 '문학의 본질'에서 '문학의 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의 기능이나 특징으로 인해 선택된 제재는 아니며, 문학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능을 묻는 활동에 대한 제재로 사용되고 있다.

<표-6> 문학교과서 수록 기행가사 작품 현황: 「연행가」

과목명	단원명 및 작품	학습목표	학습 내용
디딤돌 문학 (하)	I. 문학과 문화 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 창작의 실제 <연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 창작의 본질적인 원천은 삶의 체험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 그러한 체험을 노래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실제로 해 보고, 그 효과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작품을 참고하여, 각자의 여행 체험을 바탕으로 적당한 길이의 가사를 지어보자.

「연행가」는 홍순학이 25세 때 고종의 가례책봉(嘉禮冊封)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에 다녀와서 쓴 기행가사이다. 여정에 따라 청나라

의 문물과 풍속을 예리한 관찰력과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필치로 그려 낸 기행 가사의 최상급에 속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디딤돌 문학(하)에는 대단원 마지막 부분에 ‘창작의 실제’라는 영역을 설정해 두고 다양한 작품을 제시한 뒤 창작을 유도하는 활동이 있다. 이것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중 ‘문학의 창작’에 해당한다. 3단원에서는 「연행가」를 제재로 하여 문학 작품을 쓰는 원천에 대해 학습하고, 창작의 다양한 원천 가운데 쉽게 간과되는 ‘체험을 통한 작품 쓰기’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체험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운율이 있는 노래로 창작하라는 것으로 실제 기행가사를 창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딤돌 문학(상)에서 「농가월령가」를 학습할 때 직접 월령체 노래를 4음보 율격에 맞추어 창작하는 활동을 선행했으므로 율격이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작품의 묘미를 가져다주는 부가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⁴⁹⁾ 하지만 기행가사가 자기가 본 바를 객관적으로 묘사

49) ① 김윤식 외 4인, 『고등학교 문학(상)』, 디딤돌, 2005, 43쪽

「농가월령가」 창작 활동

활동) 표현하기-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일 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일 년 간의 학교 행사를 정리해 보고, 다음 조건에 따라 월령체로 읊어 보자.

조건) • 학급 전체 인원을 네 모듬으로 나눈다.

- 첫째 모듬은 3~5월, 둘째 모듬은 6~8월, 셋째 모듬은 9~11월, 넷째 모듬은 12~2월의 행사를 각각 조사해 본다.
- 각각의 행사를 4음보 율격이 연속되도록 짓는다.
- 각 모듬의 작품이 완성되면 전체를 합쳐서 읽어 보고, 다른 모듬 작품의 훌륭한 점을 찾아본다.

② 김윤식 외 4인, 『고등학교 문학(상) 교사용 지도서』, 디딤돌, 2002, 85쪽

지도 방법) 이 활동은 가사의 형식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의 체험을 살려 간단한 문학 작품을 학생들 스스로 지어 보게 함으로써 문학의 즐거움을 능동적으로 향유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모듬별로 지

하고, 중요한 사실은 빠뜨리지 않되 자신의 견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창작 방법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짧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연행가」는 조선 후기 장편 기행가사로서 노래보다는 율독의 차원에서 리듬을 가지고 낭독하는 작품에 가깝다. 그러므로 학습 목표에서 ‘노래’라는 말보다는 ‘리듬을 가지고 낭독할 수 있도록’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⁵⁰⁾ 그리고 ‘창작의 실제’라는 영역이 실제 학교 현장에

어 보게 한다. 학교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0) 박철현, 『가사의 향유방식 변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7쪽~21쪽

가창, 음영, 완독을 달리 표현한다면 ‘노래하기’, ‘읽기’, ‘읽기’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율문 장르를 향유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창은 악기 반주와 곡조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방식이고, 음영은 악기 반주와 곡조 없이 단순한 가락을 반복하면서 읊는 방식이며, 완독은 가락도 없이 율격적 리듬에만 의존하여 읽는 방식이다. 가창에서 음영으로 나아갈수록 음악성은 점점 감소하여 완독에 이르면 음악성이 거의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까지의 가사는 대체로 가창의 방식으로 향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송강의 가사는 모두 가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① 『동국악보』 평어(評語)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이 지은 것인데, 관동 산수의 아름다움을 차례로 들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괴한 경관을 다 말했다. 사물을 형용한 것이 묘하고 말을 지어낸 것이 기발하여 악보의 절조라고 할 만하다.(東國樂譜評語云: 關東別曲松江鄭澈所製, 而歷舉關東山水之美, 設盡幽遐怪之觀. 物之妙, 造語之奇, 樂譜之絕調也 『校註歌曲集』 224쪽)” ② 『同春堂別集』의 유사(遺事)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동춘은 퇴계의 「어부가」를 책 중에 베껴 두고는 노래를 잘하는 홍주석으로 하여금 칭하게 하였다. 「송강의 「관동별곡」 같은 것은 역시 절조이다. 너는 그 뜻을 아느냐?’라고 묻고는 다시 「관동별곡」을 노래하게 했다. 잠시 후 어부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왔는데, 동춘은 회를 만들게 하고는 주석에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퇴계나 송강이 살던 시절에도 이런 풍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①, ②의 자료는 모두 『교주가곡집』에 나오는 것으로 「관동별곡」은 이 작품이 창작된 16세기 말엽부터 줄곧 가창되어 온 유명한 가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익섭, 「송강 문학형성의 배경」, 『도남조윤계박사 고회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1976, 205쪽)

서 교육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행가사는 다른 가사 작품에 비해 여행의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전통적인 작품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현대적 문학 창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행가」를 비롯한 기행가사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7> 문학교과서 수록 기행가사 작품 현황: 「일동장유가」

과목명	단원명 및 작품	학습목표	학습 내용
민중서림(하)	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 조선 후기 문학 -맛보기 <일동장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후기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표작들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작품이 기행가사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찾아보자. 이 작품의 창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중앙문학(하)	1. 문학 문화와 한국 문학 2. 한국 문학의 특질 <일동장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우리 문학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1. 다음 시가를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보자. (1) (가)에서 일본 문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와 (나)에서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아보자. (2) 위의 (1)번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정리해 보자.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서민가사나 규방가사 또는 「만언사」나 「일동장유가」와 같은 장편가사는 이전의 가사처럼 가창되지 않고 음영되었다. “상이 위연이 누상의 올라 빛화형시며 보시니 우수한 궁녀 둘너 안져 혼 칭을 돌너 보고 두녓 상궁은 오열 체읍하고 모든 궁녀는 손펴쳐 간간 절도형며 혹 탄식형고 칭찬형야 자못 부분형거늘 상이 고이히 너기사 환시로 형여곰 그 칭을 가져오라 형사 익혀 드르시고 지은 사람을 무르시니 알외되 죄인 안도원의 글이라.” 「만언사」의 이 내용은 무수한 궁녀가 둘러 앉아 한 권의 책을 보며 오열하기도 하고, 절도하기도 하며 탄식하고 칭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한 사람이 읽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있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궁녀가 「만언사」를 읽는 방식은 율문의 리듬에 맞추고 가락을 넣어 읽는 음영의 방식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천재 문학 (상)	1. 문학이란 무엇인가 3. 문학의 갈래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일동장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갈래의 개념과 갈래 구분의 원리를 이해한다. • 갈래의 체계 속에서 문학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p>1. 다음은 두 가지 이상의 상위 갈래들의 성질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다. 잘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p> <p>(1) (가)와 (나)는 각각운문 문학으로 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산문 문학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각자의 생각을 밝히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p> <p>(2) (나)는 흔히 교술(敎述)로 보기도 한다. 이 갈래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하위 갈래들을 찾아보고, 그 공통점을 조사해보자.</p>
-----------	------------------------------------------------	-----------------------------------------------------------------------------------------------------------------------	-----------------------------------------------------------------------------------------------------------------------------------------------------------------------------------------------------------------------------------------------

「일동장유가」는 김인겸이 57세 때인 영조 39년에 삼방서기(三房書記)로서 일본통신사(日本通信社) 조엄(趙巖)을 수행하면서 쓴 글이다. 이 작품은 홍순학의 「연행가」와 쌍벽을 이루는 기행가사로서 순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큰 의의가 있다. 작가의 객관적이고 예리한 관찰과 비판, 기발한 위트와 해학을 맛 볼 수 있다.

민중서림(하)에는 조선 후기 문학을 맛보는 차원에서 「일동장유가」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변동의 시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중세적인 지배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문학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사대부 위주에서 벗어나 중인이나 평민층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시가 문학에서는 시조의 혁신이 이루어져 사설시조가 등장하였으며, 가사 문학도 시대를 반영하여 장편화, 서사화, 다양화의 길을 걸었다. 「일동장유가」는 이러한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가 작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에서 ‘문학과 문화’ 중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에 해당한다. 조선 후기 문학의 여러 장르 중 ‘맛보기’ 영역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기행가사의 한국문학사적 의의 등을

나타내기보다는 기행가사임을 알 수 있는 구절과 창작 배경을 알아보는 단순한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중앙진흥연구소 문학(하)에 실린 「일동장유가」는 송순의 시조 일부가 함께 제시되어 인본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특질에 관해 학습하는 활동이다. 두 작품 모두 자연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해 화자 자신을 포함한 논리로써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선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행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문학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전통적인 한국 문학의 가치 체계를 보여주는 제재로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천재 문학(상)의 「일동장유가」는 ‘문학의 본질’ 중 ‘문학의 갈래’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문항에서는 문학의 갈래 체계 속에서 가사 작품을 운문 문학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산문 문학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묻고 있다. 가사는 운문적 요소와 산문적 요소를 두루 가지고 있는 작품이므로 학생 스스로 가사의 특징을 찾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2) 문항은 기행가사를 교술 갈래로 본다는 설명 없이 학습 활동으로 교술 갈래에 관해 묻는 것은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교술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려운 수준이고, 가사에 대한 형식은 이후 단원인 ‘대단원 2’에서 학습하게 되므로 학습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은 아닌 것이다.

이상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기행가사 작품과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와 학습 목표에 부합되는 제재로 활용되어 학습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행가사는 다른 가사 작품과는 달리 ‘가사’로서의 특징

을 살려 수록한 단원은 없었으며, 대단원을 시작하는 맛보기 학습이나 정리 학습에 일부 게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또한 기행가사를 학습하더라도 기행가사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성을 간과한 채 작품 속 화자의 정서나 미적 감수성, 표현 위주의 학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기행가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현실을 인식하며, 자아성찰로 인한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행가사의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펼칠 수 있는 온전한 학습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 현재 기행가사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행가사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살리기 위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동별곡」을 중심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동별곡」은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가사 작품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동별곡」은 국어 교과서에 유일하게 실린 가사 작품이다. 그리고 ‘문학’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과 중학교에서 가사를 학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동별곡」은 10학년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회를 갖는 가사 및 기행가사 작품이므로 「관동별곡」이 갖는 의미는 크다.

둘째, 「관동별곡」은 가사 문학의 백미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대부분의 서경적인 가사가 형승(形勝)의 객관적인 묘사에 그친데 반해, 「관동별곡」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몰입하여 새로운 시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선인들의 생활, 사상, 감정, 이상이 담긴 문학성이 높은 작품이면 그 작품을 통해 선인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조명하는 활동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관동별곡」 역시 그러한 작품 중 하나로서 교육적 가치

를 지니고 있다.

셋째, 이 작품 「관동별곡」이 절창으로 평가되는 근거는 생략과 비유, 대구와 반복 등의 기법으로 박진감 있게 노래한 점에 있다. 문학의 문예적 특성이 삶의 다양한 내용을 각각의 작가가 지닌 독자적인 개성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관동별곡」에 나타난 빼어난 문장의 경지는 교육할만한 가치가 있다.

셋째, 「관동별곡」은 기행가사 작품 중 하나로 작가의 인간적인 면을 함께 느끼고,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다. 여행은 가치 있는 문화적·심미적 경험을 통해 자기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체험이다. 그러므로 「관동별곡」을 자료로 삼아 간접 경험을 하고,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면 더욱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관동별곡」 교수-학습의 이론 모형과 실제

문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활동이다. 교사가 어떤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바탕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때 교사가 문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문학텍스트와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작품 해석과 비평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세월 행해졌던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없애고 학습자가 문학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고에서는 「관동별곡」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내면화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여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자 한다.

1. 「관동별곡」 교수-학습 모형

모형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관해 설명해 놓은 이론을 정형화하여 명시해 놓은 것으로, 교수-학습 모형은 교수-학습에 관한 이론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정형화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문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 모형을 설정하여 「관동별곡」의 교수-학습 모형

51) 이정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1, 35쪽

으로 삼고, 그 모형을 사용할 때 수업 지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인 협동학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바탕으로 「관동별곡」의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1) 「관동별곡」 교수-학습 모형 이론 고찰

(1) 일반 모형의 설정

일반 모형은 수업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일반적 운영원리, 즉 수업의 운영 절차만을 정립시킨 모형이다. 수업의 일반적인 절차원리를 밝힌다는 것은 일련의 수업 활동에서 수업을 어떤 절차와 단계에 따라 이끌어 가며, 수업의 각 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보편적 원리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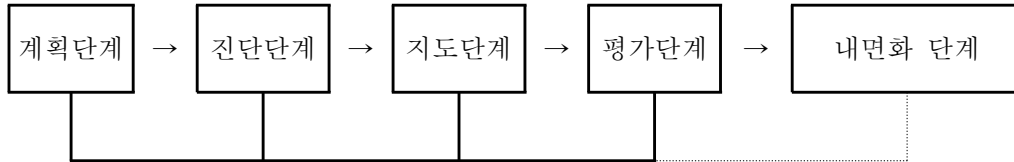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은 수년간 현장 적용을 통하여 일반화시킨 수업절차모형으로 ‘계획→진단→지도→발전→평가’ 모형을 내놓았다. 이것은 종래 일선 학교에서 적용하던 ‘계획→지도→평가’의 3단계 모형 절차 과정을 변형·세분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구인환은 일반 교과 지식 수업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모형처럼 마지막에 ‘평가’ 단계를 설정해도 되지만 문학 수업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한 내면화 과정이 장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를 들

52) 구인환 외 3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274쪽

일반적으로 수업 모형은 수업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모형화하는 일반모형과 어떤 고유한 교육적 상황이나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모형화하는 목표 모형으로 나누어진다. 목표 모형은 일반 절차 모형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학 수업이 고유하게 추구하는 목표에 따른 모형이다. 즉 목표별 모형은 각 학습 과제를 학습하는데 요구되는 학습 조건과 학습 과정의 차이에 따라 그 수업의 고유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형화한 것을 말한다.

어 다음과 같은 5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⁵³⁾

<그림-1> 문학 제제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



이것은 교수-학습 모형 설계시 문학의 정의적 특성상 수용자의 인격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화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내면화’란 ‘수용’의 하위 범주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수용자가 텍스트와 상호 교섭하는 구체적인 양상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Good에 의하면 내면화는 “개인이 가치 판단을 하고 자기의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의 일부가 되는 여러 태도, 신조, 원리 또는 별칙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내적 성장”을 가리킨다. 내면화 과정은 한 현상을 감지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인생관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인 행동 변용을 의미한다.⁵⁴⁾

53) 구인환 외 3인, 앞의 책, 276쪽

54) 서진영, 『학습자 중심 시 교육 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19쪽~20쪽

내면화 과정은 학생이 어떤 현상, 특징, 또는 가치에 주의를 기울일 때 시작된다. 학생들이 현상, 특징, 가치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자신의 지각(知覺)의 장(場, Perceptual)에 있는 다른 것들로부터 이것을 변별해 내게 된다. 이러한 변별이 이루어진 다음에 점점 정의적 의미를 부착시킴에 따라 그 현상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치화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이 전개됨에 따라 학생은 이 현상을 마찬가지로 가치 있다고 반응하는 다른 현상들과 관계 짓는다. 이 같은 반응은 그 빈도가 아주 많아져서 그 현상 및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에도 규칙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일반 언어 교육에서의 교육 목표는 언어 사용 기능을 단일하게 수렴하는데 비하여 문학 교육은 텍스트의 일차적 이해 이외에 또다른 정신능력의 발현으로 이어진다. 바로 감동과 창작 욕구의 표출이라는 교육적 목표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면화는 감동의 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감동 이후에 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 작용이다. 이러한 내면화 과정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작품을 읽을 때 발생하는 감동과 그 감동 이후에도 일어나는 모든 정신 작용을 학습자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 내면화 과정이 활성화되면 독자의 창작 욕구 표출로 이어져 능동적인 내면화인 감정의 최고점을 이루게 되므로 내면화 되지 않은 문학 경험은 의미가 없게 된다.

문학 교육은 단순한 지식 교육이나 기능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화의 원리가 중요하다. 내면화는 가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문학은 인생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문학적 구조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기존 인식을 반성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교육의 내용 구성에서 어떤 방식이든 내면화 과정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내면화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문학이 가치를 문제 삼고 있는 가치물이기 때문에 문학 교육을 통하여 가치 인식력을 세련시키고, 바른 인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면화 단계가 기행가사인 「관동별곡」을 교수-학습하는데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여 구인환의 일반 절차 모형에 따라 「관동별곡」 교수-학습 방안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이 가치들이 하나의 구조 또는 세계관 속에서 상호 관련되는데, 학습자는 이 구조 또는 세계관을 하나의 ‘체계’로 형성하여 새로운 문제들에 반응한다.

(2) 협동학습의 개념과 필요성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은 교수-학습 과정의 큰 도식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나 지도 단계에서는 다시 구체적인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학 교육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문학 교수-학습 모형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수 방법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과 활동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문학’ 영역을 살펴보면 문학

55)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각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활동과 자료를 선택하여 이를 가지고 학습할 순서를 결정하고(개별성), 모든 학습 활동에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자들끼리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상호 작용성) 학습 내용 간에 유기적 관련을 맺으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학습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수’ 활동보다는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즉, 개인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사보다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의 능력, 정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인간은 개인마다 적성과 소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때 그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학습자에 대한 기존의 개념, 즉 학생은 교실 안에서 교사의 교수 활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다.

기존의 문학 교육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지식의 제공이나 올바른 의미 찾기에 열중한 나머지 학습자의 참여와 능동적인 의미 구성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독자 중심의 ‘수용미학’과 ‘독자 반응 이론’이 유입되면서 이들 문학 이론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독일의 ‘구성주의 문예학’이 소개되면서 구성주의적 동향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제7차 교육과정의 큰 틀과 맞물려 현행 문학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표방하게 된 것이다.

작품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 읽고 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작품에 고정된 의미를 독자가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즉,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이 문학 작품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작품 해석과 비평 활동을 통해 국어사용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 활동 중심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강조하므로 저절로 과정 자체가 중시되는 것이다.

(1)-(마) 문제의 해결과정(문제 인식, 문제 이해, 해결 계획 수립, 해결 시행, 반성 등)과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 결과뿐만 아니라 해결 과정과 그 방법도 중시한다.

(2)-(바) 학습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3)-(사) 학습의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⁵⁶⁾

위에 제시한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교수-학습이 단순히 어떤 결과를 얻게 하는데 초점을 두거나 모범을 제시하여 반복·연습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강조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의 결과만을 강조했을 때 학습자는 주체적 독자가 아닌 수동적인 독자로 남게 된다. 그러나 학습 과정을 강조하면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과정을 점

56)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5」, 131쪽~133쪽

검하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 활동에서 활용하는 전략을 수정하면서 학습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된다. 교사 또한 과정을 중시할 경우 학습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지식을 생성하도록 장려해야 때문에 교사는 조력자, 촉진자, 보조자로서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안내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원리를 구현하여 학습의 과정에서 자기 점검과 자기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과정 중심 교수-학습의 요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과정 중심의 원리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은 학습자이며,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해내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학습의 형태에서 나아가 학습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상호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은 협동학습이다. 협동학습은 소집단 학습법으로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주어진 학습 과제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말한다.⁵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동별곡」을 학습하는 방법의 한 형태로 협동학습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동별곡」 교육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작가의 전기적

57) 김정은, 『협동학습을 통한 읽기 수업의 효과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12쪽

Salvin은 협동학습이란 서로 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소집단 내에서 동일한 학습 목표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수업 방법으로, 각 소집단은 리더를 갖게 되며,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Johnson & Johnson은 협동학습이란 협동적 목표 구조를 수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의 다른 학생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과제를 공동으로 학습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실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하고, 작품의 갈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작품 해석 과정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풀이에 그쳐 작품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였다. 이러한 주석(註釋) 위주의 교사 중심 수업은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문학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내면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협동학습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가 맡은 학습에 최선을 다하여 공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습 방법으로서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학습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관동별곡」에 매우 유용한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학습을 문학 교육에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 사용 기회를 늘려 언어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효과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많은 발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사 중심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충분한 발화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5명 안팎으로 구성된 소집단 중심의 수업을 할 경우 서로의 의사 교환을 통해 학습자들이 발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협동학습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학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의사소통 활동을 가능하게 된다. 결국 협동학습은 학습자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실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협동학습은 모든 구성원 간의 성취감을 높이고, 상호간의 우정, 서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등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 학습자는 학습에 임할 때 서로 경쟁하거나 협동하면서 학습목표에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상호 경쟁은 학습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지만 경쟁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 행위

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아울러 인간관계 역시 경직될 가능성이 많다.⁵⁸⁾ 반면 협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개방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답을 얻어낼 수 있다. 학습자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면서 학습 부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리더십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신뢰도를 구축하며, 발표와 토의·토론 기술 등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셋째, 협동학습은 모든 학습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고,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에서는 구성원들의 개별적 책무성이 강조되지 않아 일부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의 노력에 편승할 수 있으나 협동학습에서는 구성원들 각자가 책임을 갖는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⁵⁹⁾ 그리고 소집단으로 구성된 협동학습을 실시하

58) 홍지선,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 연구 -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16쪽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별학습 비교>

구분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별학습
교수 활동 형태	고급 사고력 중심의 내용을 다양한 활동으로 교수함	학습해야 될 내용은 분명하며, 경쟁 규칙이 분명히 제시됨	지식이나 기능을 학생 스스로가 얻을 수 있도록 과제가 분명하며, 해야 될 활동도 세분화됨
학습 목표의 중요성 인식	학습 목표는 각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각 학생은 그 집단이 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학습 목표는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단지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가짐	학습 목표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며, 언젠가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함
학생의 활동	각 학생은 다른 학생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책임, 집단에 기여, 과제 분담,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용함	각 학생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며, 자신의 학습 활동을 즐기며, 경쟁자의 진보 상태를 평가하며, 능력, 기술, 지식 등을 비교함	각 학생은 다른 학생에 의해 간섭받지 않으며, 과제 완성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며, 자신의 노력과 과제 수행의 질을 평가함
도움의 원천	동료학생	교사	개별학습자나 교사

는 것은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형태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내성적인 학생들의 경우 전체 학급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어려워도 소집단 내에서는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동등한 학습 참여 기회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협동학습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성공 경험을 갖게 되어 바람직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넷째, 협동학습은 생각 교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여 개인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학습하면 개별적으로 학습할 때보다 사고 활동이 촉진되고, 이것은 결국 개인의 사고 능력 배양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게 되면 언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에서 그것의 의미를 나름대로 구성하는 능력, 즉 분석, 종합, 비판하는 행위가 강조되어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의, 토론, 논쟁, 질의, 설명 등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학습자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 개인의 배경 지식과 관점에 따라 달라

59) 김정은, 『협동학습을 통한 읽기 수업의 효과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16쪽

<협동학습과 전통적 소집단 학습의 차이(Johnson & Johnson, 1984)>

협동학습	전통적 소집단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있다. ● 개인적 책무성이 있다. ● 구성원의 이질성을 갖는다. ● 리더십을 공유한다. ● 서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 과제와 구성원과의 관계지속성 강조 ● 사회적 기능을 직접 배운다. ● 교사의 관찰과 개입이 있다. ● 소집단 활동이 활발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의존성이 없다. ● 개인적 책무성이 없다. ● 구성원의 동질성을 갖는다. ● 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 ●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과제만 강조한다. ● 사회적 기능을 배우지 않는다. ● 교사는 집단의 기능에 무관심 ● 소집단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진다. 학습자들은 서로 자신의 감상과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의 대상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협동학습은 활발한 의견 나눔이 가능한 학습 방법으로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사고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협동학습을 실시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협동학습의 한 방법을 이용하여 「관동별곡」을 교수-학습하면 작품의 수용과 창작 측면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

(3) 협동학습 모형

협동학습의 수업 기법과 모형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실제 수업에서 모두 활동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협동학습 모형은 과제 분담 방식에 따라 직소(Jigsaw) 모형과 집단 조사(GI: Group Investigation) 모형⁶⁰⁾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보상 방식에 따라서 성취 과제 분담학습(STAD: Student Team Achievenment Division) 모형⁶¹⁾과 팀 경쟁학습(TGT: Team Games

60) 집단조사 모형은 학생들에게 넓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습득, 분석, 종합하는 통합적 학습에 적합하다.

61) 김정은, 앞의 책, 20쪽~21쪽

성취 과제 분담학습 모형은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그룹 내에서 협동을 유발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교사에 의한 교수 활동 후에 소그룹 활동을 실시하고 개인별 퀴즈를 치르는데, 이 점수는 개인별 향상 점수로 계산되어 소그룹의 점수로 반영된다. 그리고 소그룹 점수를 공개하여 학급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점수에 따라 소그룹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보상의 기회를 동일하게 가질 뿐 아니라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을 하게 하여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Tournaments) 모형⁶²⁾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자율적 협동학습(CO-OP CO-OP) 모형⁶³⁾과 함께하기 학습(LT: Learning Together) 모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습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여러 방식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협동학습 방법으로 직소Ⅱ 모형과 함께하기 학습 모형을 검토하여 기행가사와 「관동별곡」의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① 직소(Jigsaw)Ⅱ 모형

Aronson에 의해 처음 개발된 직소 모형은 5~6명으로 구성된 팀이 학습 과제를 5~6 등분하여 같은 학습 과제를 받은 학습자끼리 임시 집단을 구성하여 임시 집단에서 학습 과제를 완전학습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팀 구성원에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즉, 직소 모형은 소집단 구성원 각자가 반드시 과제의 일부를 책임지고 분담해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여 소집단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직화한 모형이다. 이러한 직소 모형은 초창기 직소Ⅰ 모형 이후 직소Ⅱ와 직소Ⅲ 모형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평가 방식에 의한 차이에 의해 모형의 절차를 달리한다. 직소Ⅰ은 평가에 있어 개별평가로서 절대평가를 실

62) 김정은, 앞의 책, 18쪽

팀 경쟁 학습 모형은 제급별 운동 시합과 비슷한 방법으로 수업을 마치 게임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성공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63) 김정은, 『협동학습을 통한 읽기 수업의 효과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18쪽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은 학급 전체의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과제를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에서 소주제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협동하는 모형이다.

시하였지만 직소Ⅱ는 향상점수를 도입하여 경쟁요소를 부과시켜 효율성을 강화하였다.⁶⁴⁾ 직소Ⅲ은 모집단으로 돌아와 잠시 시험을 대비할 시간을 주는 방식을 택한다. 세 가지 모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8> Jigsaw, JigsawⅡ, JigsawⅢ 모형의 차이⁶⁵⁾

직소 (Jigsaw) Ⅲ	직소 (Jigsaw)Ⅱ -3단계 후 퀴즈	직소 (Jigsaw)	1단계	모집단: 과제분담 활동
			2단계	전문가 집단: 전문가 활동
			3단계	모집단: 동료 교수 및 질문 응답
	4단계	일정 기간 경과		
	5단계	모집단: 퀴즈 대비 공부		
	6단계	퀴즈		

직소모형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협동학습 방법으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학생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소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직소 모형과 STAD의 점수 방법을 결합한 직소Ⅱ 모형을 통해 기행가사의 장르적 특성과 같은 개념적 지식의 학습을 실시하고자 한다.

직소Ⅱ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직소 모형의 장점과 함께 퀴즈 활동을 통한 형성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직소Ⅱ 모형은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학습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선택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모두 학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또래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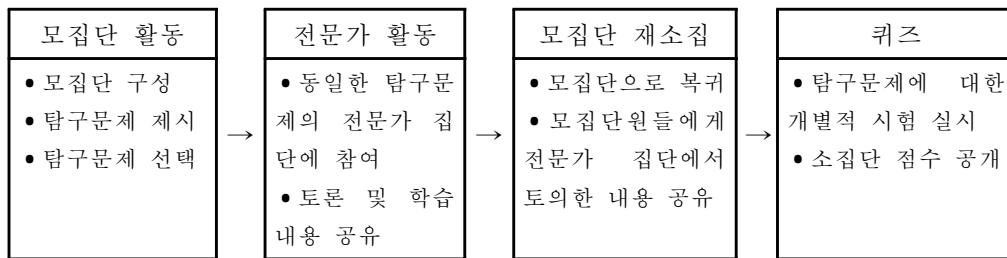
64) Aronson에 의해 개발된 직소 모형에 Slavin이 STAD 모형의 개별 평가와 팀 평가 방법을 접목시켜 개작한 모형이다.

65) 정문성,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3, 180쪽 재인용

전문가 활동의 장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더불어 개인의 향상 점수에 의한 소집단 점수 획득으로 전문가 활동과 협동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개인의 학업 성취와 아울러 집단의 공동 목표에도 이바지해야 하므로 수업의 방관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직소Ⅱ 모형의 수업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직소Ⅱ 모형의 수업 절차



첫째, 교과에서 한 단원을 선택하여 이를 몇 가지 기본 주제로 나눈다. 둘째, 4~5명의 이질 집단으로 소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의 집단명을 정해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갖도록 유도한다. 셋째, 각 소집단에 각각의 주제가 질문의 형식으로 적혀 있는 전문가 용지를 배부한다. 넷째, 이 주제를 소집단 구성원 각자에게 하나씩 할당하고, 각 주제를 맡은 구성원은 그 주제에 한하여 전문가가 된다. 다섯째, 각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자신들이 선택한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이때 전문가 용지와 전문가 학습지를 활용한다. 여섯째, 전문가 토론이 끝나면 자신의 모집단으로 돌아가 기본 주제를 학습하게 된다. 일곱째, 각 주제의 전문가가 되어 돌아온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학습한 주제를 다른 동료에게 가르쳐 준다.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영역은 전적으로 동료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습자는 동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표현하는 기능과 듣는 기

능을 익히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여덟째, 소집단 학습이 끝나면 각 주제에 관한 개인적인 시험을 치른다. 아홉째, 소집단 점수를 공개하고 게시판에 팀의 성적을 공고한다. 소집단 점수는 항상 점수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② 함께하기 학습(LT: Learning Together) 모형

함께하기 학습 모형은 미네소타 대학 교육 심리학자인 존슨(David W. Johnson)과 교육과정학자인 존슨(Roger T. Johnson)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5~6명의 이질적인 학생들이 하나의 학습 집단을 만들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학습 방법이다.⁶⁶⁾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협동과 응집력 있는 공동체 및 그 속에서의 공동 목표를 향한 상호작용과 협력적 노력이 매우 강조된다. 이 모형에서 학생들은 구성원끼리 협의와 동료 간의 개인지도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집단별로 완성된 하나의 답안지나 보고서 형태로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뉠대로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정보 교환, 학습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동료에 대한 격려, 다른 구성원들의 이해 정도 확인 등 협동 행위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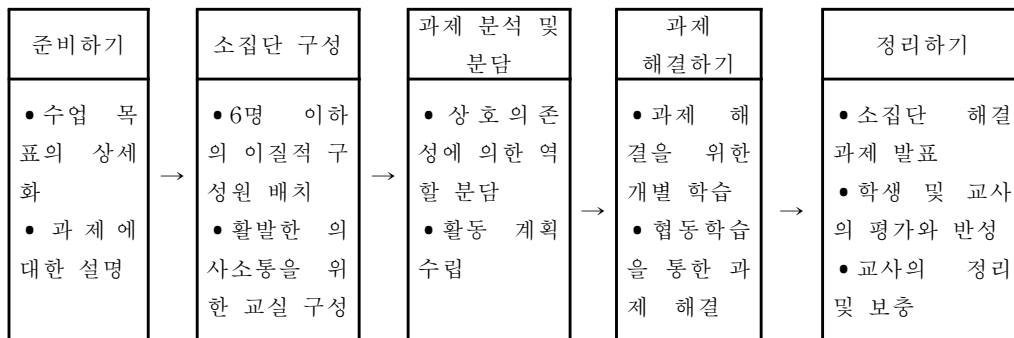
이때 보상은 집단별로 하고, 평가도 집단별로 받는다. 시험은 개별적으로 시행하지만 성적은 소속된 집단의 평균 점수를 받게 되므로 자기 집단 내의 다른 학생들의 성취 정도가 개인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 평균 대신 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각 구성원들에게 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다. 결국 이 모형은 학생들의 협동적 행위에 보상을 줌으로써 협동을 격려하고 조정하는 것을 기본 과정으로 하고 있다.⁶⁷⁾

66) LT 모형은 공동학습법, 함께 하는 학습법, 함께하기 학습법 등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이처럼 함께하기 학습 모형은 구성원들이 함께 관련된 자료를 읽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교환하는 것을 강조하는 학습법이다. 다른 학습법에 비해 간단하고, 학생들 간의 언어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어과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⁶⁸⁾ 본고에서는 「관동별곡」의 텍스트 이해와 감상, 창작 활동에 관한 교수-학습 방안에 함께하기 학습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함께하기 학습 모형의 수업 절차는 총 1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동별곡」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해 정리·재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함께하기 학습 모형 절차



첫째,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수업 목표를 상세화하여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소집단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인

67) 이경수, 『협동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38쪽

- 유병열, 「도덕과 협동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13권 제1호, 서울교육대학교, 2001, 11쪽 재인용

68) <http://www.kice.re.kr/> - 협동학습법 참고

지하도록 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소집단 구성 단계에서는 협동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집단을 적절하게 구성한다. 협동학습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질 집단으로 구성하는데, 이질집단은 서로 다른 능력과 흥미를 가진 집단으로서 학습 과정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소집단 내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교실을 구성한다. 셋째, 과제 분석 및 분담 단계에서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의존성에 의한 역할 분담을 실시한다. 먼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어떤 순서로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때의 역할 분담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구성원의 수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한다. 넷째, 과제 해결하기 단계에서는 과제 해결을 위한 학습을 실시한다. 각자 맡은 임무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가 해결한 과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소집단의 해결 과제를 발표하고, 학생과 교사의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를 실시한다. 교사는 평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과제에 대한 정리와 보충을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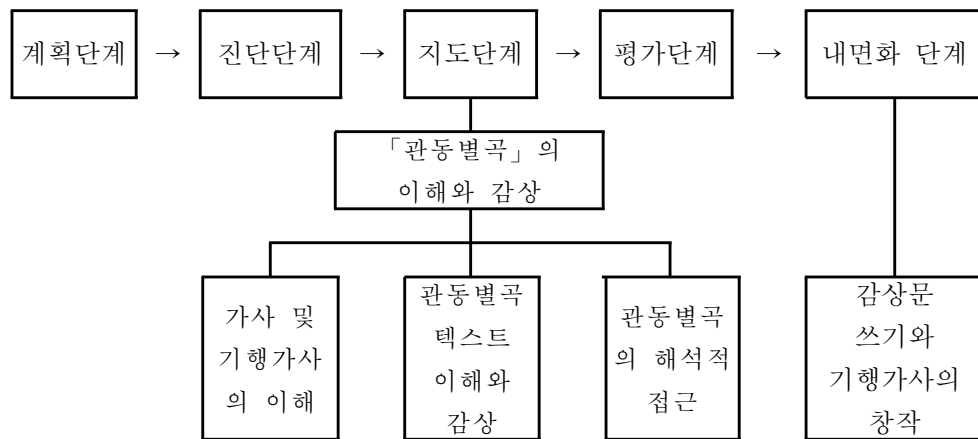
2) 「관동별곡」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수업 모형은 문학 장르, 학습의 조건이나 과정, 단원 체제 등의 성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구인환이 개발한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지도 단계에서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을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수용 측면에서 모형을 설정하고, 문학의

창작 측면과 관련하여 감상문과 실제 기행가사 창작 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에서 활용하는 협동학습 모델을 통한 지도안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관동별곡」 교수-학습의 일반 모형만을 제시한다.

<그림-4> 「관동별곡」 교수-학습 모형



① 계획단계

지도 단계와 평가 단계, 내면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하여 계획하는 단계이다. 수업 설계 단계에서 배치된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학생들이 확인하고, 세부 학습 목표 및 교수-학습 활동을 구상하며 평가의 영역과 방법을 결정한다. 수업 목표는 「관동별곡」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을 염두에 두고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유동적인 수업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학습자의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매체 자료를 선정하고, 모둠 활동을 평가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모둠 과제를 제시할 때 평가 기준을 함께 학습자에게 알려준다.

② 진단단계

진단단계는 본시 학습 단원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의 수준과 경험, 수업 환경 등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즉, 학습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선수 학습을 확인하고, 이 학습 요소에 대해 진단하는 활동을 한다. 이는 곧 출발점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전 지식 진단을 통해 본시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더라도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면 학습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또한 모둠활동을 통한 협동학습이 가능한지 진단해 볼 수 있다. 학급 구성원간의 관계, 모둠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교실의 물리적 환경, 도서실 및 멀티미디어 자료실 활용 여부 등을 진단하여 장애 요소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⁶⁹⁾

「관동별곡」을 학습하기에 앞서 진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동별곡」의 갈래인 가사 문학에 대한 선수 학습 경험을 알아야 한다. 「관동별곡」은 국민 공통 기본 국어 교과서에서 처음 배우는 가사문학이므로 가사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학습되어야 한다. 둘째, 고어를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협동학습과 관련하여 모둠 활동 인원수를 점검한다.

③ 지도 단계

본 수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본고에서는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에 관한 학습을 실시한다. 지도 방법은 협동학습의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과제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직소Ⅱ 모형을 통해 ‘문학의 본질’ 영역인 기행가사의 개념과 특징

69) 안정희, 『정철의 관동별곡 교수-학습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등을 학습한다. 「관동별곡」과 같은 개별 가사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개념적 지식을 강의법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학습을 통해 모둠원끼리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물론 탐구 과제에 대한 교사의 보충 설명과 정리 과정이 포함되어 바른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둘째, 함께하기 학습 모형을 통해 「관동별곡」의 작품 배경 및 분위기, 창작 동기, 여정·견문·감상의 이해 등을 모색하고, 모둠별로 논의된 의견을 요약하여 각 모둠별로 발표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으로 낭송과 부분 풀이 형식으로 된 유인물을 제시하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사는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되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평가 단계

지도 단계에서 이루어진 교수-학습의 결과를 놓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반성해 보는 단계이다. 평가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작품의 의미를 수용함으로써 내면화하거나 비평적 안목을 갖게 되었음을 교사나 학습자의 담론적 재현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작품과 이를 통해 구체화된 문화적 함의를 텍스트로 삼아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 내게 되는 과정이다.⁷⁰⁾ 「관동별곡」의 작품 수용과 내면화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지문은 완결된 형태의 작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답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토론식·구두식 발표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개념적 지식은 구체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작가의 시각, 화자에 대한 비평 방

70)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선청어문』 제26호, 1998, 349쪽

법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주관식 평가 시에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답의 개방성을 보장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서술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기행가사의 개념적 지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동별곡」의 텍스트와 연결 지어 그 특징과 효용까지도 설명해 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에 대한 비평을 발표하거나 써보게 하는 방법, 실제 기행가사를 창작해 보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겠다. 평가는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 평가와⁷¹⁾ 학습자 서로 간의 상호 평가,⁷²⁾ 교사 평가를⁷³⁾ 할 수 있다.

⑤ 내면화 단계

내면화 단계는 지도 단계의 체험을 심화시키는 과정이지만 문학 교육의 특성상 수업 시간 내에 내면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하지만 내면화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학습자의 인생에 있어 올바른 가치관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세계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단계이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주제를 강조·옹호하거나 도덕성을 직접 설득하지 말고 충분하고 자상한 안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마

71) 학습자의 자기 평가는 학습자 스스로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이다. 이것은 교수-학습의 자기 교육성에 입각한 평가 유형이다. 이 평가 방법은 학습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지식이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 주고 문학 작품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한다.

72) 학습자 상호 평가는 다른 모둠의 결과물이나 개별 학습의 결과물을 다른 학습자와 돌려 보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모둠과 활동 과제를 돌려 보고 각 모둠에서 생각하는 점을 토론해 보도록 하여 각 모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3) 교사 주도 평가는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 결과에 대하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이다. 모둠 활동 과제를 앞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채점한 후 학습자들에게 채점 결과를 알려 주면서 잘한 점은 강화해 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준다. 모둠 공통 과제와 선택 과제를 각각 기준에 맞게 평가하도록 계획한다.

음 속에 강한 느낌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내면화의 원리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교사의 느낌과 생각을 학습자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감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행가사와 「관동별곡」의 학습도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통해 이해와 감상 능력, 작품의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능동적으로 찾아 읽음으로써 읽는 즐거움, 상상의 즐거움, 깨닫는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끝나면 「관동별곡」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자유롭게 감상문으로 쓰게 하고, 기행가사 한 편을 창작하여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2. 협동학습을 활용한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 교육 방안

문학 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그 필요성 및 의의가 점차 중요시 되고, 특히 각 갈래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학교육 이론 정착이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의 문학교육 현장의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학습을 활용한 「관동별곡」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동학습은 집단을 조직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습 방법이다. 협동학습에서는 협동 집단의 목표 달성이 학습자 개인의 목표 달성이 되므로 모둠원은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모두가 서로를 도와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이는 주석(註釋) 위주의 교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지적·정의적 성장에 가치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겠다.

1) 가사 및 기행가사의 이해

문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가사 및 기행가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관동별곡」을 학습하기 전에 행해져야 하는 활동이다. 왜냐하면 「관동별곡」은 국민공통 기본 국어 교과서에서 처음 배우는 가사 문학인 만큼 가사 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사의 개념과 형식, 작가 등에 대한 개념적 지식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의견을 나누는 직소Ⅱ모형을 활용하여 가사 및 기행가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직소Ⅱ모형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직소(Jigsaw)Ⅱ 모형 학습 지도안

대단원		5. 감동을 주는 언어		소단원	(1) 관동별곡	대상	10학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 및 기행가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단 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형태	
		학생		교사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학습 확인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시 학습 주제와 학습 형태에 대한 안내 직소Ⅱ 모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전 체 학 습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에 대한 배경 지식 확인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구 주제 확인 및 분석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1: 가사의 개념과 발생 - 모듈2: 가사의 형식과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단 구성 전문가 용지 1·2 배부 		Jigsaw Ⅱ모형 학 습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협동 학습을 위한 주의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3: 가사의 성격과 작자층 - 모듈4: 기행가사의 개념과 종류 		Jigsaw Ⅱ모형 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집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 구성 • 소주제별 해결 방법 탐색 • 정리하기 - 전문가 학습지에 요약·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집단으로 이동시 소란스럽지 않도록 주의 • 전문가 학습지 배부 • 전문가 집단별로 주제 해결에 대하여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으로 돌아오기 • 서로 가르치기 - 모집단 동료에게 전문 활동한 소주제를 서로 가르침 • 설명 들으며 종합 학습지에 기록 • 서로 학습 여부 확인하기 -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학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으로 이동시 소란스럽지 않도록 주의 • 전문가 용지2에 소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 기록하도록 격려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용지2를 중심으로 전체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확인 및 정리 • 교사의 보충 설명 	전체 발표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에 관련된 퀴즈 활동 		개별 학습


계획단계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학습목표를 학생 모두가 함께 읽어보고, 교사는 어떤 주제에 대해 학습 활동을 할 것인지 설명한다. 그리고 가사와 기행가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수업은 직소Ⅱ 모형을 이용한 협동학습의 형태로 진행되며, 평가는 전문가 용지 작성과 퀴즈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진단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가사’에 대한 선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지도단계에 들어가서는 모집단을 구성하고, 탐구주제가 적힌 전문가용지1을 배부한다. 모집단은 탐구 과제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전문가 집단 활동시

교사는 각각의 탐구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적혀 있는 전문가 학습지를 나눠준다. 학습자가 탐구 주제의 큰 틀만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교사가 적절한 범위와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학습지 구성이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에서 탐구 주제를 해결한 모둠원은 모집단으로 돌아와 다른 모둠원들에게 자신이 탐구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모둠원들은 의견 교환을 통해 가사와 기행가사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전문가 용지2에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협동학습을 할 때 교사는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며 보충설명을 해야 하며, 학습자의 지식 체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심 내용을 정리해주고, 전문가 용지2와 퀴즈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직소Ⅱ 모형에서 가사 및 기행가사의 이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용지와 전문가 학습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용지 1		모둠조	() 조
대단원	5. 감동을 주는 언어	소단원	(1) 관동별곡
학습목표	가사 및 기행가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탐구주제	주제1: 가사의 개념과 발생 주제2: 가사의 형식과 종류 주제3: 가사의 성격과 작자층 주제4: 기행가사의 개념과 특징		

전문가 용지1은 학습목표와 탐구 주제 및 과제가 적혀 있는 안내지이다. 모집단은 모둠조의 이름을 정하고,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탐구 주제를 분담한다. 탐구 주제는 가사 및 기행가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으로서 개별 가사 작품을 접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직소Ⅱ 모형을 통한 가사 및 기행가사에 대한 협동학습은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을 도와주고, 기행가사 창작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에 제시된 전문가 학습지는 탐구주제를 세분화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활동지이다. 전문가 용지1에 명시된 탐구 주제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학습자가 막연함을 느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산만하고,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교사가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탐구 주제에 대한 조사는 이전 시간에 예고했다고 가정하고, 전문가 학습지의 구체적인 질문과 학습 방법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가사의 개념과 발생

 전문가 학습지 1	탐구주제	가사의 개념과 발생
()학년 ()반 ()번	이름 ()	모둠조()
-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학습한 탐구 주제의 내용을 학습지에 잘 정리해 봅시다.		
1. 가사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 가사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루는 율문 구조만 갖추면 내용은 무엇이든지 노래했던 양식이다.		
2. 가사는 언제부터 창작되었을까요? ▶ 최초의 가사 작품에 대해서는 조선 성종 때 정극인이 지은‘상춘곡’이라는 견해와 고려 때 나옹 화상이 지었다는‘서왕가’라는 설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최초의 가사로 보기에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상춘곡’을 가사의 효시라고 본다.‘상춘곡’을 기점으로 송순의‘면앙정가’, 정철의‘성산별곡’으로 이어지는 강호가도 시풍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상춘곡’을 가사의 효시로 본다면 가사가 창작된 시기는 14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3. 가사는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 기존의 문학 양식인 시조나 경기체가가 형식상 제약이 많아서 생활 감정이나 자연의미를 자유롭게 표현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종류의 경험과 사고 및 표현 욕구를 담을 수 있는 가사가 등장하였다.		

4. 가사도 시조처럼 노래로 불리졌을까요?


▶ 17세기까지의 가사는 대체로 가창의 방식으로 향유되었다. 하지만 어떤 음악에 맞추어 노래했는지 지금은 분명하지 않으며, 가사의 장면화로 인해 노래가 아닌 읊는 형태의 방식으로 변하였다.

「관동별곡」은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가사 문학으로서 가사에 대한 지식이 얼마큼 있는지 살피고 학습하는 것은 개별 가사 작품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학습 요소이다. 모집단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옮겨온 학생들은 탐구 주제에 대해 각자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교사는 전문가 학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탐구 과제를 통해 탐구 주제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는 탐구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가사가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가 갈래로 노래로 가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가사가 등장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어 하나의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동학습은 미리 제시한 전문가 학습지에 따라 전문가 집단끼리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활발한 협동학습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학습 내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되는 모둠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습자는 전문가 집단에서 한 협동학습 활동은 모집단의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놓을 때에는 집중해서 경청하고, 모둠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해야 하겠다. 그리고 논의한 탐구 주제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전문가 학습지에 적도록 한다.

② 가사의 형식과 종류


 전문가 학습지 2	탐구주제	가사의 형식과 종류
()학년 ()반 ()번	이름 ()	모둠조()
-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학습한 탐구 주제의 내용을 학습지에 잘 정리해 봅시다.		
1. 가사의 일반적인 형식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 가사는 3·4조, 4·4조를 기조로 한 4음보 연속체 운문이다.		
2. 조선 전기 가사와 조선 후기 가사의 형식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가사는 시기상 조선 전기 가사와 조선 후기 가사로 나눈다. 조선 전기 가사는 후기에 비해 길이가 비교적 짧지만 후기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져서 수천 행에 이르는 장편가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선 전기 가사는 낙구가 시조의 종장처럼 3543의 음수율을 지니는 정격가사가 많은데 반해, 조선 후기 가사는 낙구가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변격 가사가 많다.		
3. 가사의 내용에 따른 가사의 종류를 말해봅시다. ▶ 가사는 내용에 따라 크게 은일가사(강호가사), 유배가사, 기행가사, 도덕가사, 종교가사, 내방가사 등으로 분류된다.		
4. 가사의 종류에 따라 작품을 소개해 봅시다. ▶ 은일가사는 정극인의‘상춘곡’, 송순의‘면앙정가’등이 있고, 유배가사는 조위의‘만분가’, 김진형의‘북천가’가 있으며, 기행가사는 정철의‘관동별곡’과 홍순학의‘연행가’ 등이 있다. 도덕가사는 이념과 교훈을 널리 퍼기 위한 노래로 조식의‘권선지모가’가 있으며, 내방가사는 허난설헌의‘규원가’가 대표적이다.		

처음에 제시한 전문가 학습지가 가사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활동이었다면 전문가 학습지2는 가사의 형식과 종류에 대한 것을 탐구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는 각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나누면서 가사의 형식이 3·4조 또는 4·4조를 기조로 한 4음보의 연속체 운문이며, 가사의 형식이 후기로 갈수록 장편화 되어 가며, 변형된 형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가사 문학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가사의 형식과 종류를 학습하는 것은 「관동별곡」을 낭독할 때 운율을 살려

읽을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관동별곡」이 기행가사의 한 종류로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추측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습자끼리 탐구 과제를 풀어나갈 때 미처 조사하지 못한 학습 내용이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교사에게 질문하여 조언을 얻도록 한다. 교사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한편, 탐구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자를 관찰하여 협동학습이 끝난 후 탐구 주제에 관한 보충 설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지 판단하도록 한다.

③ 가사의 성격과 작자층

 전문가 학습지 3	탐구주제	가사의 성격과 작자층
()학년 ()반 ()번	이름 ()	모둠조()
-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학습한 탐구 주제의 내용을 학습지에 잘 정리해 봅시다.		
1. 조선 전기 가사의 작자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 가사는 현실적이고 실복적인 유교 이념과 신비롭고 교훈적인 불교 이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양식으로서 초기 양반이나 승려 등이 주요 창작 계층을 이루었다. 특히 정극인, 정철, 박인로와 같은 사대부들이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을 가사로 나타내고, 충신연주지사(忠信戀主之詞)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가사를 시조와 함께 사대부의 문학 장르로서 세련시켰다. 즉, 조선 전기 가사는 양반층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 후기 가사의 향유했던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 조선 후기에는 자아 각성에 의한 서민 정신과 산문 정신의 영향으로 가사 작품이 담고 있던 종래의 관념적·서정적 내용이 구체적·서사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조선 후기 가사는 평민의 문학적 역할이 커진 시대 사조와 맞물려 음풍농월(吟風弄月)이나 강호한정(江湖閑情)이나 연군(戀君)에서 벗어나 구체적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는 평민가사가 지배적인 시기로 양반가사도 널리 인생 전반에서 주제를 취하였으며,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평민 가사와의 거리가 단축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작가는 사대부와 평민으로서 평민이 새로운 작자층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3. 여성은 가사 문학에 어떤 형태로 참여했을까요?

▶ 조선후기에는 서민의식의 성장으로 평민 뿐 아니라 여성의 문학 참여도 두드러지게 된다. 여성은 가사문학에서 독자의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준다. 규방가사는 섬세한 여성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표현한 가사의 한 종류로서 내용은 양반 문학에 속하나 표현은 평민가사와 상통한다. 규방가사는 접빈객, 봉제사에 관한 예의범절 등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지방에서 창작되고 있다.


4. 가사는 어떤 성격을 가진 문학 작품인가요?

▶ 가사의 장르적 성격은 가사가 시가와 문필의 중간 형태로 시가 문학에서 산문 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장르라는 주장이 있는 이래로 많은 학설이 제기되었다. 가사는 율문으로 된 수필이라는 주장과 율문으로 된 교술 문학이라는 주장, 발생·형식면에서 시가 문학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아직 학계에서 합의된 가사의 장르적 개념은 없으며, 대체로 학교에서는 고전시가의 한 장르로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가 시가의 서정성과 산문의 서사성을 지닌 독특한 형식의 우리 문학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전문가 학습지3은 가사의 성격과 작자층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는 과제이다. 조선 전기 가사의 주요 작자층은 양반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서민의식의 성장으로 평민들의 문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평민과 여성이 새로운 가사 담당층으로 등장하게 된다. 작자층의 변화는 곧 가사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사의 작가를 파악하는 일도 가사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행가사의 경우 여행은 관리와 양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하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가 양반이었고, 내용도 대부분 관료들이 임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 작품의 구성은 대체로 임지까지의 여정, 임지 주변의 승경처 탐승, 여행을 마친 술회로 되어 있다. 그러나 17~18세기에 이르러 대동법의 실시와 화폐경제의 발달, 상공업의 장려 등으로 인해 여행을 하는 신분계층이 확대되면서 내용과 형식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가사의 작자층에 대한 학습은 기행가사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는 협동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는 서정성과 서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르로서 이러한 독특한 형식은 개별 가사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직접 가사를 지을 때 가사가 지닌 형식과 내용의 독특한 미를 염두에 두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관동별곡」에 대한 이해와 기행가사 창작에 대한 기반을 형성하도록 한다.

④ 기행가사의 특징

 전문가 학습지 4	탐구주제	기행가사의 특징
()학년 ()반 ()번	이름 ()	모둠조()
-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학습한 탐구 주제의 내용을 학습지에 잘 정리해 봅시다.		
1. 기행가사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 기행가사는 낯선 곳을 찾아 그곳의 절경과 노정, 사적 및 자신의 심정을 표출한 가사의 한 종류이다. 이때 '기행'은 여행이라는 인간 이동의 지리적 공간 변화를 시간적 변이와 관련하여 기록한 것이다. 즉 기행가사는 여행 도중 받은 인상이나 느낌, 경험 등을 중심으로 서정성을 담아 표현한 문학인 것이다.		
2. 기행가사는 어떤 형식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말해봅시다. ▶ 기행가사는 한국 특유의 문학 양식인 가사 형식에 출발-노정-목적지-귀로의 4단계로 구성되며, 여정-견문-감상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행가사는 목적지를 중심으로 한 여행의 구체적인 여정과 대상에 대한 견문과 감회, 여행 후의 소감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이러한 기행가사는 대부분 서두-본사-결사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서두에서는 기행의 목적과 동기를 표현하고, 본사에서는 자연 경치를 살펴보는 과정을 표현하며, 결사에서는 기행을 통해 느낀 감정이나 군주에 대한 충성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3. 기행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 기행가사는 여행 동기에 의해 관유기행가사, 유배기행가사, 사행기행가사로 분류된다. 관유기행가사는 작가가 자의나 타의에 의해 국내 여행 중에 경험한 산천과 명승지를 풍류적으로 시각화한 기행가사로 백광홍의 '관서별곡'과 정철의 '관동별곡'이 있다. 유배기행가사는 작가가 죄를 입어 타의에 의해 국내 지역의 유배 도중 쓴 것을 말하며, 안조환의 '만언사', 김진형의 '북천가' 등이 있다. 사행기행가사는 왕명에 의해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바를 형상화한 기행가사로 홍순학의 '연행가'와 김인겸의 '일동장유가'가 대표적이다.		

4. 우리 선조들이 기행가사를 창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행자가 자신이 체험한 경험과 감상을 전달하기 위해 기행문을 작성하였다. 기행가사 역시 자신의 기행 경험을 남에게 알리고자 기행가사를 창작하였다. 더불어 여행자 자신이 뒷날에 다시 읽기 위해 창작하기도 하였으며, 다음 여행자가 자신이 여행한 곳을 갈 때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창작 동기가 되었다.

「관동별곡」은 가사의 여러 종류 중 기행가사에 해당하는 작품이므로 기행가사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행가사의 개념을 통해 「관동별곡」이 어떤 문학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고, 기행가사의 형식 원리는 「관동별곡」의 여정과 감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내면화 과정에서 기행가사를 창작할 때 내용 구성의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선조들이 여행 후에 기행가사를 창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서 현재 우리가 기행가사를 왜 학습하는지 느끼게 하여 가사 및 기행가사에 대한 교육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

전문가 집단에서의 협동학습이 끝나면 함께 논의한 과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각자 전문가 학습지에 적고, 전문가 학습자 활동이 끝난 뒤 모집단으로 돌아가 모둠원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한다.

⑤ 종합 학습

교사는 모집단 협동학습 결과를 학습자에게 더욱 인지시키기 위하여 종합 학습을 실시한다. 전문가 용지2는 종합학습지로서 전문가 집단에서 학습한 내용을 모집단에 돌아와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지이다.

 전문가 용지 2- 종합 학습		
()학년 ()반 ()번	이름 ()	() 조
학습목표	가사 및 기행가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 전문가 용지2는 전문가 집단 활동을 마친 후 모집단으로 돌아와 서로 탐구한 주제에 대해 가르친 다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에서 사용합니다. 친구들끼리 논의한 내용을 잘 듣고 정리해 봅시다.		
1. 가사의 개념과 발생		
① 가사의 개념		
② 가사의 발생		
2. 가사의 형식과 종류		
① 가사의 형식		
② 가사의 종류		
3. 가사의 작자층		
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작자층		
② 조선 전기 가사와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		
4. 기행가사의 특징		
① 기행가사의 개념		
② 기행가사의 형식		
③ 기행가사의 종류		

전문가 집단에서 돌아온 모둠원들은 각자 자신이 전문가가 된 문제에 대해 다른 모둠원에게 설명을 해 준다. 그런데 이때의 설명은 전문가의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모집단 내에서도 각각의 전문가 집단에서 탐구한 내용을 가지고 모둠원끼리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맡은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탐구한 주제까지도 온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습자는 전문가 용지2에 작성한 가사 및 기행가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발표한다. 교사는 모집단의 발표를 들은 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협동학습 과정에서 잘못된 지식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내용을 정리하고 더 심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단,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실수는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도록 한다.⁷⁴⁾ 많은 가능성과 확신, 모순을 탐구하고 산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협동학습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므로 개방적인 탐구에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⑥ 교사의 보충 설명

교사는 학습자의 올바른 지식 형성을 위해 보충 자료를 준비한다. 탐구 주제를 해결하는 중간에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활용하고, 모집단 협동학습이 끝난 뒤 전체 학습을 대상으로 보충 설명을 실시한다. 교사가 가사 및 기행가사와 관련하여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사 및 기행가사에 대한 보충 자료
<p>◆ 참고자료1. 가사의 장르적 성격</p> <p>가사는 서정, 서사, 극이라는 삼분법으로 정리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가사의 장르는 시가로 보는 견해, 수필로 보는 견해, 교술로 보는 견해, 복합 장르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현재 조동일 교수의 견해인 제4장르인 교술로 보는 견해가 수용되고, 그 속에 서정가사, 서사가사, 극가사, 교술가사로 분류한다.</p> <p>교술에서 ‘교(敎)’란 알려주어서 주장한다는 뜻이고, ‘술(述)’은 어떤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한다는 뜻으로서 교술 장르에 속하는 것은 율문인 가사 이외에 산문인 기록, 수필, 전기, 제문(祭文), 서간 등을 포함한다.</p>

74) 박승희, 『시교육과 문학의 현재성』, 새미, 2003, 82쪽

◆ 참고자료2. 가사의 가창 여부

가사는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시가 갈래로서 개화기까지 명맥을 유지했으며, 두 마디씩 짝을 이루는 율문 구조만 갖추면 내용은 무엇이든 노래했던 양식이다. 따라서 그 길이도 자유롭게 길어질 수 있었으므로 장가(長歌)라고도 했다. 형식적 요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향유층도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이 점이 가사의 내용을 다채롭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했다. 초기의 가사 작품은 가창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노래의 제목에 '별곡'이라고 한 것이 많아 고려 때의 속요나 경기체가와 제목과 유사성을 보이는데, 고려 때의 관행으로 미루어보아 가창을 하는 전통에서 출발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초기의 가사 작품에 관한 기록에 가창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가창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음악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그러한 가창의 관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사 작품을 읽는 주된 방법은 선율 없이 흥얼거리는 단조로운 어조의 낭송이 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3.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가사 비교

	전기 가사	후기 가사
작자	사대부	다양한 작가(여인, 승려, 평민, 사대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층군+강호한정: 사미인곡, 면양정가 • 연주·층군: 속미인곡 • 강호한정: 상춘곡 단, 규원가는 사대부녀의 신세한탄을 담고 있어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가사 내용 계승 • 현실적인 내용: 남녀의 사랑, 기행가사, 설화·역사 소개, 사회변화 및 풍자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조의 상승 리듬 • 100행 이내의 짧은 가사 • 정격가사 • 4음보에서 벗어난 것이 드물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조의 수평 리듬 • 장편가사 • 변격가사 • 4음보에서 벗어난 것이 많음 → 가사의 뜻 전달, 산문화 영향

◆ 참고자료4. 시조와 가사의 비교

	시조	가사
차이점	단형: 3장 6구체	장형: 연속체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크게 발달 • 주로 사대부에 의해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 이념의 표출 • 4음보

◆ 참고자료5. 규방가사

규방가사는 주로 조선 후기에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규방에서 부녀자들에 의해 지어지고 전승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 유포와 전승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반드시 작자가 부녀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규방가사의 발생 초기에는 부녀자가 가져야 할 행실 등에 대한 설명,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심정 등을 그리고 있다. 규방가사는 대체로 소재가 단조로운 점이 특징인데, 이는 당대 여성들의 제한된 사회생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가사와 기행가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학습자의 협동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충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가 모두 동일한 학습 내용을 경험하게 되지만 직소Ⅱ 모형을 이용한 협동학습은 전문가 집단 모둠원이 준비한 내용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는지 발표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협동학습을 하는 학습자를 관찰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질문의 내용과 수준을 잘 살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모집단의 의견을 물은 뒤 적절한 설명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

또한 가사와 기행가사의 특징은 학습자가 개별 가사 작품을 학습할 때 기본이 되는 학습 요소로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설명하여 학습자가 찾은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⑦ 퀴즈 활동

직소Ⅱ 모형의 특징은 협동학습 후에 퀴즈 활동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탐구 주제에 대한 학습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실시되며, 개인 평가가 모둠 평가에 반영된다.

퀴즈 용지		모둠조	()조
학습 목표	가사 및 기행가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학년 ()반	이름()
<p>1. 조선 시대에 시와 노래로 향유되었던 시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p> <p>2. 가사는 4음보의 연속체 운문입니다. 4음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p> <p>3.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가사는 그 담당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 시기의 주요 가사 담당 계층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p> <p>4. 내방가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 종류일까요? ① 유배를 떠나는 길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가사이다. ② 강호에 은거하며 자연을 예찬한 가사이다. ③ 이념과 교훈을 널리 퍼기 위한 가사이다. ④ 일상생활 속 여성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가사이다.</p> <p>5. 기행가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창작한 가사 문학인가요? ▶</p> <p>6.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의 여러 종류 중 어느 것에 포함되나요? ① 유배기행가사 ② 관유기행가사 ③ 사행기행가사 ④ 표류기행가사</p>			

퀴즈는 가사와 기행가사에 대한 탐구 주제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한다. 퀴즈 활동의 점수는 각각의 학생마다 기본 점수를 세우고 과거 점수보다 올라갔다면 향상 점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개인별 향상 점수의 총합은 협동학습 집단에 반영된다. 직소Ⅱ 모형에서 퀴즈는 개인별 학습 평가인 동시에 모둠의 평가가 되므로 학습자는 협동학습에 더욱 집중하여 참여하게 된다. 점수 공개는 되도록 빨리하며, 학급 게시판에 붙여 공고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직소Ⅱ 모형을 활용한 가사와 기행가사에 대한 이해 학습을 실시해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문학 장르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교사의 주입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이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주제에 관해서 자료를 찾고,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어떤 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 자료를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습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것은 협동학습이 정보의 양으로 지식의 고저를 평가하려는 관점을 배제하고 ‘삶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협동학습 활동의 특성상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협동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활발한 의견 나눔이 이루어지므로 친구 간의 우정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정의적인 측면보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스스로 찾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2) 「관동별곡」 텍스트 이해와 감상

제7차 교육과정은 작품의 전수보다 학습자의 체험을 중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에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작품에 대한 주석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작품이 학습자의 삶에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관동별곡」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작품의 배경 및 분위기를 파악하고, 여정-건문-감상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며, 작품의 서술 방식과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활동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문학적 사고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함께하기 학습 모형을 통한 학습법을 적용

해 보고자 한다. 「관동별곡」 텍스트 이해에 관한 함께하기 학습 모형 지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함께하기 학습 모형 지도안: 「관동별곡」 텍스트 이해


대단원	5. 감동을 주는 언어		소단원	(1) 관동별곡	대상	10학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별곡」을 낭송하고 운율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관동별곡」을 읽고, 단어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 「관동별곡」의 여정, 건문, 감상을 구분할 수 있다. • 「관동별곡」의 표현상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단 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형태
		학생		교사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학습 주제와 학습 형태에 대한 안내 • 함께하기 학습 모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전체 학습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선체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행가사에 대한 배경지식 확인 • 「관동별곡」에 대한 배경지식 확인 			
지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학습을 위한 소집단 구성 • 협동학습을 위한 교실 구성 •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분석 및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학습 주제 확인 및 분석 •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협동 학습을 위한 주의 		함께하 기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해결을 위한 개별 학습 • 협동학습을 통한 과제 해결 • 정리하기 -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에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협동학습 활동 시 과제해결에 대하여 조언 • 함께하기 학습지에 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기록하도록 격려 		모형 활동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해결 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확인 및 정리 • 교사의 보충 설명 		전체 발표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 제출 				

계획단계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목표를 학생 모두가 함께 읽어보고, 교사는 「관동별곡」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리고 이 수업은 함께하기 학습 모형으로 진행되며, 평가는 함께하기 학습지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습 주제에 관련된 퀴즈 활동을 개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다. 진단단계에서는 기행가사와 「관동별곡」에 대한 배경지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도단계에서는 함께하기 학습을 위한 소집단을 구성하고,⁷⁵⁾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를 배부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해 협동학습 활동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모둠 대표는 협동학습의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기록자는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의 내용을 작성하며, 미술가는 표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릴 때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탐구 과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둠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지만 함께하기 학습지는 공동으로 작성하여 모둠별로 한 장씩만 제출하는 것이므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하겠다.

함께하기 학습은 협동학습이 주요 활동 방법으로 강조되지만 교사의 직접적인 시범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 시작 전 교사가 개입하여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관동별곡」 텍스트 이해를 위한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5) 협동학습 모둠조는 직소Ⅱ 모형처럼 이질 집단으로 편성한다. 집단 구성원의 과제 수행에 있어 기존의 토의 학습에서처럼 집단 구성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각자 전 학습 과정을 수행하면서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질 집단 보다는 이질 집단 편성이 효과적이다. 학습 능력의 수준이나 윤리적 배경, 사회 문화적 수준과 성별, 학업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이질적으로 구성해야 다양한 경험이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둠조원 모두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활동 전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		() 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별곡」을 낭송하고 운율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관동별곡」을 읽고, 단어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 「관동별곡」의 여정, 견문, 감상을 구분할 수 있다. • 「관동별곡」에 나타난 표현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p>활동1. 친구들과 함께 「관동별곡」을 낭송하면서 이 작품의 운율의 특징을 알아봅시다.(활동에 앞서 「관동별곡」의 낭송을 들어봅시다.)</p> <p>활동2. 친구들과 함께 「관동별곡」을 여러 번 읽고, 교과서 날개 부분에 제시된 낱말 뜻을 바탕으로 현대어로 바꾸어 봅시다.</p> <p>활동3.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여정, 견문, 감상을 나누어 보고, 그것을 표로 만들어 봅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성</th> <th style="width: 30%;">내용</th> <th style="width: 15%;">여정</th> <th style="width: 15%;">견문</th> <th style="width: 30%;">감상</th> </tr> </thead> <tbody> <tr> <td>서사</td> <td>관찰사 배명과 부임</td> <td></td> <td></td> <td></td> </tr> <tr> <td>본사1</td> <td>내금강 유람</td> <td></td> <td></td> <td></td> </tr> <tr> <td>본사2</td> <td>관동팔경 유람</td> <td></td> <td></td> <td></td> </tr> <tr> <td>결사</td> <td>작자의 풍류</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활동4. 앞에서 살펴본 「관동별곡」의 여정, 견문, 감상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여행 지도를 그리고, 전체적인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p> <p>활동5. 「관동별곡」은 은유와 상징 등 다양한 비유법의 사용으로 빼어난 문장의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동별곡」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찾아 보고, 여러분이 작가 정철이라면 어떤 비유법을 사용했을지 논의하여 모둠별로 감성 사진을 만들어 봅시다.</p>					구성	내용	여정	견문	감상	서사	관찰사 배명과 부임				본사1	내금강 유람				본사2	관동팔경 유람				결사	작자의 풍류			
구성	내용	여정	견문	감상																									
서사	관찰사 배명과 부임																												
본사1	내금강 유람																												
본사2	관동팔경 유람																												
결사	작자의 풍류																												

함께하기 학습지에서 제시한 활동은 주로 「관동별곡」의 텍스트 이해를 목표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낭송을 통해 「관동별곡」의 운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여정·견문·감상의 구분을 통해 작품의 배경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관동별곡」의 여정 중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모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하고 여행 지도를 만들어 정철의 여정을 좇아 작품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모듬 감성 사전을 통해 「관동별곡」의 표현상의 특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① **활동1: 친구들과 함께 「관동별곡」을 낭송하면서 이 작품의 운율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가사는 시가의 한 영역으로서 리듬을 가지고 있다. 리듬은 소리의 조직에 따라 청각적 효과를 주는 요소로서 이러한 음악성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생활 언어이다. 그러므로 가사의 음악성을 직접 체득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시적 감동을 심화·확장시키고, 언어와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낭송도 훌륭한 예술의 한 부분으로서 낭송을 잘 하면 그 작품이 돋보여 듣는 이를 감동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관동별곡」을 소리 내어 낭송함으로써 「관동별곡」이 갖고 있는 운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작품에 쓰인 고운 시어를 직접 느껴보도록 지도한다.

「관동별곡」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우선 읽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낭송 활동은 꼭 필요한 학습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동별곡」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낭송하는 경험은 학습자가 새로운 작품 세계에 눈 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교사는 가사의 내용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낭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활동1은 「관동별곡」의 낭송을 통해 작품의 운율과 표현상의 특징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함께하기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낭송 시작 전

직소Ⅱ 모형을 통한 가사의 이해 활동에서 가사의 형식이 어떠했는지 떠올리게 하면 가사의 장르적 특징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는 가사의 형식이 운율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전문가가 낭송한 「관동별곡」을 들려준다.

<그림-5> 「관동별곡」 낭송 듣기⁷⁶⁾



낭송을 들은 후에는 글자 그대로를 느낌 없이 읽을 때와 리듬을 타고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관동별곡」을 임의로 일정 부분 나누어 모듬원끼리 돌아가며 운율을 최대한 살려 교대 낭송한다. 교사는 모듬원들이 내용과 느낌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읊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관동별곡」이 가지고 있는 운율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학습자를 상기시킨다. 또한 모듬원들이 낭송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관동별곡」의 운율이 4음보의

76) <http://www.damyang.go.kr/new/gasa/sub08.htm> - 사이버 한국 가사 문학관

한국 가사 문학관은 담양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가사문학 자료를 비롯하여 송순의 면앙집과 정철의 송강집 및 친필 유묵 등 귀중한 유물이 있다. 문학관 가까이 있는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송강정, 면앙정 등은 호남 시단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 가사문학 창작의 밑바탕이 되어 면면히 그 전통을 오늘에 잇게 하고 있다. 사이버 한국 가사 문학관은 한국 가사 문학관을 소개하는 사이트로 가사 원문과 설명, 낭송 파일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형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리듬은 소리(음성), 반복성, 규칙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⁷⁷⁾ 시에서 같은 음성 구조를 가진 표현이 같은 자리에서 거듭 나타날 때 음악적인 효과를 느끼게 된다. 「관동별곡」은 ‘行壼裝장을 다 썰티고 石硯逕경의 막대 디퍼 / 百백川천洞동 겨티 두고 萬만瀑폭洞동 드러가니 / 銀은 ㄱ툃 무지게, 玉옥 ㄱ툃 龍룡의 초리 / 셋 돌며 썸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 다’에서 보듯이 ‘-고’, ‘-니’가 적당한 통사적 휴지를 두고 반복되어 율격적 예기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ㄱ툃’이 한 통사 내부에서 대우(對偶)로 반복되고, ‘들을 제는’과 ‘보니는’이 다시 대우(對偶)로 반복되어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⁷⁸⁾ 또한 시의 속성에는 음악성 이외에도 이미지, 비유, 상징, 반어, 역설 등 수사적 기법에 따라 운율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것은 노래하기의 표현 원리로 작용하므로 「관동별곡」에 사용된 직유, 은유, 대구와 같은 수사법도 리듬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자연히 여행에 대한 장면이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는 학습자가 그러한 묘사에서 느끼는 자연의 모습이 어떠한지 묻는다.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분위기에서는 읽는 이의 감정이 더 살아나서 낭송하는 소리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나 느낌 역시 가사의 운율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학습자가 4음보의 형식에만 한정하여 운율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사가 지니고 있는 3·4조 혹은 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운율에 의한

77) 박오근, 『주체적 학습자 탐구활동을 통한 시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55쪽

78) 이종묵, 「<관동별곡>을 읽는 재미」,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668쪽

형식적인 특징을 보다 쉽게 알기 위해서는 「관동별곡」이 시가 문학의 한 종류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의 운율성을 살려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동별곡」에 대한 시적 감동을 심화하고,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이해는 곧 학습자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관동별곡」의 낭송은 작품의 여정, 견문, 감상의 구분을 도와주는 첫 단계이고, 낭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가사의 운율감은 실제 기행가사 창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동별곡」의 낭송은 가사의 리듬이 주는 시적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활동2: 친구들과 함께 「관동별곡」을 읽고, 교과서 낱개 부분에 제시된 낱말 뜻을 바탕으로 현대어로 바꾸어 봅시다.**

활동2는 「관동별곡」을 읽고 문장의 뜻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대부분의 고전문학 수업은 교사가 작품을 읽고, 교사가 제시한 해석에 따라 학습자의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행된다.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을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적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가 제시한 감상 방법이 절대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학습한 내용을 외우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업 시간에 다룰 작품을 미리 읽어 보아야 한다. 현대문학은 수업시간이 아니어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고전문학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작품을 읽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는 것이다. 「관동별곡」과 같은 고전시가는 문장과 단어가 생소하고, 짧은

낱말에 담긴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학습자가 읽어보지 않으면 작품에 흥미를 갖기 어렵다.

어떤 수업이든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사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미리 과제를 내주어 「관동별곡」을 각자 여러 번 읽으면서 작품을 맛보도록 한다. 교과서 낱개 부분에 어려운 낱말에 대한 풀이가 조금씩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고, 그 밖에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낱말은 사전이나 인터넷, 참고서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처음 작품을 접할 때는 낱말의 뜻을 찾아가며 읽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러 번 읽을수록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어려운 어휘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비적 학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업 활동에 들어간다. 모둠원들은 「관동별곡」을 다시 한 번 정독하고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작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한다.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었으므로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단어나 문장은 무엇이었는지 체크하면서 「관동별곡」의 현대어 풀이를 해본다. 기본적으로 교과서 낱개 부분에 제시된 어휘의 뜻을 참고하고, 미리 작품을 읽으면서 조사해온 어휘의 뜻을 종합하여 풀이를 하도록 한다. 정확하고 매끄러운 문장으로 풀이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동별곡」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모둠원이 서로 도와주면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처음 읽을 때와는 달리 「관동별곡」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감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학습자의 「관동별곡」 현대어 풀이 예시] 79)

1조 : 표주박, 신동혁, 이동관, 유병용, 조기찬

정철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천석고황이 돼서 고향인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 관찰사의 직분을 얻게 되어 임금의 부르심을 받고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주, 여주, 원주, 춘천, 철원, 회양을 거쳐 만폭동 폭포에 이르렀습니다. 폭포의 아름다움에 빠진 그는 폭포수를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라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금강대 꼭대기엔 학이 있었는데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로 단장하고 정철을 반기는 모습은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았다는 서호의 옛 주인 임포처럼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진혈대에 오른 그는 금강산의 진면목을 이곳에서 보게 된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그는 높게 솟아오른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지조, 절개를 갖춘 신하들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개심대에서는 만이천봉이 모두 맑고 깨끗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곤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빼어내 인걸을 만들고 한양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비로봉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못 따라간다는 생각도 합니다. 개심대를 내려와 정철은 화룡소에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을 늙은 용에, 백성을 시든 풀에 비유하여 그들을 구하겠다는 선정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를 지나 불정대에 이르렀습니다. 불정대에서 그는 십이폭포의 모습을 마치 은하수 굽이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놓았다며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백이 이 폭포를 보면 여산 폭포가 이보다 낫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조 : 정용권, 유상유, 이기운, 임영훈, 김준형, 추한웅

바다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총석정인데 그곳에 오르니 옥황상제가 거쳐하던

79) 국어난장 - <http://cafe.daum.net/koreannanjang>

2003년 구리고등학교 김혜욱 선생님과 1학년 8반 학생들의 수업 내용이다.

백옥루의 기둥처럼 보이는 4개의 돌이 보였습니다. 그 돌은 마치 중국의 명장 공수가 만든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삼일포입니다. 그 곳 절벽에는 ‘영랑도남석행’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여 있고 주인공(정철)은 저 글을 쓴 사선은 어디로 갔을까?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의상대입니다. 정철이 의상대에 올라 한밤중에 해돋이를 기다리는데 해가 뜰 때 상서로운 구름이 용 모양으로 그를 떠받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구름이 있었습니다. 정철은 그것을 보고 간신배가 임금의 은총을 가릴까 염려스럽다는 이백의 시구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구름은 간신배를 뜻하는 것이고 해는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경포입니다. 신선이 타는 마차 우개지륜을 타고 철쭉꽃을 밟으며 경포로 내려왔습니다. 경포의 물결은 마치 다리고 또 다른 흰 비단 같았습니다. 그 위를 배 한 척을 타고 정자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동해 바다도 보였습니다. 정철은 이 모습을 보고 또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고 감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죽서루입니다. 죽서루 아래에 흐르는 오십천에는 태백산의 모습이 비치었고, 정철은 그것을 보고 임금님께도 보여 드리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정철의 임금님에 대한 연군지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망양정입니다. 고래가 물을 뿜듯이 거센 파도와 흰 거품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월출을 기다리며 망양정의 층계를 쫓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달이 뜨자 정철은 환한 달빛을 보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온 백성에게 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달은 임금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애민정신과 선정의 포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소나무 뿌리를 배고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서 신선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원래 신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신선이 북두칠성을 국자로 삼아 바닷물을 퍼 올려 술을 한 잔 권했습니다. 정철은 그 술을 먹자 날개가 생긴 것 같이 나른하고 포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신선주를 온 백성에게 마시게 한 뒤 나중에 또 한잔 하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철의 자연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과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 중에,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꿈을 깨어보니 달빛이

은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철의 백성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듯이.

현대어 풀이가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이 의문을 갖는 단어나 문장을 질문 받아 설명해 준다. 그리고 모둠원들의 현대어 풀이를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서로 다르게 해석한 부분은 어디인지 지적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협동학습이 끝나면 교사는 학급 전체를 상대로 현대어 풀이를 해준다. 이때 현대어 풀이는 강의식이 아닌 문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관동별곡」을 읽지 않고 학습에 들어갈 때에는 교사의 해석을 듣고 받아 적는데 바빠 교사의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활동2를 통해 모둠원끼리 나름대로 현대어 풀이를 해보았으므로 교사와 주고받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관동별곡」을 여러 번 읽고 협동학습을 통해 현대어로 풀이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교사 위주의 주석 풀이로 끝나는 고전시가 수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주석 풀이의 수업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어를 현대어로 풀이하지 못하면 작품에 나타난 작자의 상황이나 정서, 심리 등을 이해할 수 없고, 여정과 견문을 구분할 수도 없으며, 「관동별곡」의 뛰어난 문학적 미를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가 주인인 수업은 학습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없으므로 「관동별곡」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에 학습자를 주인으로 만들어 작품을 맛보는 방법을 알아가게 해야 한다. 물론 학습자는 「관동별곡」의 생소한 옛 말을 교사나 참고서처럼 모두 풀이하고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며, 협동학습 후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교사의 현대어 풀이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감상이 작품에 나타난 모든 것을 느끼는 것에 있다고 할 때, 학습자 스스로 작품을 읽고 풀이하는 과정은 본격적인 「관동별곡」의 텍스트 이해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친구들과 함께 현대어 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활동3: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여정, 견문, 감상을 나누어 보고, 그것을 표로 만들어 봅시다.**

활동3은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관동별곡」의 여정과 견문, 감상을 구분해 보는 활동이다. 기행가사는 여행 동기, 목적지까지의 노정과 목적지에서의 상세한 노정, 지은이의 감회나 작품의 창작 동기 묘사라는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구성 방식을 통해 작가의 경험적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가사문학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관동별곡」에 나타난 여정-견문-감상을 파악하는 것은 작가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며, 더 나아가 대상에 대한 미적 욕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학습자가 작품에 나타난 ‘여정-견문-감상’을 함께 토의하면서 스스로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조 자료를 제시한다.

여정·견문·감상 구분을 위한 보조 학습 자료
<p>㉠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되어, 은거지인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8백 리나 되는 강원도 ()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아아,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그지없다.</p> <p>경북궁 서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임금님께 하직을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 타고 흑수()로 돌아오니, 섬강[원주]는 어디인가? 치악산[원주]이 여기로구나.</p> <p>* 여정 : * 견문 : * 감상 :</p>

㉠ 소양강의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다는 말인가[임금 계신 한강으로 흘러들겠지]? 임금 곁을 떠나는 ()가 서울을 떠나매 [우국지정으로] (근심)[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동주(철원)의 밤을 겨우 새워[날이 새자마자] 북관정에 오르니, 임금 계신 서울의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옛날 태봉국 궁예왕의 대궐 터였던 곳에 ()가 지지쿠니,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이 곳이 옛날 한[漢]나라에 있던 '회양'이라는 이름과 공교롭게도 같구나. 중국의 회양 태수[太守]로 ()을 베풀었다는 급장유의 풍채를 이 곳 회양에서 다시 볼 것이 아닌가?

- * 여정 :
- * 견문 :
- * 감상 :

㉡ ()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 때, 화천[花川]의 시냇길이 ()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간편히 하고, ()에 지팡이를 짚고, 백천동을 지나서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같이 희고, 고운 용의 () 같은 폭포가 () 내뿜는 소리가 십리 밖까지 (), 멀리서 들을 때에는 우렛소리 [천둥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 * 여정 :
- * 견문 :
- * 감상 :

(후략)

위에 제시된 보조 자료는 「관동별곡」을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며, 중간 중간 괄호를 두어 학습자가 교과서 원문과 보조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학습 활동에 임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현대어 풀이는 작품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지만 ‘가사’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형식의미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관동별곡」의 원문과 비교하면서 앞서 실시한 현대어 풀이 활동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어려운 낱말을 이해하고, 여정-견문-감상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활동을 할 때 교사는 여정은 여행길을 의미하고, 견문은 그곳에서 본 사물, 자연 등을 의미하며, 감상은 여정에서 본 견문에 대한 느낌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준다. 학습자가 낭송듣기와 직접 낭송, 현대어 풀이 해보기를 통해 「관동별곡」의 전체 내용을 훑어보기는 했지만 생소한 어휘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직접 보조 자료 몇 단락을 이용하여 시범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시범 보이기는 전문가가 학습 과제의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으로, 학습자는 교사의 시범을 보면서 어떻게 함께 하기 학습 활동을 처리해 나갈지 고민하고, 모둠원들과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직접 시범 보이기에서 교사는 먼저 보조 학습 자료에 나온 해석에 대한 문제를 채워가면서 정철이 어디를 경유하며 여행했는지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여정을 나열하면서 나름대로 구성을 나뉘보면 「관동별곡」의 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가 여정, 견문, 감상을 찾는 과정을 보면서 학습자는 여정과 견문의 차이가 무엇이고, 감상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게 되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범 보이기 과정이 끝나면 함께하기 학습 활동에 들어가 학생들의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필요에 따라 도움을 제공한다. 시범 보이기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교사가 학습 책임을 지고 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생이 학습 과제에 조금씩 숙련되면 교사의 책임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이양한다.⁸⁰⁾ 학습자들이 학습 책임을 갖게 되면 모둠원들은 보조 자료를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작성하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답이 무엇인지 찾도록 한다. 이전 활동을 통해 어휘 해석을 하기는 했지만 「관동별곡」은 어렵고 생소한 낱말이 많이 나오므로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

80) 박승희, 『시교육과 문학의 현재성』, 새미, 2003, 84쪽

울적이라 하겠다.

모든 협동학습이 그러하듯이 함께하기 학습에서 학습자간의 상호 관계 뿐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의 상호 관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협동학습에 참여하고, 교사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개인의 인지적 작용과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학습의 주체가 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관동별곡」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조 자료에 대한 과제 해결을 마치면 「관동별곡」 전체 여정을 정리하여 함께하기 학습지에 견문, 여정, 감상에 대한 표를 만들게 한다.

[여정-견문-감상 표 만들기 예시]

구성	내용	여정	견문	감상
서사	관찰사 배명과 부임	창평-한양(경복궁)- 평구(양주)-혹수(여주)-치악(원주)	견문 생략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소양강(춘천)-동주(철원)-북관정-회양	소양강, 궁예왕대궐터, 오작	연군지정, 우국지정, 회고의 정, 선정에의 포부
본사1	내금강 유람	만폭동	폭포	폭포의 장관을 경탄함
		금강대	학	고사를 이용하여 신선이 된 듯한 느낌 표현
		정양사 진혈대	소향로봉, 대향로봉, 망고대, 혈망봉	대상물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충절을 다짐
		개심대	중향성, 만이천봉, 비로봉	훌륭한 인재를 갈망하고 공자의 경지를 흠모
		화룡소	화룡소에 감도는 물	선정을 다짐
		마하연-묘길상-안문재-불정대	십이폭포	중국 여산의 폭포보다 더 나은

구성	내용	여정	견문	감상
본사2	관동팔경 유람	산영루-해금강	시냇물과 새, 바다, 해당화, 갈매기	아쉬움과 상쾌함, 취선으 로서의 풍류
		금란굴-총석정	사선봉	사선봉의 신묘한 모습에 경탄
		삼일포	단서	사선에 대한 동경
		의상대	일출	일출의 황홀함에 취함
		현산-경포대	호수, 바다	경호의 장관
		강릉	정문	강릉의 미풍양속
		죽서루	오십천의 흘러 내 리는 물	연군의 정, 그윽한 회포 와 객수
망양정	과도	과도의 장관을 통해 심리 적 혼돈과 갈등을 드러냄		
결사	작자의 풍류	망양정	월출	애민정신, 성정에의 포부, 이백·사선을 만나 풍류 를 즐기고 싶은 마음
		망양정	꿈에서 만난 신선	지금까지의 갈등 해소

「관동별곡」의 여정과 견문, 감상에 대한 이해는 기행가사가 가지고 있는 견문과 지식의 확대 측면에서 유용한 학습이다. 작가의 강렬한 여행 체험은 구체적인 지리나 명승의 묘사, 진솔한 현실의 표현으로 구체화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작품의 여정을 파악하는 일은 「관동별곡」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경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하나의 앎을 형성하게 된다.

협동학습 활동이 끝나면 교사는 모둠원끼리 작성한 ‘여정-견문-감상’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보충 자료를 통해 모둠원끼리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보충 자료는 「관동별곡」의 여정에 따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을 것이다. 여정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제공한다면 학습자가 「관동별곡」의 자연 경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PPT 화면을 이

용하여 보충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관동별곡」의 여정-견문-감상에 대해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동별곡 여정-견문-감상 위한 교사 보충 자료]

사진			
여정	만폭동	금강대	총석정
견문	폭포	학	사선봉
감상	폭포의 장관 경탄	신선이 된 듯한 느낌	사선봉의 신묘한 모습

교사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구성된 「관동별곡」을 PPT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작가가 떠난 여정을 흥미롭게 설명한다.⁸¹⁾ 이러한 교사 보조 자료는 학습자가 이 작품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주어 다음 학습 활동으로 의욕적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기대한다. 이것은 「관동별곡」의 여정, 견문, 감상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고르는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 여행 지도를 만들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1) 유소현, 『매체를 활용한 고전문학 교수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0, 75쪽
 <한국의 美- 신 관동별곡>과 같은 비디오 자료를 함께 감상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자연미를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자료는 KBS 영상사업단(1999)에서 50분 정도로 제작되어 있는데 조금 지루한 면이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편집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막연하게 배운 관동팔경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 관동별곡 (<http://user.chollian.net/~lion386/main.html>)과 같은 사이트는 만폭동, 해금강, 총석정, 십이폭포, 망양정 등의 여정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동영상을 프로젝션 TV로 보여주면 학생들이 정철의 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행의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④ 활동4: 앞에서 살펴본 「관동별곡」의 여정, 견문, 감상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여행 지도를 그리고, 전체적인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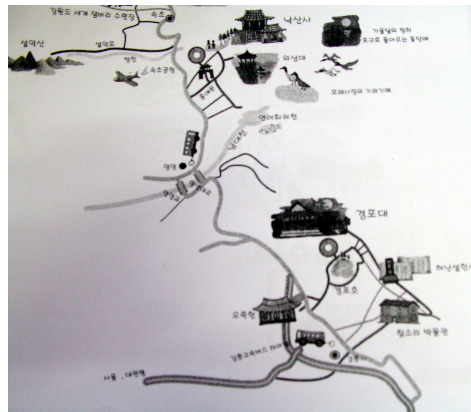
활동4는 「관동별곡」의 여정, 견문, 감상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 직접 여행 지도를 만들고, 「관동별곡」의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관동별곡」속 여정을 생각하면서 정철과 함께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여행한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모두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확장시킬 수 있다. 문학 제재를 시각화하는 이러한 과제를 통해 학습자는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고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관점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양성 해결책을 찾아내고, 융통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여행지도 만들기 예시]82)

(가) 정철의 부임 여정 및 관동팔경



(나) 관동팔경과 현재의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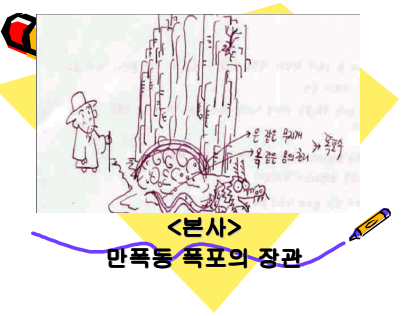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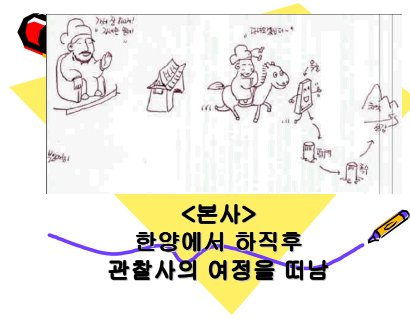


여행 지도를 만들 때 교사는 단순히 여정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

82) 강경래 국어공부방 - <http://user.chollian.net/~lion386/index.html>

치를 표현한 작가의 표현미를 고려해 고르도록 한다. 「관동별곡」을 현대어로 풀이한 자료를 ‘여정-전문-감상’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이미 제시했으므로 고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미를 고려해 여정을 선택하는 것은 이후 비유적인 표현 방법이나 작가의 의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 지도를 만든 모듬원은 지역 표시 옆에 그곳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 본다. 정철과 함께 여행 중이라 가정하고 대화 형식으로 상황을 구성하거나 시적 표현을 이용하여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나)의 여행지도와 같이 현재 가볼 수 있는 명소를 표시하여 훗날 관동 팔경 기행에 훌륭한 안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여정-전문-감상 그림 그리기 예시] 83)



83) 즐거운 학교 - <http://www.njoyschool.net/>
국어난장 - <http://cafe.daum.net/koreannanjang> 재인용

간단한 그림을 통해 내용을 제시하는 활동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친근한 관점에서 작품을 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핵심적 상황을 골라내어 표현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가 있다. 모듬 역할을 나눌 때 ‘미술가’ 역할을 하는 모듬원의 주도 아래 모든 모듬원들이 장면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미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으며, 「관동별곡」의 여정과 상황만 뚜렷하게 드러나면 된다. 문학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꼭 직접 글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림은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해당 여정과 견문, 감상에 대한 것을 소재로 그림을 그릴 때 「관동별곡」에서 느낀 문학적 감흥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국어과에서 문학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딱딱하게만 여겨졌던 고전시가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학습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활동5: 「관동별곡」은 은유와 상징 등 다양한 비유법의 사용으로 빼어난 문장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동별곡」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찾아보고, 여러분이 작가 정철이라면 어떤 비유법을 사용했을지 논의하여 모듬별로 감성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활동5는 「관동별곡」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언어에 대한 민감성과 상상력을 조성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활동은 정철

이 ‘과도’에 대해 ‘성난 고래’라고 하였듯이 낱말을 사전적 의미가 아닌 은유와 상징의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으로 학습자 나름대로 보조 관념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기행가사의 형태상 특징인 율문 표현과 수사법 등을 작품의 구체적인 모습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관동별곡」의 언어미를 통해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학습자가 실제 글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학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할 때 교사는 함축적으로 형상화된 시어에 담긴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의미를 ‘나’라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둠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언어적 특징을 발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관동별곡」에 대한 폭넓은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둠별 감성 사전 만들기 예시]

원관념	정철의 표현방법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근심	白鬚髮	한숨 두숨 한숨
폭포소리	우레/눈	평평 튀어 오르는 팝콘 송이
산봉우리	芙蓉蓉/白鬚玉	뒤집힌 우산/ 흰 국화
호수수면	氷鏡紈	투명 셀로판지를 펼치고 또 펼쳐
과도	노흔 고래	바다가 두른 스카프
물보라	白鬚雪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꽃씨
달	백년화	하늘이 보내는 미소

이와 같은 모둠별 감성 사전 만들기는 「관동별곡」의 뛰어난 언어 감각을 맛보게 하며, 그것을 인지적 모델로 삼아 학습자들이 새로운 표현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문학 언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인지 작용과 사회 구성원간의 상

호 작용을 만든다. 그리고 협동학습을 통해서 서로가 찾은 표현 방법에 대한 의미를 토의하고, 질문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으면서 절충의 기회를 얻는다. 더불어 하나의 문학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 어휘를 선택하고, 내용을 구성하는지 느끼게 하여 창작 활동을 할 때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동별곡」 텍스트를 이해하는 활동은 이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는데 기초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이해를 통해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작품에 담긴 세계관과 주제를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해와 감상 활동을 통해 작가가 「관동별곡」에서 그랬듯이 우리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을 주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를 내면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교사 주도나 개별 학습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학습 모형을 이용하여 협동학습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것은 학습자가 협동 집단 내 다른 모둠원들과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고전문학이 우리 생활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과 정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협동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 최고의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강의식 수업도 필요하고, 개별학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과 고전에 대한 무관심을 생각할 때 협동학습을 통한 수업이 학습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말로 된 「관동별곡」은 미적·정서적 체험을 훨씬 더 깊고 감칠맛나게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어를 무리 없이 사용하여 독특한 표

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정서를 담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철의 뛰어난 언어 감각은 우리말 표현에 담긴 사고와 정서를 한층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려 예술적 미감을 더했다. 이점이 바로 정철이 위대한 시인으로서의 자질이자 시대를 뛰어 넘어 감동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 보편적 공감의 세계를 열어놓았다.


3) 「관동별곡」의 해석적 접근

제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의 의미는 해석자로서의 학습자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동별곡」에 대한 해석도 작품 자체의 이해를 넘어 작가, 독자, 당대의 삶을 고려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 작품에는 작가의 세계관이 수용되어 있고, 작가에 의해 미적 형식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관동별곡」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적 접근의 수업은 교사의 주도에 의해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의 해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가사 문학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협동학습을 통한 작품 읽기를 시도하여 학습자가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와 미적 효과를 스스로 찾아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혼자 작품을 읽으며 「관동별곡」을 수용하는 것도 유의미한 활동이겠지만 협동학습 활동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읽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협동학습은 유익한 활동이다.

「관동별곡」에 반영된 현실과 작가의 인식태도, 미적 체험, 주제 등을 파악할 때 활용 가능한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		() 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별곡」에 나타난 작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 「관동별곡」에 나타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 토론 활동을 통해 「관동별곡」의 주제를 찾을 수 있다. 	
<p>활동1.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인 만큼 자연을 예찬하기도 하고,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를 통해 「관동별곡」에 나타난 작가의 심리를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의 경치를 바라보며 나타난 심리 상태를 써보자. • 바다의 경치를 바라보며 나타난 심리 상태를 써보자. • 산과 바다에서 심리상태가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인간의 심리적 양면성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을 찾아 설명해보자. <p>활동2. 「관동별곡」은 우리나라의 절경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한 기행가사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활동을 통해 「관동별곡」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뽑고, 각 구절에 대한 소감을 써보도록 합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구절을 찾아보자. • 산봉우리들의 변화무쌍하고 웅장한 모습을 묘사한 구절을 찾아보자. • 산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자. • 산의 정기가 맑고 깨끗함을 표현한 구절을 찾아보자. • 충석정에서 바라본 사선봉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보자. • 동해 일출의 장관을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자. • 경포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구절을 찾아보자. • 파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자. 		

활동3.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관동별곡」의 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고, 「관동별곡」을 학습하면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을지 여행의 의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는 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인식 태도와 학습자의 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탐구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학습자가 모듬원끼리의 토의·토론을 통해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① 활동1. 「관동별곡」은 기행가사인 만큼 자연을 예찬하기도 하고,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를 통해 「관동별곡」에 나타난 작가의 심리를 논의해 보기로 합니다.

활동1은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된 자연 경관에서 작가의 심리가 「관동별곡」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피는 활동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의미를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자연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도(道)이자 영원불변의 가치로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은 단순한 소재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의미를 규범화하고, 제시하는 근원적인 가치를 지닌다. 자연은 인류의 스승이고, 만고불변의 가치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인류의 정신적인 귀의처로 인식해 온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때도 있고, 자신의 관념을 투영시켜 바라볼 때도 있다. 학습자는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과 태도를 모듬원과 함께 찾아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산의 경치를 바라보며 나타난 심리 상태를 써보자.
- 바다의 경치를 바라보며 나타난 심리 상태를 써보자.
- 산과 바다에서 심리상태가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인간의 심리적 양면성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을 찾아 설명해보자.

교사는 미리 제시한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 산이나 폭포, 바다 경치를 그려낸 비유나 묘사에서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색채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공통점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것이 인간의 정신 상태로 유추해 보면 어떤 특성과 관계가 깊은지 함께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작품 속 화자와 작가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여 산과 바다에서 나타난 심리 상태가 이중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를 찾아보도록 한다. 또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을 찾되 갈등이 무엇을 통해 해결되었는지를 먼저 간추려 본다. 함께하기 학습을 통한 협동학습이 실시되므로 모둠 대표가 이야기의 방향을 정리하되 모든 모둠원들이 자유롭게 작자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 보도록 한다.

벼슬을 내놓고 은거 생활을 하고 있던 정철은 관찰사로 임명 받은 것을 무척 기뻐하고 있다. 이런 기쁨은 그가 여행하면서 자연을 보며 고조되는 흥취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자하는 의욕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작자는 자연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관찰사가 되어서 떠나는 것에 아쉬움은 없어 보이며,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리이기에 ‘관찰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때 이수의 옥사에⁸⁴⁾ 대해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작가가 느

84) 선조 11년 5월, 진도 군수 이수의 뇌물사건으로 옥사(獄事)가 벌어졌는데, 송강이 이수를 두둔하다가 동인의 홍가신, 이발 등의 탄핵을 받아 면직되어 담양 창평에 내려가 3년 동안 있었다. 본문 첫 구의 ‘竹窟林님의 누웠더니’는 이때의 생활을 두고 한 말이다.

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정철이 창평에 있었던 것은 스스로 선택한 귀거래가 아님을 밝히고, 자연을 즐기면서도 현실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학습자에게 작가 정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작가가 겪은 일들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고민해보도록 한다.

정철은 산의 경치를 볼 때와 바다 경치를 볼 때 각기 다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營營中들이 無무事스호고 時時節절이 三삼月월인 제
 花화川천 시내길히 楓풍岳악으로 버더 있다
 行행裝장을 다 썰티고 石석逕徑의 막대 디퍼
 百백川천洞동 겨티 두고 萬만瀑폭洞동 드러가니
 銀은 ㄱ튼 무지개, 玉옥 ㄱ튼 龍룡의 초리
 셋돌며 썸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小小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正陽양寺스 眞眞歇혈臺디 고터 올라 안즌마리
 廬녀山산 眞眞面면目목이 여괴야 다 뵈는다
 어와 造造化化翁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蓉을 고잡는 듯 白백玉옥을 못것는 듯
 東동溟명을 박츠는 닻 北북極극을 괴왓는 듯

영중이 무사하다는 것은 관내에 별다른 일이 없다는 것으로 작자가 선정(善政)을 베풀고 있음을 과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은, 옥, 눈, 연꽃, 백옥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작자는 산을 순백(純白)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폭포를 묘사하는 차원을 넘어 화자의 마음과 연관된

것으로 자연 대상의 색깔 못지않게 화자의 마음도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하얀색을 통해 순수성과 결백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산이나 폭포를 바라보는 작자의 심리적 인상이 순수하며, 자연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반응이 고결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사는 모둠원들이 작자의 심리 상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색채 이미지에 주목하여 심리 상태를 파악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한다.

仙槎사를 띄워 내어 斗牛우로 向향호살가
 仙선人인을 츠즈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天텨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긱득 노한 고래, 뉘라셔 놀내판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작자는 신선이 탄다는 뗏목을 타고 북두성과 견우성을 향해서 가야할지, 사전을 찾으러 단혈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속세로 돌아가기 싫어 차라리 신선이 되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심리적 방황이 드러나고 있다. 성난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파도의 이미지에서 심리적인 혼돈 상태와 갈등이 강하게 나타나며, 거칠게 튀어 오르는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에서도 혼돈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보면 산에서 보여주었던 화자의 고결한 모습과는 달리 거친 모습을 보여주어 자신의 고정된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인간 본연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능적 욕망이 충동질하는 모습을 바다와 파도의 이미지를 통해 적절하게 드러내면서 밤이 되면서 끝맺음을 향해 나아간다.

밤이 되어 월출을 보면서 선계를 동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모습

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 주려 하는 화자의 마음에서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히에 고로 논화, 億억萬만 蒼蒼生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혼 잔 ㅎ쟈고야.’ 라는 표현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다. 취중이지만 호탕한 기개로 북두성을 기울여 사해 만백성을 다 취하게 하겠다는 자신감에서 좋은 것을 백성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꿈속에서 선계를 체험하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해결 방식의 하나로 선택한 것이다.

학습자는 여기에서 선적 분위기는 유가적 이념과 상치되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교사는 이를 대비하여 「관동별곡」의 신선 관념은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노니는 신선적 풍류를 그려내고 있되, 그것이 애국우군(愛國憂君)의 정서와 자연스럽게 합쳐짐으로써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충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신선 관념은 도교적 종교 사상과는 다른 강호자연 안에서 꿈꾸는 시인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무한하게 뻗어 나가게 해주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⁸⁵⁾

이렇게 자연에 드러난 화자의 심정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풍경 묘사를 넘어서 심리 상태를 드러낸 표현을 통해 인간 심리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체험을 자신의 다양한 일상과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감상의 의미는 보다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이해한대로 작품을 설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나아가야 할 일정한 방향성만 제시하고, 가능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찾은 답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살피도록 한다. 이 활동에 관련된 보충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5)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27쪽~28쪽

[교사 보충 자료] '관동별곡'의 갈등의 해결 방식

흔히 '관동별곡'의 우수성을 '가면과 진실'이라는 인간의 양면적 심리를 표현한데서 찾곤 한다. 여기서 '가면'은 관찰사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가지게 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얼굴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대사회적(對社會的) 가면(마스크)이다. 이러한 가면을 심리학적 용어로 페르소나(Persona)'라고 한다. 이에 반해 '진실'이란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얼굴을 말한다. 이는 술을 마시고 이백과 사선을 동경하는 등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내면적·심리적 태도를 아니마(Anima)라고 한다. '관동별곡'에는 이러한 공인으로서의 인간과 천연의 인간의 심적 갈등이 잘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신선풍은 우리 고전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주목할 점은 「관동별곡」에서 이 신선풍이 현실을 떠난 은자의 흥취로서가 아니라 임금의 신하이자 백성들에게는 목민관인 선비로서의 흥취와 포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송강은 신선이 되어서도 세상을 버리고 하늘로 날아오르기보다는 땅 위에 남아 있는 억조창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망을 놓지 않고 있다. 신선풍을 동경하면서도 목민관으로서의, 관료로서의, 선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잠깐 든 잠에서 깨어나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달을 느끼는데서 그 달빛은 온 세상에 덕화를 비추는 이상적인 임금의 은덕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위에 제시된 교사 보충 자료는 「관동별곡」이 산을 오를 때의 심정과 내려와서 바다를 바라 볼 때의 심정을 인간의 양면적 심리를 통해 해석한 것으로 공인으로서의 정철과 한 인간으로서의 정철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다. 학습자에게 이러한 보충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써 작가 심리의 다양한 해석의 시도를 보이도록 한다.

고전 시가의 감상과 수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작품이 향유되었던 당시와 감상하는 현재와의 시간적 거리성에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흐름이 아니라 '미의식의 차이' 때문에 감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수용자

가 작품으로 접근을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미의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측면에서 공감의 형성을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우선은 우리가 그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수용하려고 먼저 시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시대를 향유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감수성을 체험한 다음 다시 현재로 돌아와 현재적 미의식 세계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입식에 의한 수업 전개로는 작품을 통한 상상력 신장이나 심미적 정서 체험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활동은 작품의 수용자인 학생 스스로가 논리적 필연성에 입각한 체계적인 과정을 설정하여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연자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활동2. 「관동별곡」은 우리나라의 절경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한 기행가사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활동을 통해 「관동별곡」에서 감동적이거나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뽑고, 각 구절에 대한 소감을 써보도록 합시다.

「관동별곡」에서 감동적이거나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뽑고 각 구절에 대한 소감을 쓰도록 하는 활동이다. 설문을 통해 인기 있는 구절의 순위를 매기고, 그 구절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서로의 감상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제재가 수용자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는 양상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 역시 감성사전 만들기처럼 문학 언어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과제이지만 구절 혹은 문장 단위로 확대되며,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해석적 접근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활동이다. 아름답거나 좋거나 감동적이라고 느끼는 원인을 생각해 봄으로써 문학적 아름다움

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이의 결과로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 능력이 향상되리라 본다. 하지만 학습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 구절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덧붙여 감동을 주는 구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한 구절을 찾아보자.
- 산봉우리들의 변화무쌍하고 웅장한 모습을 묘사한 구절을 찾아보자.
- 산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자.
- 산의 정기가 맑고 깨끗함을 표현한 구절을 찾아보자.
- 총석정에서 바라본 사선봉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보자.
- 동해 일출의 장관을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자.
- 경포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구절을 찾아보자.
- 과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자.

교사는 이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동별곡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가사의 장르적 특징 중 하나는 사물의 묘사로서 가사 작품에 나타나는 묘사는 단순한 객관적인 묘사에 그치지 않고 작자의 사상과 정서가 함께 녹아있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홍만중은 「관동별곡」에 대해 ‘말로 표현하는데 기발함이 있고, 사물을 묘사하는데 절묘함이 있다(造語之奇 狀物之妙: 旬五志)’고 하였다. 이것은 「관동별곡」의 묘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감동적인 구절 찾기 예시]

♪ 내가 생각하는 감동적인 구절 ♪	♬ 감동을 받은 이유는? ♬
<p>銀은 ㄱ톤 무지개, 玉옥 ㄱ톤 龍룡의 초리 셋돌며 뿜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p>	<p>참신한 비유와 함께 서술적 표현 어휘들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시적 이미지들로 표현의 사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서 대상에 투사된 작가의 감성을 탁월하게 형상화하는 것이다.</p>
<p>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갯는 듯, 白백玉옥을 못것는 듯 東동溟명을 박츠는 닻, 北북極극을 괴왔는 듯</p>	<p>진혈대에서 금강산 만이천봉의 기묘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정철의 표정이 그대로 보이는 듯하다. 산봉우리의 다양함과 아름다움, 기운참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p>
<p>뭍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뭍디 마나 더 기운 호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돌고자 形形容용도 그지업고 體테勢세도 하도 할사</p>	<p>개심대에서 만이천봉의 맑은 산의 정기를 보며 인재를 갈망하고, 기묘한 모습에 감탄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뛰어난 묘사 실력을 엿볼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p>
<p>千千尋심絶絶壁벽을 半반空공에 세여 두고 銀은河하水슈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어 실ㄱ터 플터이서 뵈ㄱ터 거러시니 圖도經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p>	<p>금강대에서 본 학과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모습을 그려놓은 구절이다. 여러 번 읽고서 눈을 감으면 풍겨나오는 화끈한 멋의 향기가 물씬 느껴진다. 산수를 눈앞에 놓고 그대로 그려나가고 있으며, 생생한 활력이 힘있게 넘쳐 흘러 당당함까지 느낄 수 있다.</p>
<p>十십리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長당松송 울흔 소개 슬크장 퍼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p>	<p>현산의 철쭉을 보며 경포에 이른 정철은 경포호의 잔잔하고 맑은 물을 얼음같이 희고 깨끗한 얇은 비단 같다고 하였고, 모래알까지 헤아릴 수 있겠다며 찬양하고 있다. 조용한 경포의 기상을 아름다운 우리 옛 일상어를 통해 묘사하여 「관동별곡」에서 사용한 다른 어떤 비유보다 마음에 들었다.</p>

祥雲이 집피는 동, 六龍이 바되는 동 바다히 써날 계는 萬國이 일위더니 天堦의 티쓰니 纓髮을 헤리로다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세상이 흔들린 다고 표현해 이글거리는 태양의 모습 을 머리 속에서 상상하게 만든다.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갯둑 노한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바다와 하늘의 수평선을 바다 밖 하 늘로 표현한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고래로 비유된 파도 를 바라보며 화자의 심리적 혼돈과 갈등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주 절묘하 다고 생각한다.

감동적인 구절을 찾아 각 구절에 대한 소감을 쓰는 활동은 학습자의 「관동별곡」에 대한 느낌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작품 속 화자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어의 풀이가 아니라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학습자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드러난 삶의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자 스스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보다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감동적인 구절 옆에 묘사에 대한 평이나 느낌, 화자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감상 수준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

정철은 그가 활동하던 당대의 문학 양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탁월한 서정의 세계를 열어 놓았다. 그가 열어 놓은 서정의 세계는 감각적인 시선을 통해 활달하고 호방한 정서로, 때로는 섬세하고 애절한 정서로 표출되었다. 그런가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시원스럽게 날아올라 탈속의 경지를 분방하게 노래하기도 한다.

[교사 보충 자료: ‘관동별곡 평설’-서포만필]

송강의 관동별곡, 전후사미인가는 우리나라의 이소(중국 초나라의 시인 굴원이 참소를 받은 슬픔을 읊은 사부이나 그것은 문자)로써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악인(樂人:음악인)들이 구전하여 서로 이어받아 전해지고 혹은 한글로 써서 전해질 뿐이다. 어떤 사람이 칠언시로써 관동별곡을 번역하였지만 아름답게 될 수 없었다. 혹은 택당(조선 인조 때 학자 이식)이 소시(少時)에 작품이라고 하지만 옳지 않다.

구마라습(중국 진나라의 승려, 원래는 천축인 인데 중국에 건너와서 금강경, 범화경 등 많은 불서를 번역함)이 말하기를 “천축인(天竺人:인도 사람)의 풍속은 가장 문채(文彩:아름다운 광채)를 숭상하여 그들의 찬불사(讚佛詞)는 극히 아름답다. 이제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단지 그 뜻만 알 수 있지, 그 말씨는 알 수 없다.”하였다. 이치가 정녕 그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요, 말의 가락이 있는 것이 시가문부(詩歌文賦)이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에 따라 가락을 맞춘다면 다같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 있는 것은 유독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아무 멋도 맛도 뜻도 모르고 그저 기계적으로 재간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 길는 아낙네들이 에야디야 하며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일반 서민들이 서로 읊조리는 것이 비록 속되고 촌스럽다 하더라도) 그 진가(眞價)를 따진다면, 정녕 학사(學士) 대부(大夫)들의 이른바 시부(詩賦)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 없다. 하물며 이 삼별곡(三別曲)은 천기(天機:천부의 성질)의 자발(自發:외부로부터의 자극 없이 자연히 발동함)함이 있고, 이속(夷俗:오랑태의 통속)의 비리(鄙俚:속됨)함도 없으니, 자고로 좌해(左海:우리나라)의 진문장(眞文章)은 이 세 편뿐이다. 그러나 세편을 가지고 논한다면, 후미인곡이 가장 높고, 관동별곡과 전미인곡은 그래도 한자어를 빌려서 수식을 했다.

「관동별곡」이 지어진 16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록 문자는 한자였다. 공적인 기록은 물론 문학적 창조물도 대부분 한자와 한문으로 이루어졌다. 송강은 이 시대의 높은 교육을 받은 계층의 일원으로 수많은 한시문을 남겼지만 그것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말로 된, 읊조리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대로의 우리말로 된 작품을 함께 지어 남겼다. 그것은 한문자의 위세가 당당하던 당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은 명작이 되었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이러한 설명을 덧붙여 「관동별곡」이 왜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칭송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③ **활동3: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관동별곡」의 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고, 「관동별곡」을 학습하면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는지 여행의 의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작가가 경험의 세계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그 무엇, 즉 작가가 작품 속에서 담고자 하는 중심 사상, 혹은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에 있어서 마지막은 ‘전체적인 텍스트 의미의 재구성’으로 주제를 구성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해, 「관동별곡」의 주제를 파악하는 활동은 학습자의 시각에서 「관동별곡」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가 주석 풀이에 의한 학습을 끝내고 일방적으로 주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협동학습 과정을 통해 작가가 여행한 의미를 생각하고, 화자의 심정을 추측하여 주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같은 작품을 읽고도 감상하는 방법과 자세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주제 또한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

여 하나의 주제를 도출하고 함께하기 학습 과제지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는 「관동별곡」의 주제에 대해 ‘금강산에 대한 예찬’, ‘관동지방의 유람과 연군의 정’,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같은 대상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인상적인 감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수용해야 할 내용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이렇게 의견 나눔을 통한 협동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는 다양한 주장과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신에게 부족한 정보를 응집성 있게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고, 협동학습 구성원의 감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가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협동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관동별곡」을 읽은 다음 여행에 대한 의미를 서로 이야기해 보는 활동은 기행가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요소인 여행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 작품이 학습자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학습자가 여행을 떠난다면 무엇을 보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을지 「관동별곡」을 통해 가정해 보는 활동은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행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이지만 정철 당대의 생활 여건으로 볼 때 조선 시대의 여행은 지금보다 더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정철은 한 지역을 지나면서 지리적 특성이나 지명 등의 고사(故事)를 매개로 연상 작용을 보인다. 대상의 현재적 양상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군우국(戀君憂國)과 신선류의 풍류라는 주제 구현과도 관련이 있다.

정철이 떠나는 여행은 관직을 부여 받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임금에 대한 은혜와 백성을 생각하는 근심어린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관동별곡」에 임금이 대한 충성심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소양강의 흐름을 보면서 그것이 임금이 계신 수도를 감싸 흐르는 한강으로 들어감을 느끼고, 철원 하늘 아래에서도 삼각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보인다고 느끼는 것은 임금을 향한 그칠 줄 모르는 연모의 정 때문일 것이다. 또한 궁예왕 대 궐터에서 자신을 중국의 급장유에 비유하여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고 목민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다짐하고 있으며, 금강산의 맑은 기운을 보며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는 것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정철의 진정이 드러난다.

이처럼 작가가 한양을 떠나 금강산에 오르기까지의 심정은 산의 변화무쌍한 모습과 깨끗한 기운만큼이나 힘차고 씩씩하다. 그러나 산을 내려와 동해로 향하는 발걸음에서는 마음이 달라져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관찰사라는 관리로서의 여정과 영원한 세계를 갈구하는 본능적 욕망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정철은 여행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고 즐기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바다로 발걸음을 한걸음씩 옮길 때마다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고심한 흔적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인간은 자연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거나 의미를 부여한다. 여행은 자연으로 대표되는 건문의 대상을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행을 통해 어떤 의식이나 가치관을 교류하게 되는 것이다. 「관동별곡」에는 이러한 여행의 특징이 두루 나타난다. 정철은 여행에서 체험한 경험

과 여행에서 만난 세대, 각종 견문을 자기 마음에 비추어 정리하면서 스스로 안목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여행 후의 감상을 기록하는 일에서 여행 전과 달라진 작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여행은 모아 둔 돈을 쓰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혹은 눈요기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다. 여행은 원래 무엇인가를 보고 알거나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를 보고 즐기기 위해 떠나는 관광이나 휴가와는 다른 것이다. 여행은 새로운 자신을 구축하고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이다. 여행을 통해 느낀 감정들은 여유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키워주고, 이전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워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 떠난 여행이라면 힘든 여정 속에서 외롭고 고생스럽지만 자기 삶을 진지하게 반추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떠난 여행이라면 사람들과의 부딪침 속에서 타인을 통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여러 경험과의 만남이 자기 안에 가득 충전될 것이다. 여행은 나와 세계의 만남으로서 낮은 공간과 낮은 사람을 만나며 경험을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즐겁지만 아쉬운 기억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여 각자 여행에 대한 남다른 세계를 간직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이러한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관동별곡」에는 작가의 심미 체험과 문화 체험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정철이 느낌 감상을 바탕으로 우리도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여행과 관광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오래도록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동안 여행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을 의미화 하는 활동은 더 나아가 기행가사와 같은 기행문학을 창작할 때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주제에 대한 의견 나눔과 여행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과정은 똑같은 관점에 대해서도 학생들 각자의 환경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러한 모둠 토론은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 작품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 주고, 문학 작품 읽기 전략을 갖게 한다. 학습자의 의미 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텍스트의 가치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기 학습지에 제시된 과제를 토론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해석적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관동별곡」을 통한 여행의 가치를 논의하는 활동이 끝나면 협동학습 모둠별로 발표하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을 학습자가 인식하여 생각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④ 「관동별곡」 학습에 대한 교사의 최종 정리

「관동별곡」의 감상과 이해, 해석적 접근이 끝나면 교사는 전체 학습 내용에 대한 정리를 실시한다. 각 협동학습 활동마다 교사의 보충 설명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하나의 작품을 배운 후 전체적인 정리를 하여 학습자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관동별곡」 애니메이션을 통해 정철의 여정, 견문, 감상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식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관동별곡 애니메이션 예시]



위에 예시한 애니메이션은 정철이 관찰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견마잡이 역할을 하는 인물을 두 사람이 경치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⁸⁶⁾ 정철이 금강산 경치를 보고 감탄하는 모습,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등이 「관동별곡」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사용하되 둘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설명하는 목소리가 따로 있어 애니메이션 장면 사이사이에 생략된 「관동별곡」의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통한 감상은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해 「관동별곡」을 학습한 내용을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애니메이션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하였거나 직접 교사가 만들어 여러 교수-학습 자료 사이트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관동별곡 핵심 정리 예시]



애니메이션의 감상이 끝나면 PPT 화면이나 판서 등으로 「관동별곡」에 대한 핵심정리를 해준다. 핵심정리는 「관동별곡」에서 배운 학습 요소들을 간단

86) 경남 교육정보 공유 체제(<http://www.gnedu.net/>)에 실린 멀티미디어 자료를 예시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고의 예시에는 애니메이션의 구성과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대화 내용과 해설자의 말을 글로 적었지만 실제 애니메이션에는 복잡하게 글로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간의 목소리로 대화와 해설이 진행되어 학습자가 경청하며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다.

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글의 종류와 문체, 배경사상, 제재, 주제 등을 정리하는 것은 해 줌으로써 「관동별곡」에 대한 텍스트 이해를 마무리 한다.

3. 협동학습을 활용한 「관동별곡」의 내면화 학습 방안

내면화 학습은 작품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인식과 작가의 관점 비판,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의미 재구성 등 개인적인 체험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활동이다. 개인마다 느끼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는 모두 다르므로 한 작품에 대한 작가의 관점 역시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작품을 통한 이러한 체험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감상문 및 창작 활동과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 내면에 가치 있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작교육이란 창조적 언어활동을 통해 표현물의 생산을 형상화하는 교육이다. 이제까지 국어과 문학 교육의 목표는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감상에 창작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문학 교육 방향 전환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고급 문학의 창작만을 ‘창작’이라고 본 낭만주의 관점을 따르고 있어서 창작교육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에서 제외되었다.⁸⁷⁾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부터 창작은 빼어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창조적인 언어활동의 전반으로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 ‘문학에 관해서 자기

87) 이희곤, 『학습자 활동 중심 문학 교육 방법 연구 -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87쪽

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창작을 일상적인 언어 사용으로 위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 교육에서의 창작은 문학적으로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결과를 뜻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창작 활동이 문학 작품을 내면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감상문 쓰기와 실제 기행가사 창작을 통해 「관동별곡」의 내적 체험을 펼쳐보이도록 하겠다.

1) 감상문 쓰기

문학을 읽는 것은 사고를 바르고, 깊이 있고, 풍부하게 하여 사고가 부족하지 않고 항상 보람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감상문을 쓰는 의도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생활 자세와 저자의 사고가 대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교류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찾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된다.⁸⁸⁾ 감상문 쓰기는 읽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추리력을 활발하게 하고,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더욱 깊고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은 뒤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은 학습자의 성장과 함께 감성을 풍부히 하고, 표현력을 증대시킨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 「관동별곡」에 대한 감상문 쓰기는 학습자가 고전 시가 작품으로서 갖고 있는 「관동별곡」의 문학적 가치를 알고, 그것이 현대에도 읽을 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작품의 내면화라고 볼 때 「관동별곡」의 가치를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88) 김경일, 『독서교육과 독후감 지도』, 새문사, 1988, 52쪽~56쪽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때 감상문 쓰기는 ‘해석’의 차원을 넘어 작가가 묘사한 여정에 대해 상상하는 즐거움과 흥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그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⁸⁹⁾ 그러므로 교사는 관동팔경과 금강산 여행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와 「관동별곡」에서 받은 감동 등 학습자의 느낌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작자와 작품 사이에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독자는 「관동별곡」이 기행가사로서 금강산 및 강원도 동해안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어 이 작품이 현재의 독자에게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는 「관동별곡」의 감상과 이해, 해석적 접근을 하는 동안 「관동별곡」의 표현과 작자의 심리, 주제와 느낌, 관동팔경과 금강산에서 여행하고 싶은 곳 등을 학습자 간의 협동학습을 통해 모두 학습하였다. 교사는 감상문 쓰기를 막막하게 여기는 학습자를 위해 앞의 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테이블 대화를 실시하도록 한다.


테이블 대화는 학생들이 작중 인물에 대해 반추하고 관련 작품을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보통은 서로 다른 책에 등장하는 인물을 초대하여 테이블 대화를 만들지만 동일한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을 초대하거나 작중 인물과 함께 가상의 인물을 꾸밀 수도 있다.⁹⁰⁾ 테이블 대화는 모둠이나 개인별로 학습지 중앙에 사각형이나 원형 테이블을 그리고 각 테이블에 초대할 인물을 선택하여 어떤 인물 옆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한 다음 테이블 주위에 각 인물의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각 인물을 초대한 이유와 각 인물 간


89) 김은아, 『고전문학에서의 수행평가 모형 연구 - 고등학교 국어(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9, 62쪽

9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http://www.kice.re.kr/>, 교수학습 개발 센터

에 대화를 나눌 화제를 적은 뒤 선정된 화제에 맞게 초대된 인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의 예를 해당 인물의 목소리와 말투를 이용하여 적어 보게 한다. 이것은 읽기 후 전략으로 이용되는 학습 방법이며, 학습자가 작중 인물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에 드러난 상황과 분위기, 문제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관동별곡」 작품을 읽은 뒤 이루어질 수 있는 테이블 대화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동별곡 테이블 대화 예시]

정철과 말잡이 대화		정철과 신선 대화
<p>정철: 여봐라, 잠깐 쉬자구나. 아, 여기가 바로 섬강이구나. 견마잡이: 그렇습죠. 조금만 가시면 원주에 도착하십니다. 정철: 소양강의 흐르는 물은 서울로 흐르겠지? 임금 곁을 떠난 신하가 걱정이 참으로 많구나. 견마잡이: 영감님의 충정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대단하시군요. 너무 걱정하시마세요. 정철: 오, 저쪽은 잘만하면 삼각산이 보이겠구나. 견마잡이: 영감님은 오직 임금님 생각뿐이시군요.</p>	<p>정철</p>  <p>공자</p>	<p>신선: 정철, 어서 오시게. 자네는 원래 상계의 진선이셨다지. 정철: 네, 그래서 뗏목을 타고 북두성과 견우성을 향해 가거나 사신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신선: 문장 한 자를 잘못 읽어 인간계에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술이나 한 잔 받으시게. 정철: 그래도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에 골고루 나누어 백성들의 기쁨을 보고 싶은 마음도 큼니다. 신선: 허허, 자네의 원대한 포부는 언젠가 빛을 발할 걸세. 술이나 한 잔 더 드시게나.</p>

<p>공자: 내가 들어보니 이곳이 중국의 여산보다 낫다고 하던데 사실이더냐?</p> <p>견마잡이: 제가 금강산 말잡이 경력만 10년인데 신비님들이 모두 그렇게 외치시던 걸요!</p> <p>공자: 하긴 진혈대에 올라 앉아 있으니 조물주의 숨씨가 야단스럽긴 하구나.</p> <p>견마잡이: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하면서 뛰는 듯 한 것이 아주 장관이지요?</p> <p>공자: 아니, 네 녀석이 나보다 낫구나. 어떻게 그런 멋진 표현을 한단 말이더냐.</p> <p>견마잡이: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잖아요.</p> <p>공자: 정말 금강산의 봉우리가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하는구나. 중국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야.</p>	견 마 잡 이	<p>정철</p>  <p>공자</p>	<p>신선: 제가 자랑해 마지않던 조선의 금강산은 잘 둘러보고 오셨습니까? 혹시 동해의 특산물을 먹고 물놀이만 하고 오신 건 아닙니까?</p> <p>공자: 허허허, 제가 어린 아이였다면 그 푸른 바다에 들어가 아이만의 자유를 만끽했을지도 모르겠군요.</p> <p>신선: 당신을 두고 농을 한 것인데 재치 있게 답변하시는군요. 역시 공자님이십니다.</p> <p>공자: 신선께서 주신 관동별곡이 저의 조선 관동팔경과 금강산 여행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p> <p>신선: 정철이 문장 하나는 빼어나게 잘 쓰지요.</p> <p>공자: 폭포를 무지개와 옥으로, 또 고운 용의 꼬리로 표현한 것을 보고 감탄해 마지않았는데, 직접 보니 정철의 그 비유가 옳더군요.</p> <p>신선: 저도 정철이 쓴 관동별곡을 읽고 금강산을 더 좋아하게 되어 다른 신선들과 이렇게 자주 놀러 나온답니다.</p>
공자와 말잡이의 대화	신 선	공자와 신선의 대화	

테이블 대화는 「관동별곡」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반영하여 작가의 심리나 화자의 심정을 추측한 대화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학습자는 각각의 인물을 통해 「관동별곡」의 내용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관동별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또

한 작품 속의 인물이나 가상의 인물이 되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관동별곡」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학습자는 「관동별곡」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인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화 형식을 이용하므로 다른 학습자의 생각과 정서적 감흥을 공유하여 폭넓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학습자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표상되었던 「관동별곡」의 내용이 언어로 구체화되어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모둠원끼리 테이블 대화가 끝나면 감상문 쓰기에 들어간다. 감상문 쓰기는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이므로 교사는 자유로운 사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감상문에 대해 조금씩 읽어 보고 ‘이런 생각을 다 했구나’, ‘정말 이 부분이 훌륭했니?’ 등 격려의 말을 해주어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문을 쓸 수 있도록 한다.⁹¹⁾ 감상문 쓰기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작품의 아름다움과 묘사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해석에 대한 강압적인 권유나 단정적인 작품 감상의 태도로 인해 학습자의 감상문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상문 쓰기는 「관동별곡」에 대한 학습자의 인상과 의미를 종합하여 감상하는 단계이므로 세련된 언어 감각의 형성과 감동을 통하여 내적인 충일감을 맛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글쓰기는 시간이 필요한 과제이고, 학습자의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음 시간까지 완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하지만 다른 학습자의 감상문을 베껴서 내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한다. 또한 감상문을 쓰는 형식은 매우 다양하므로 한 가지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⁹²⁾ 「관동별곡」을 읽고

91) 김은아, 『고전문학에서의 수행평가 모형 연구 - 고등학교 국어(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9, 66쪽

92) 김병철, 『수행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효율적인 독서 교육 방

나서 쓴 감상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감상문 쓰기 예시]

국어 수업 시간을 통해 「관동별곡」을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옛날 말이 많이 나와 읽기 싫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관동별곡」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관동별곡」에 대해서 알고 나니 나도 동해 바다와 금강산을 꼭 가보고 싶었다.

동해 바다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는 했지만 그때는 물놀이에만 신경을 썼지, 이런 경치 구경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해에 다시 가게 된다면 꼭 정철의 여정을 되밟아 보고, 그가 느낀 감정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특히 금강산에서 폭포 부분을 묘사할 때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 폭포가 내 눈앞에 있는 듯이 묘사되어 있어서 금강산의 폭포에 더욱 가보고 싶어졌다. 폭포를 무지개와 옥으로, 또 고운 용의 꼬리로 표현하고, 폭포 물소리를 천둥소리로, 그 모습을 눈이 날리는 것 같다고 비유한 것이 무척 신기하고 새로웠다. 폭포의 한 장면만 보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으로 묘사하는 정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정철이 글을 쓸 때 수식어나 그 밖의 단어 하나하나를 잘 선택하여 읊긴 것 같아 한층 더 멋있는 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정철과 같은 곳을 여행했다면 자연의 감동적인 모습을 글로 다 읊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철은 금강산과 동해 바다를 여행하는 동안 한결같이 백성들과 임금을 걱정한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백성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겠다는 다짐은 당시

안』,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1, 38쪽~45쪽

‘편지글 형식’의 감상문은 작품의 주인공이나 작가, 독자 자신, 또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쓰는 감상문이다. ‘시 형식’의 감상문은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다양한 형태의 자유시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느낌 중심’의 감상문은 글을 읽게 된 동기나 감상문을 쓰는 이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감상 후 자신의 마음가짐과 다짐 등을 중심으로 엮어 나가는 것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감상문 형식이다. 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과 현실을 관련지어 쓰는 방식, 자기의 생활과 비교하여 감상문을 쓰는 방식, 가장 감동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방식 등 다양한 감상문 형식이 있다.

조선 선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다양한 심리 상태로 보아 여행은 아마도 그에게 준 고민이자 선물이었던 것 같다.

내가 「관동별곡」을 읽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정철이 밟아온 여행지를 모두 뒤따라 가 보는 것이다. 금강산의 경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작품을 통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울지 짐작이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는 정철처럼 나만의 멋진 기행문을 쓰고 싶다. 그 기행문은 잘 쓰지 못했더라도 정철이 우리에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여행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상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배경 지식과 대상의 관련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흔히 도식적이고 관습적인 도덕적 공감이나 나타난다. 도덕적 공감이란 문학 작품의 내용이나 감상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다거나 앞으로 작품의 내용을 본받아 살아야겠다는 식의 감상 표현을 말한다. 이는 대상의 내용이나 의미를 필자 자신의 삶을 비추는 준거로 삼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덕적 공감이 일반화되면 대상을 감상하기보다는 자신을 반성하고 재단하는 것이 앞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 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감상문을 쓰기 위해 도식적이고 관습적인 도덕적 공감을 넘어서 깊이 있는 감상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⁹³⁾

「관동별곡」을 읽은 후 감상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에 정서적인 면을 덧붙이는 활동은 감상 표현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독서 감상 내용을 파악하고 견주어 보면서 공감을 이루어 나간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주어진 작품을 읽고 그것에 대한 감상문을 써서 학생 상호 간에 평가하고, 교사가 평가하는 것은 작품 수용의 바람직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자기 평가가

9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http://www.kice.re.kr/>, 교수학습 개발 센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동별곡」 감상문 쓰기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관동별곡 감상문 쓰기 평가 기준

평가 요소	작품	작가	독자
평가 내용	①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가 ② 표현의 묘미를 통해서 우리말 구사의 아름다움과 작품의 가치를 알 수 있는가	① 작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가 ② 작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들 수 있는가	① 서술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는가 ② 그 이유가 뚜렷한가
평가 기준	상 (5점) ①, ② 모두 제시되었을 경우	상 (5점) ①, ② 모두 제시되었을 경우	상 (5점) ①, ② 모두 제시되었을 경우
	중 (4점) ①, ② 중에서 하나만 제시되었을 경우	중 (4점) ①, ② 중에서 하나만 제시되었을 경우	중 (4점) ①, ② 중에서 하나만 제시되었을 경우
	하 (3점) ①, ② 모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하 (3점) ①, ② 모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하 (3점) ①, ② 모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의 느낌을 적되 다른 학습자의 감상을 평가 해주면서 하나의 작품에 다양한 감상이 나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감상문 쓰기는 독자가 독서를 한 뒤 강한 인상과 깊은 감동, 예리한 비판과 의견을 잊지 않도록 ‘사색하는 독서의 기록’이다.⁹⁴⁾ 따라서 학습자의 마음에서 외치는 진솔한 소리를 파악하여 감상문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문학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작품과 독자 사이에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 작품의 감상은 작품에 그려진 사건이나 공간, 또는 상황을 상상하고, 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며 작품이 제공하는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다.

94) 김경일, 『독서교육론』, 일조각, 1983, 243쪽

문학 교육은 단순히 문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문학에 내재된 사유와 사고를 밝혀내어 작품에 대한 감상의 타당성을 밝혀내는 작업까지 중요한 책무로 삼는다.⁹⁵⁾ 그러므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흥미 있고 자유롭게 학습하여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재미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문학에 대한 상상적 체험이 강조되어야 한다. 감상문을 쓰고, 비교하는 것은 학습자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방안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관동별곡」의 주제를 파악하고, 결론을 이해하여 작품의 수용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2) 기행가사 공동 창작

문학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자유로운 상상력을 촉발하는데 있다. 이때 교수와 학습 양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문학 교육의 본질을 구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강의와 강독에 치우친 수업이 아닌 발표, 토의, 토론, 협동학습,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등 다양한 방식을 수업에 적용하여 지도해야 한다. 「관동별곡」을 이해하고 감상한 뒤 기행가사를 창작하는 것은 감상문이나 비평문 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써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한층 발휘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기행가사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표현에 대한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장르로서 여행을 하면서 느낀 인상적인 경관에 대한 인식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조선시대에는 여행이 양반과 같이 신분이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었으나 현대에는 여가 생활의 한 방법으로 여행을

95)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378쪽

즐거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도 소풍이나 견학,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와 같은 단체에서 실시하는 여행은 물론 가족 간의 여행도 예전보다 활발해졌다. 이처럼 옛날보다 여행이 빈번해지기는 했지만 여행이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만끽하고 여유를 갖게 한다는 점은 예나지금이나 특별한 경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소중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학생들의 심미적 체험을 심화시켜 자아성숙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일기, 기행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행가사를 협동학습에 의한 공동 창작을 통해 학습자가 여행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체험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지 살피도록 하겠다.

기행가사를 창작하는 학생들은 이미 「관동별곡」을 학습하면서 기행가사의 배경지식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기행가사의 성격이나 특징, 문학적 표현 방법 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는 기행가사를 짓기 전에 여행에 대한 감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과 그것을 남다른 감각으로 포착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준다. 모든 글이 그렇듯이 작가가 새로운 경관에 대한 느낌을 남다른 감각으로 포착할 때 기행가사는 잔잔한 감동의 세계로 충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자가 기행가사 창작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행가사의 창작원리 몇 가지를 보충 자료로 제시해 준다.

1. 노정에 따른 구성 원리

기행가사의 내용 요소 중에는 노정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이나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있을 수 있어도 여정이 없는 여행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행가사는 여행 중에 보고, 듣고, 경험한 인물, 사물, 풍속,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시키는 것으로 노정이 곧 노정 중에 만나는 대상을 의미하게 된다. 기행가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노정이므로 노정에 따라 기행가사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2. 장면 독립의 원리

기행가사의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대상에 대한 표현과 느낌이 하나의 장면을 이루고 그것은 각기 다른 장면들과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행가사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장면은 시의 연이나 일반 서사물의 문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된 장면과 장면의 연결은 ‘도라드러, 올라가니, 빗기 지나’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공간 이동을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한 편의 기행가사는 독립된 장면이 모여서 완성된다. 독립된 장면은 대개 공간 이동과 작자의 위치가 짧은 여정들로 나타나고, 대상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며, 작자의 느낌과 감회와 같은 주관적인 정서가 반영된다. 이러한 서술들이 독립된 장면이 되고, 그것이 모여 기행가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3. 현재 시제의 원리

기행가사의 독립된 장면은 공간 이동에 의해 전개되며, 이 공간 이동은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다. 기행가사는 서술자, 혹은 화자의 시간 체험이며, 그와 동일시된 독자의 시간 체험이자 공간 체험이기도 하다. 기행가사에서 작자의 시간관념은 주로 시제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시제를 검토하는 일은 작자의 시간관념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자는 작품 속에 실현된 시제를 통해 읽기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작자의 주관적 시간을 시대를 초월하여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6) 정기철, 『한국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264~269쪽 참고

물론 몇 군데에서는 과거 회상 시제를 쓴 곳도 있지만 그것은 여행의 노정이나 전개와 관련이 없는 작품의 서사나 결사 부분에서 여행의 전·후 상황을 말하는데 사용될 뿐이다. 기행가사가 일관되게 현재 시제로 서술되는 것은 현실감과 현장감을 주려는 작가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 작자는 독자로 하여금 그 누군가가 여행을 다녀오고 쓴 기록물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독자는 작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여행의 경험을 더욱 쉽게 공유하는 것이다.

교사는 기행가사가 여정-견문-감상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각 장면이 장소나 느낌에 따라 독립되어 있으며, 대개 현재 시제로 서술됨을 설명한다. 그리고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은 주로 묘사를 사용하며, 묘사 안에는 은유, 직유, 대구, 반복 등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어 기행가사의 맛을 더한다고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잘 살려 기행가사를 쓴다면 여행에 대한 감동을 더욱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학습자의 창작 동기를 북돋아 준다. 수업 시간에 기행가사 창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 중에 필요한 자료는 학습자가 미리 과제로 준비했다고 가정한다.

기행가사 창작에 앞서 모둠원의 여행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한 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은 등하교 길이나 학교 안의 경로로 시작하는 여정을 말하는 것도 좋다. 이는 기행가사 창작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여행 경험을 말함으로써 지난 여행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되살리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동 창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행 경험 중 공통되는 여행지가 있는지 살피고, 없을 경우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 단체 여행을 소재로 선택해도 좋을 것이다.

여행 경험 이야기가 끝나면 교사는 모둠원이 정한 여행지의 지도에 여행 경로를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모둠원이 표시한 여행 경로에 신문, 잡지, 사진 등을 붙이고, 그곳에 해당하는 일화나 감상 등을 이야기한다.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듣는 것은 사고의 다양성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서 공동 창작의 밑바탕이 되므로 모둠원 모두가 의견을 끌고 루 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유의할 점은 마음 속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드러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열린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남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⁹⁷⁾ 학습자는 모둠원의 여행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그런 다음 여행 경로 옆에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여행의 여정과 견문에 대한 느낌을 적어본다. 생각나는 그대로를 기록하여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의 한 부분을 짧은 글로 표현해 본다.

이 부분에서 노정을 좇아 장면 독립의 원리에 의해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인상 깊은 경험을 떠오르는 낱말을 이어 글로 표현하고, 여정, 견문, 감상을 하나의 완성된 의미 단락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대상에 대한 서술은 대개 묘사가 사용될 것이다. 묘사는 어떤 대상을 놓고 모양, 빛깔, 감촉, 소리, 냄새 등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내는 방법이다. 묘사는 대상을 그려 보인다고 해도 그 목적이 대상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서 받은 인상을 전달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설명과 다르다.



작자가 묘사를 사용하여 글을 쓰면 독자는 마음 속에 상상 작용을 일으켜 묘사 대상을 직접 본 것 같은 인상과 느낌을 받는다. 흔히 묘사를 기법의 문제로만 파악하고 현란한 수사와 비유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97) 황혜신, 『과정중심 시 창작 수업 모형 연구 - 7학년 교과서의 시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120쪽

오히려 대상의 본질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언어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어 정작 묘사되고 있는 대상은 읽는 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교사는 여행에 대한 경험을 눈앞에 보이듯 그래서 독자의 감동을 유발하도록 하되 생생한 느낌이나 현실감을 불러일으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모듬원 각자가 산문으로 풀어 쓴 여행 경험 글을 압축하여 3·4조나 4·4조로 정리하도록 한다. 가사의 형식을 학습하고 「관동별곡」을 낭송하면서 가사가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교사는 산문과 운문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글의 형태를 바꾸어 보도록 한다. 모듬원은 보고 느낀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기행가사 표현에 어울리는 수사법을 의논하고, 자신이 맡은 부분이 가사의 리듬감이 형성되도록 함축의미를 살려 견문의 묘사를 정리한다. 글을 읽는 입장에서 잘 묘사된 문학 작품은 읽기에 재미가 있고, 글쓴이가 느낀 것과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정철의 「관동별곡」이 지금까지 독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표현의 절묘함에 있다. 정철이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움을 글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단순히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만을 설명하려 했다면 자연 예찬자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철은 관동팔경과 금강산을 여행하는 동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을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현재 시제의 창작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는 생생한 체험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여행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여행 사진을 보고 기행가사 표현하기]

	<p><산문으로 표현하기> 하늘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푸르른 물결과 초록의 짙은 내음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다. 도시의 탁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맑고 깨끗한 모습만이 있었다.</p> <p><기행가사로 표현하기> 푸르름에 들러는데 초록은 내려하네 세상천지 혼탁함을 피하기엔 영광없다 사선의 사흘밤낮 족하단 말 못하려니</p>
	<p><산문으로 표현하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에서 해돋이 광경을 보았다. 하늘이 빨갭게 물들고, 세상을 비추는 해가 신부의 연지곤지처럼 수줍으면서도 힘차보였다.</p> <p><기행가사로 표현하기> 연지는 어디 가고 곤지만 남았는고 새각시 얼굴같이 바알간 하늘이 환한 표정 웃음가득 밝아오고 있구나</p>
	<p><산문으로 표현하기> 지리산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산에서 바라 본 운해가 산과 어우러져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봉우리들이 짙은 푸르름으로 검게 보일 정도였고, 구름 또한 그 위에 탈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p> <p><기행가사로 표현하기> 솟 칠한 봉우리 거품 같은 하얀 구름 섞어 돌며 뿜는 기운 천지로 흐르나니 한발한발 내딛으면 하늘에 닿으려나</p>

이렇게 모듬원은 자신이 느낀 감상을 여행지와 견문 대상과 함께 짧은 글로 표현하고, 다시 4음보로 정리하면서 기행가사의 기본적인 형식적 특징을

체험하도록 한다. 그 밖의 다른 여행 기억도 학습자가 표시한 여정에 따라 표현하여 한 편의 기행가사를 완성하도록 한다. 각자 맡은 부분의 가사를 어떻게 배치하여 연결할 것인지 모둠원과 상의하고, 자연스러운 기행가사의 흐름을 위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가한다. 한 편의 기행가사를 완성한 뒤에는 모둠원끼리 모두 돌려 읽고, 전체 토의를 거쳐 잘된 표현과 부족한 표현을 선별한다. 부족한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모두 참여하여 수정·보완한 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가다듬는다.

기행가사를 쓸 때 유의할 점은 기행가사라 하여 먼 곳을 여행한 내용만을 제재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짧은 여행이라도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면 기행가사로 남겨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사는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지은 기행가사 창작 작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행가사 창작 예시]

인왕산별곡

봄날햇살 가득하고, 푸른하늘 쾌청하다
선들바람 시원하고, 고운새들 지저귀니
산오르는 이내마음 즐거움이 더하노라.
인왕산 정상올라 산아래 바라보니
정겨운 건물들이 한눈에 다보이네
저곳은 청와대요, 이곳은 시청부근
낮익은 건물들이 장난감 이로우나.
바쁘고 복잡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내가살던 도심안을 두런두런 바라보니
세상살이 결국에는 별것이 아닌것을

그동안 웃음없이 힘들게 살았구나
내눈과 내마음에 온세상 담아두고
지금처럼 내려보듯 여유있게 살아야지
인왕산을 내려오니 이곳역시 장관일세
꽃피운 나무들이 길가에 줄지었고
바람따라 아름다운 꽃잎들이 훑날리니
지금바로 이순간을 사진속에 담고파라
조금더 내려가니 마을이 보이는데
한집두집 모두모여 예술작품 이로우나
옛스러움 세련미를 모두함께 갖췄으니
이곳에 사는이는 분명미(美) 아는자라
우리것의 아름다움 가슴가득 느끼고는
다시한번 찾아야지 다짐하고 돌아서네

인왕산에 다녀온 감상을 기행가사로 표현한 위의 작품은 학습자가 기행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생각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있다. 산에서 내려다보는 도심 경치가 장난감처럼 작게 보이는 것에 웃음 짓고, 서울에서 공부와 씨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자기반성을 엿볼 수 있다. 한 편의 기행가사라고 보기에 는 미숙한 면이 있지만 공간 이동을 통해 대상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음을 4음보 율격에 맞추어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창작 활동이 끝나면 협동학습 집단은 모둠원과 지은 기행가사를 발표하고, 다른 조가 지은 작품을 들으며 모둠별 상호평가표를 중심으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서로 이야기한다. 모둠별 상호 평가는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듬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모둠원은 친구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모둠별 상호평가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			서술 평가
			상	중	하	
내용	주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을 살려 썼는가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났는가 				
형식	가사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조 또는 4·4조의 4음보 형식을 지켰는가 				
표현	시의 표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율이 드러나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총평						

모둠별 상호평가표는 학생들이 창작 결과물에 대한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므로 감상의 폭도 넓어진다. 학습자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여행 순간을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교사는 창작 솜씨가 좋은 작품을 복사하여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소개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조상들은 흔하지 않은 여행의 경험을 스스로 간직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기행가사를 창작했으며,⁹⁸⁾ 현대에까지 꾸준히 창작된 문학 장르이

98)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87쪽~88쪽
 여행에 대한 기록에 굳이 가사 형식을 취한 것은 당시 우리 문학 전반에 가사체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가사 향유가 주로 음영과 낭송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여전히 문명이 많았고, 입을거리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누군가 글을 잘 알고 목청이 좋은 사람이 낭송

다.⁹⁹⁾ 현재 학교 교육에서 옛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기행가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은 문학이 교실에서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음미하는 마음의 여유는 우리 삶의 잘잘못을 따져 볼 수도 있고, 스스로 평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읽고 무엇인가 창작한다는 것은 독서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내적인 소통 과정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반성의 과정을 동반한다. 단순히 자신의 표현 욕구를 표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읽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전문학은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던 사유 방식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정서 세계를 표현했던 창작방법을 보여줌으로 오늘날의 문학 교육에 유효한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창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격이 형성될 것이다.

더욱이 협동학습을 통한 공동 창작은 글을 쓰는 동안 학생들이 어떤 것에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는 ‘집단 독서’ 형태로 문학 작품이 수용된 예가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음영이나 낭송을 위해서 산문 형태보다는 리듬감을 부여하는 가사 형식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99)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51쪽

많은 학자들이 가사를 소멸된 갈래로 인식하고 있으나 가사는 소멸된 갈래가 아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의도적인 기록 의지를 가지고 창작된 기행가사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 작자층이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행가사 작품이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기행가사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카톨릭 신문』에 가사 작품이 창작·게재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가사 작자층만이 아니라 새로운 작자층에 의해 가사가 창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가사 연구시 주의 깊게 고려될 사항이다. 가사라는 갈래가 현대에는 수필에 그 기능을 물려주고 소멸했다는 등의 논의는 아직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모둠원 전원이 참여하여 협동학습 집단의 공동 관심사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둠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모둠원들 간에 즉시 피드백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여 글쓰기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학습자가 표현한 방식이 조금 어색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동료 학습자의 조언과 평가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둠원끼리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보다 분명하고 깊이 있는 기행가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혼자 글을 쓰는 것보다 어려움을 덜 느끼면서 작품을 완성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것은 개인별로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작품을 창작하므로 창작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조력자가 되어 협동하기 때문이다.

문학이 언어에 의해서 완성되고, 언어에 의해서 참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전문적인 작가를 기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창작 경험만으로도 기행가사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바탕이 되므로 기행가사를 공동으로 직접 짓는 일은 문학 교육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IV. 결론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문학이 어떤 모습인가 알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고전문학을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문학 지도의 한 영역인 기행가사의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행가사 장르를 중심으로 「관동별곡」의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문학’ 영역의 성격을 살펴보면,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고 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것은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이 문학 또는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설과 기성(既成)의 문학적 해석을 단순 수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학습자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작품 해석과 비평 활동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결과보다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을 중시하여 강의, 토론, 토의, 현장학습, 협동학습 등 학습 목표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문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수업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 감상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 기행가사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교육으로 논의하여 효과적인 「관동별곡」의 교육 방법을 구안해보고자 하는데 있다는데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기행가사의 문학교육적 의의와 「관동별곡」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II 장에서는 기행가사의 개념과 문학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기행가사는 여행자들이 산하(山河)의 자연 현상을 접하며 보고 느낀 바를 ‘가사(歌辭)’라는 시가 형식을 빌어 형상화한 문학 형태이며, 여행 동기에 따라 관유기행가사, 유배기행가사, 사행기행가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기행가사는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지닌 문학 교육의 제재로서 충분한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행가사는 여행의 체험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해 주어 전문과 지식을 확대시킨다. 둘째, 기행가사는 학습자의 경험과 정서, 감정을 문학적 장치와 표현 기교를 통해 전달하는 장르로서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신장시킨다. 셋째, 기행가사는 창작 당시 시대의 산물로 당대의 생활 문화나 역사적 현실이 반영되어 학습자가 당대 현실의 파악과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기행가사는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가치관 등이 용해되어 있는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심미적인 정서 체험을 통해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II 장에서는 제7차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기행가사 작품의 수록 및 교육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행가사는 다른 가사 작품과는 달리 ‘가사’로서의 특징을 살려 수록한 단원이 없었고, 기행가사를 학습하더라도 기행가사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성을 간과한 채 화자의 정서나 미적 감수성, 표현 위주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Ⅲ장에서는 기행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인 「관동별곡」을 교수-학습 제재로 삼아 「관동별곡」을 이해·감상하고, 내면화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실제 교수-학습 지도 방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관동별곡」의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살펴보았다. 내면화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인환이 제시한 ‘계획단계→진단단계→지도단계→평가단계→내면화단계’의 일반 모형을 선택하였고, 지도단계에서는 직소Ⅱ모형과 함께하기 학습 모형을 통해 협동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협동학습은 자신이 구성한 학습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교사 주도의 교수법에 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조정하면서 학습자가 수업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업의 실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 단계에서는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 측면의 학습이 실시되고, 내면화 단계에서는 감상문 쓰기와 기행가사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진다. 「관동별곡」의 이해와 감상 측면은 다시 가사 및 기행가사의 이해, 「관동별곡」 텍스트 이해와 감상, 「관동별곡」의 해석적 접근으로 세분된다.

첫째, 가사 및 기행가사의 이해는 직소Ⅱ모형을 이용하여 문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가사와 기행가사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직소Ⅱ모형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의견을 나누는 협동학습 방법으로 개념적 지식에 대한 학습에 효과적이다. 학습자는 협동학습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가사와 기행가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다른 친구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므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함께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구성 과

정 자체를 중시하는 협동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터득해 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둘째, 「관동별곡」 텍스트 이해와 감상은 함께하기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협동학습을 통해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 학습지를 구성하였다. 「관동별곡」 낭송을 통해 운율적 특징을 알게 하여 가사가 지니고 있는 표현적 특징과 형식적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동별곡」을 여러 번 읽고, 모듬원끼리 현대어 풀이를 실시하여 작품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학습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동별곡」을 여정, 견문, 감상으로 나누어 기행가사가 가지고 있는 구성 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행 지도와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여 문학 감상이 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동별곡」의 표현미를 살펴보는 활동으로 모듬별 감성 사전을 만들어 작가가 사용한 은유, 상징 등의 다양한 비유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모두 협동학습으로 진행하되 언제든지 교사가 직접 교수를 해야 할 부분은 시범보이기를 통해 학습 내용을 알려주고, 협동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관동별곡」의 해석적 접근은 함께하기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작가의 인식 태도, 미적 체험, 주제 등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에는 작가의 세계관이 수용되어 있고, 작가에 의해 미적 형식이 규정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하나의 작품이 읽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체험하도록 한다. 먼저 「관동별곡」에서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된 자연 경관에서 작가의 심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화자의 심정을 추측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동별곡」

에서 감동적이거나 마음에 드는 구절을 뽑고 각 구절에 대한 소감을 쓰도록 해 문학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여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였다. 또한 「관동별곡」의 주제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작가가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하였고, 「관동별곡」을 자료로 여행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토론해 보면서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협동학습을 이용하여 감상문을 쓰고, 기행가사를 창작하여 「관동별곡」 학습을 내면화하였다. 내면화는 작품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인식과 작가의 관점을 비판하고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등 개인적인 체험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활동이다. 「관동별곡」을 학습한 후 감상문을 쓰는 것은 문학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사고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찾는 활동으로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학습자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관동별곡」의 수용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기행가사 공동 창작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학습자가 기행가사 창작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행가사의 창작 원리를 자료로 제시하고, 모둠별로 정한 여행지에 대한 학습자의 여행 경험을 짧은 산문으로 쓴 뒤 기행가사 형식으로 바꿔보는 과정을 통한 편의 기행가사를 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상 본 연구는 기행가사의 문학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기행가사 교육의 문제점을 밝히고, 협동학습 과제 제시를 통한 「관동별곡」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협동학습은 결과를 가르치기 보다는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지식을 터득한다.

이러한 협동학습의 과정은 지식뿐만 아니라 작품의 감상 측면에서도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을 마음껏 펼쳐 의미를 구성해 나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기행가사 교육을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작품을 친근한 대상으로 여기고 흥미를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텍스트를 충분히 연구하고, 그에 맞는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관동별곡」을 비롯한 기행가사에 대한 교육 방법의 실제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 적용 사례를 연구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김윤식 외 4인, 『고등학교 문학(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5

김윤식 외 4인,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두산,
200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
자원부, 두산, 2003

조남현 외 4인, 『고등학교 문학(하)』,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5

홍신선 외 2인, 『고등학교 문학(상)』, (주)천재교육, 2005

2. 단행본

구인환 외,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구인환 외 3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4

김경일, 『독서교육과 독후감 지도』, 새문사, 1988

김경일, 『독서교육론』, 일조각, 1983

김창원,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997

김현재 『과학과 열린교육』, 교육과학사, 1998

박승희, 『시교육과 문학의 현재성』, 새미, 2003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신헌재외 6인,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2003

염은열,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2000

윤병국·이승곤, 『여행과 생활』, 형설출판사, 2004

이광원, 『여행학 개론』, 학문사, 2000

이재춘 외 2인, 『여행업의 이해와 실무』, 학문사, 2003

정기철, 『한국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최강현, 『한국 기행가사 연구』, 신성출판사, 2000

최인환 외 6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3

허왕욱, 『고전문학교육론』, 보고사, 2003

3. 일반논문

권오경, 「제7차 교육과정과 시가문학 교육」, 『안동어문학』 제4집, 안동어문학
회, 1999.11

김풍기, 「연행가의 교육적 독법: 대타적 자아인식의 형성과 문화 상대주의」,
『국어교육학연구』 제12집, 국어교육학회, 2001.6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3호,
1992. 봄호

이승남,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접근 - 관동별곡의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 『동악어문논집』 제32집, 1997

- 이유진, 「고전시가 지도의 한 방향」, 『서울교대초등국어교육』 8, 서울교대, 1998
- 이창식, 「고전시가 교육의 실상과 전망」, 『동국어문학』 제8집, 동국대학교, 1996
- 이혜순·최화순, 「현행 고전 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교육학연구』 제3권 1호, 이화여대 교과교육연구회, 1999
- 정기철, 「기행가사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학습자 활동 중심 교수·학습 모형」, 『한남어문학』 25, 한남대학교 어문학회, 2001.2
- 허왕옥,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전문학 교육의 방향」, 『한어문교육』 제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4. 학위논문

- 곽혜진, 『소집단 토의 활동을 활용한 시조 교육 방안－ 현행 중학교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권용덕,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 현행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0
- 김경옥, 『고전시가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7차 <국어> 상·하 시가 제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김병철, 『수행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효율적인 독서 교육 방안』,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1
- 김은아, 『고전문학에서의 수행평가 모형 연구－ 고등학교 국어(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9

- 김정은, 『협동학습을 통한 읽기 수업의 효과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김충식, 『수준별 과제 제시를 통한 국어과 수업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 김현주, 『정철의 관동별곡 연구 - 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 박대일, 『고전시가 학습 지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박삼석, 『기행가사의 교육성과 효율적인 지도방안 - 텍스트의 교육적 소통과정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9
- 박오근, 『주체적 학습자 탐구활동을 통한 시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박철현, 『가사의 향유방식 변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변혜정, 『내방가사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 - <규원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서진영, 『학습자 중심 시 교육 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 성영수,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고전시가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정철의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심수진, 『담화 분석을 통한 가사교육의 방안 - 송강 가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안정희, 『정철의 관동별곡 교수-학습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양미옥, 『고전시작 교육방법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양윤경, 『학습자중심 문학교육 방법연구: 구성주의에 따른 토론·창작학습을

-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1
- 오만근, 『고등학교 문학 영역 교수·학습 내용 비판적 검토 - 제7차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유소현, 『매체를 활용한 고전문학 교수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유향숙, 『일동장유가의 작자의식과 서술양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1
- 윤영호, 『모둠토의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문학 수업 모형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 이경수, 『협동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 이명심, 『가사문학의 특성과 학습활동 방향 모색 - 고등학교 교과 수록 작품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2
- 이인옥, 『한문일기를 활용한 일기 교육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5
- 이정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1
- 장정수,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0
- 정남진, 『초등학교 도덕과 협동학습의 실제에 관한 연구』, 광주교육대 대학원 석사, 2002
- 정명진, 『기행문학의 교수-학습방법론 연구: <열하일기>, <연행가>를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 정정순, 『가사문학의 지도 방안 연구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 - 주로 조선시대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1981

최서임, 『정철의 <관동별곡>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2

함은희, 『조선시대 기행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홍지선,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 연구 -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4

황혜신, 『과정중심 시 창작 수업 모형 연구 - 7학년 교과서의 시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120쪽

5. 인터넷 사이트

국어 난장- <http://cafe.daum.net/koreannanjang>

경남 교육정보 공유 체제- <http://www.gnedu.net/>

사이버 관동별곡- <http://user.chollian.net/~lion386/main.html>

사이버 한국 가사 문학과- <http://www.damyang.go.kr/new/gasa/sub08.htm>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ABSTRACT

A Study on <Gwandong Byeolgok> Teaching-Learning Plan Focused on Cooperative Learning'

Park, Hee Jung
Major in Korea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to prepare the educational value of Gihaeng Gasa i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nd is going to prepare a teaching-learning plan that can be utilized in the school field based on 「Gwandong Byeolgok」, a representative work of Gihaeng Gasa.

'Gasa' that is a style factor of Gihaeng Gasa is one of our nation's representative poetries and a unique culture heritage that only our nation possesses. In addition, because 'travel' that is a content factor of Gihaeng Gasa enables the experience of a new world and the feeling of other lives different for daily life through that and forms another knowledge, Gihaeng Gasa is a meaningful literature factor. Furthermore, Gasa is also a big stream of our pure literature that started since the creation of Hangul. Accordingly, educating Gasa can be considered to be a very valuable thing.

But Gihaeng Gasa that occupies one part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suffers from many difficulties compared to modern literature education. Due

to a sense of distance possessed by classical literature, learners feel unfamiliar with language expressions and way of thinking shown in works. Moreover, the interpretation course of works is limited to the interpretation of words one by one and contents involved in it are not studied sufficiently so that now it is recognized that classical literature is absolutely difficult. But in spite of the fact,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cannot be abandoned. Classics has been transmitted for a long time of period and reinterpreted endlessly and reevaluated so that it has educational potential power as literature that has regular emotional influence until now. Therefore, understanding and necessity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to learners and based on that, it should be utilized as educational data that can help language use for daily life and creation of new cultures.

「Gwandong Byeolgok」 as a work learned in the 10th grade of the National Common Educational Course has been evaluated as the best Gihang Gasa literature of Chosun Dynasty thanks to its excellent expressions and it is effective to various educational utilization so that its education value has been recognized. Accordingly, this study searched for a teach-learning plan that can apply learning methods in compliance with the 7th Educational Course by studying 「Gwandong Byeolgok」. Namely, it has a goal to prepare the foundation to feel our traditional culture and create new cultures by experiencing the contents and impression that the author wants to transfer through learner's study of 「Gwandong Byeolgok」 and making literature classes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Gihang Gasa can be learned. As for the concrete guidance contents of 「Gwandong Byeolgo

k』 , it was intended to make learners participate in learning positively and refine imagination by exemplifying notional knowledge acquisition about Gasan and Gihang Gasan and method of internalization and preparing and applying a learner focused teaching-learning plan.

If an efficient guidance method about Gihang Gasan and 『Gwangong Byeolgok』 can be discovered by accumulating these individual study data, it is considered that it is meaningful in its own way.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a guidance method that can be actively utilized in practical literature classes and the preparation for a teaching-learning method should be more supplemented through consistent studies.